



7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7호

(루계 제 633 호)

◆◆◆◆◆◆◆◆◆◆ 차 례 ◆◆◆◆◆◆◆◆◆◆

조국과 인민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문학작품에 더 빛나게 형상하자	4
수령님은 오늘도 별에 계신다	7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이야기	8
온 나라가 함께 간다	9
금수산의 지맥	10
친아버지	13
전선길에 승리가 빛난다	14
따뜻한 눈	18
고귀한 혁명유산	30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31
영원한 태양의 노래	32
머리 들자 나의 붓이여	36

붉은 태양	37
인민의 행복 위한 한생입니다	37
우리도 이 땅의 주인입니다	37
우리의 걸음새	38
40 분	39
위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속에 영생하는 작가	40
명언해설	48
내 영원히 백두산에 서 있으리	49
《조선문학》과 나의 창작	50
그의 소원	52
흙	60
지워지지 않는 글	61
내 고향 스무나무처럼	72
푸른 잎	73
초고속컴퓨터	80

조국과 인민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문학작품에 더 빛나게 형상하자

온 세계가, 지구가 깨진것만 같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것 같다고 몸부림치던 그 잊을수 없는 7월로부터 시간은 사정없이 흐르고흘러 어느덧 6년이 되었다.

6년! 그것은 기나긴 역사의 기준으로 채어 보면 너무나도 짧다.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 인민이 수십 세기를 두고 받아 안을수 없었던 귀중한 진리를 체득하였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한생에 대해 더욱더 가슴뜨거이 돌이켜 보는 기간이었고 인민의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인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영생의 6년이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작가들이 조국과 인민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에 더 깊이 매혹되어 그이의 한생을 기쁨진 예술적화폭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슴 불 태워 온 높은 충정의 6년이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친 위인의 한생은 그가 쌓아 올린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는 법이다.

80여성상에 걸치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운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온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결출한 정치원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위대한 현신의 한생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떠받들어 온 인류의 태양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10대에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새 시대의 지도사상-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위대한 사상으로 혁명의 년대마다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나가시며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여 세기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선 건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단계를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혁명투쟁은 그 누구도 걸어 보지 못한 생소하고 간고하고 준엄한 길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을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는 격전장,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그리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시대와 인류를 위하여 끊임 없는 로고를 바치시며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이 세상에 한분밖에 안계시는 위인중의 위인,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세기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실수 있는 기초에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다.

인민을 하늘같이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생의 좌우명, 지론으로 간직해 오신 **《이민위전》**의 위대한 사상이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10대의 나이에 단신으로 압록강을 건느시던 력사의 그날 가슴깊이 새기신것은 살 길 찾아 류량의 길에 나선 조국인민의 비참한 모습이였고 천교령의 땀잔 눈보라속에서 축한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그이께서 먼저 생각하신것은 일체의 총칼밑에 쓰러지고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된 조국을 하루빨리 안겨 줄 생각뿐이였다. 이런분이셨기에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첫 걸음으로 제일먼저 우리 인민을 만나 주셨고 해방된 조국에서 꼭 쉬겠다시던 그 약속도 잊으신듯 한평생 굶은날 험한 길만 걸으시며 인민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고 인민을 찾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태양으로 태어나시였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을 위해 한생을 불처럼 뜨겁게 사시였고 인민의 행복 지켜 현신하신 만민의 은혜로운 태양이시였다. 그래서 수령님께서서는 사상도 인민대중의 사상을 창시하셨고 당, 국가, 무력을 건설해도 철저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국가, 무력을 건설하셨고 령도도 인민을 위한 령도를 펼치셨고 업적도 인민을 위한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것이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된 위대한 한생이였고 조국과 인민에게 바쳐진 고귀한 현신의 생애였다.

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영생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사상 감정을 담아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과 불멸의 업적을 문학작품에 훌륭하게 형상하여 지난 6년간 높은 창작적성과를 거두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그 비통한 7월을 맞으며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할바없이 양이 많고 질에 있어서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에 있어서도 새롭고 다양하다.

우선 우리 시가문학에서는 수령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아버지수령님의 한생과 업적을 빛나게 형상한 다양한 시대의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영원 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어》,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영원하라 동지애의 역사여》, 장시 《영원한 인민의 수령님》, 《태양의 노래》, 서정시 《태양은 여전히 빛난다》, 《풍상의 메아리》 등이 창작되었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붉은기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아 노래한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 《우리는 맹세한다》, 《포전길 걸을 때면》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가작품들이 많다. 이것은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깨끗한 량심과 변함 없는 충성의 감정의 거대한 분출로 된다.

이 시가문학에서는 량적인 측면과 함께 형상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탐구되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 수령님의 업적과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다 새롭게 형상함으로써 시대의 사상감정구현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더 강렬하며 그 정서도 보다 열정적이고 략관적인것이 특징적이다.

그중에서도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하기 위해 위인의 내면세계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창작적환상의 나라를 펼쳐 수령님의 한평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단수 있고 철학적인 예술적화폭으로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아버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는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절통한 감정과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서와 밀착시켜 보다 더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오늘날이 처음 나왔을 때 받아 안았던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또한 소설문학창작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과 《대지의 전설》, 단편소설들인 《민족의 아버지》, 《사냥의 아침》, 《매혹》, 《상봉》, 《첫 선물》, 《동지에 대한 추억》, 《따뜻한 눈》...

이 작품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폭 넓고 다양한 생활화폭속에 격이 있게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나갈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은 아버지수령님을 너무도 갑자기 잃은 슬픔과 절통함을 뼈저리게 체현한 우리 작가들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창작한 충성의 작품이다.

조국과 인민 위해 바쳐진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 그이의 한생과 업적의 빛나는 총화로 되는 주체83(1994)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편소설 《영생》.

소설은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위해,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해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생애를 작품에 반영하면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생활을 감동적인 예술적화폭으로 품위 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나날이며 조국과 인민에게 바쳐진 그이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아버지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심오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재현하였다. 하여 소설이 출판되자마자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속에 커다란 사상예술적감화력을 불러 일으켰으며 우리 인민의 요구에 따라 거듭거듭 재출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최고성지에 깃들여 있는 전설들을 정리하여 후세에 길이 전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 지고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관련한 전설들을 수령님의 혁명활동자료들에 기초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폭 넓게 발굴정리하여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을 내놓았고 추모설화들도 수집 정리해 놓았다.

이밖에도 경희극 《소원》, 영화문학 《밀림이 설레인다》를 비롯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업적과 위대성을 노래한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수많은 창

작되어 수령형상문학의 채부는 날로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위해 바치신 80여성상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비해 볼 때,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의 높이에 비해 볼 때 아직 우리 작가들이 해야 할 과제는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 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부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20세기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문학이 오늘날아니라 21세기에 영원히 창조해야 할 무한한 형상원천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 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문학작품에 더 빛나게 형상하기 위해 깊이 있고 독특한 사색과 탐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풍부하고 진실하게 다양하게 펼쳐 보여 주는것이다.

그것은 원래 수령의 혁명활동력사자체가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위대한것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을 떠난 문학이란 있을수 없고 생활을 떠나 인간의 참신한 성격형상이 있을수 없다. 따라서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문학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수령형상문학은 문학의 일반적요구와 함께 자기 고유의 생리에 맞게 위대한 수령으로서,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생활을 그려야 한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 인민의 어버이이시며 이 세상 모든 인간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결출한 위대한 위인이시였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수령님의 한생을 빛나게 형상함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생활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위대한 생활속에는 위인의 인간적측면과 령도적측면이 집약되어 있어 작가들이 그 위대한 생활속에 대담하게 뛰어 들어 생활탐구를 깊이 있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 수령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감동 깊게 보여 줄수 있다.

우선 수령님의 한생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는것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을 3위일체의 관계속에서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 반세기 가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혁명의 험난한 길을 헤쳐 오시였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3위일체의 견지에서 수령을 형상하려면 반드시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수령의 빛나는 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깊이 있게 그려야 한다. 더우기 수령님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 위해 활동하신 혁명투쟁 과정에 깃든 잊을수 없는 사연을 감명 깊게 형상해야 한다.

또한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는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리용하여 생활반영의 폭과 깊이,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려 내기 위한 생활반영의 깊이를 보장하자면 수령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있게 펼쳐 보여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일수록 수령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묘사가 더 자유분방하게 펼쳐 져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형상이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어야 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활동하는 수령의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에 깊이 침투하지 않고 변두리에서 관조적으로 그린다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생활세계를 화폭적으로 보여 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마음고생을 많이 겪어 오신 분이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의 그 깊은 심리세계, 심리적굴곡과정을 진지하게 파고 들어 생동하게 펼쳐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귀중한 창작적교훈을 주고 있는 대표적작품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이다. 이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내부적체험세계를 현실에서 보는것처럼 방불하게 진실하게 그려 내였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격이 높고 감동깊게 그려 내자면 생활세부를 생동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만나 담화하실 때마다 룡담도 하시고 우스개소리와 생활적인 말씀도 자주 하신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생동한 생활적인 세부를 펼쳐 보여 주어야 한다.

단편소설 《사냥의 아침》은 어버이수령님께서 9살 난 소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으시는 장면과 돌세부를 통해 수령님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방불하게 그려 내어 위인의 위대한 생활을 생활적으로 감동 깊게 보여 주었다.

작가들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치신 수령님의 고귀한 한생과 업적을 보다 폭 넓게 빛나는 형상적화폭에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반영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데 창작적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 전기간 우리 혁명을 한순간의 탈선도 없이 탁월한 령도로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시었을뿐아니라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서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이끌어오신 세계혁명의 정치원로이시다. 그런것만큼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노래하는 작품창작에서는 철저히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것과 동시에 생활반영의 폭도 세계적인 판도로 넓혀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과 단편소설 《매혹》, 《사냥의 아침》, 《따뜻한 눈》은 좋은 창작적경험을 보여 주었다.

이밖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을 빛나게 형상하기 위한 미학적문제들이 많다.

조국과 인민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문학작품의 모든 형태에 빛나게 구현하여 후세

에 길이 전하는것은 작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체자,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1세, 2세대 혁명시인들의 창작정신을 따라 배워 창작활동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지성과 정서적체험이 위대한 인간세계의 높이에 접근하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 애쓰는 작가만이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과 업적이 위대하고 거창하며 영원불멸한것처럼 그에 원천을 둔 수령형상문학은 보다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보다 풍부해 질것이다.

수령님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

김충기

저 멀리
별끝에 솟는 해를 보아도
가슴은
끝 없는 그리움에 젖어라

버포기 아지 치는
논두렁길을 걸어도
마음은
8월의 풍년들길에 서 있어라

한해 두해...
세월은 흘렀어도
연백별이 받아 안은 그날의 감격은
나날이 더욱 새롭거니

잊을수 없어라
먼먼 렬차길로 오셨던 이른 새벽
금빛이삭의 물결우에 옷자락 날리시며
더없이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수령님 지으셨던 그날의 그 미소

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 오시겠다면
그날의 그 약속을 못 잊나니

가슴 치던 7월의 그 눈물을 딛고
언제나 8월에만 사는 마음

쌀을 두고 맺어 진
끊지 못할 인연이여서
수령님 마음은 언제나 이 벌에 있었고
연백의 논벌마다엔 예나 제나
수령님의 뜨거운 미소가 어려 있거니

수령님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
걸음걸음 힘을 주는 이 믿음
이 믿음 신념으로 안고서 사는
연백의 사시절은 언제나 8월

쌀로 장군님을 잘 받들라 하신
그날의 그 말씀 유훈으로 안고
자나깨나 벌에 사는 이 마음엔
언제나 자애론 그 영상 밝게 간직되어 있거니

아, 수령님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
여기서 농촌테제완성의 설계도를 펼치시며
쌀산우에 먼저 밝아 올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가리키신다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이야기

잡지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이 발행된 때로부터 어언 5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그때의 《문화전선》 창간호를 다시금 펼쳐 보느라면 그날에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음성이 금시 울려 오는듯 싶다.

그날은 주체35(1946)년 7월 25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아 보는 어느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군은 세차게 들먹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 섰다.

정갈하고 검소한 방, 여러가지 책들과 문건들이 쌓여 있는 책상앞에 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슨 책을 보고 계시였다.

그가 허리 굽혀 인사 드리자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며 의자를 권하시였다.

의자에 조용히 앉던 그는 수령님께서 방금 보시다가 책상우에 놓으신 책에 눈길을 두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책은 다름아닌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였던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책상우에 놓여 있던 잡지 《문화전선》을 손에 드시고 기쁨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문화전선〉 창간호가 나온것을 보았습니까?》

수령님의 물으심에 그는 원고단계에서만 보고 출판된후에 다시 읽지 못한것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져 머뭇거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그를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하시면서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그만하면 내용이 괜찮게 된것 같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창간호로서는 책이 좀 작은감이 있는데 글 쓰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애로가 있어서인지 좀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책이 작은것이 좀 유감이지만 이제부터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잘 만들 수 있을것이라고 고무의 말씀까지 주시였다.

나라 없던 그 세월 곳곳에 흩어져 붓을 꺾고 가슴을 치던 작가들을 넓은 품에 안아 주시고 붓과 지면을 마련해 주시더니 오늘은 그들이 쓴 책을 누구보다 먼저 보아 주시고 기뻐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힘을 안겨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잡지가 나오기까지의 작가들과 편집원들의 수고를 헤아려 보시는듯 잡지 책을 바라 보시다가 그에게 문화전선사를 꾸려 놓았는가고 하시며 편집력량을 잘 꾸려 주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잡지를 매달 정기적으로 출판하여 인민들에게 보내 줄데 대하여서와 내용이 풍부하게 글을 잘 쓰고 편집을 다양하게 하여 독자들의 기대와 흥미에 맞게 출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출판기일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잡지 《문화전선》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 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며 새 민주조선 건설에 일떠선 근로자들의 정력적인 투쟁과 승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훌륭한 작품들을 편집하고 민족문화유산계승사업과 다른 나라의 진보적인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며 편집사업에 근로대중을 적극 인입시키며 잡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한자한자 적어 나가던 그 일군은 가슴이 후련해 지고 눈앞이 확 트이는것 같은 심정에 잠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는 그를 미소어린 눈길로 지켜 보시다가 앞으로 잡지의 부수와 폐지수도 늘이고 책장정도 잘해서 인민들의 관심이 높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자면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잡지 《문화전선》을 손에 드시고 표지로부터 내용편집에 이르기까지 다시한번 유심히 훑어 보시며 생각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처음 나온 잡지를 보니 그들에게 무슨 애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너그럽게 말씀하시는지 그는 어려움도 다 잊고 《문화전선》 편집과 출판사업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과 앞으로 단행본들을 출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것까지 솔직하게 보고 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화전선사가 갖 나온것만큼 경제적으로 곤난이

있을것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왜 진작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힘 있는 어조로 《문화전선사에 경제적으로 방조를 주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문화전선사에 대한 방조문제를 친히 재정국에 위임하시고도 마음 놓이지 않으시여 문화전선사 구좌에 10만원을 등기로 보내 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사랑은 크나큰 결실을 가져 오기 마련이다.

진정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서 태어난 우리나라에서 첫 혁명적문예잡지였으며 당의 빛발아래 힘찬 진군을 시작한 우리 문학의 귀중한 열매였다.

본사기자

온 나라가 함께 간다

오피천

어제는 내 안해가
꽃뻘스를 타고
금수산기념궁전을 다녀 오더니
오늘 이 아침엔
내 아들이 급행열차를 타고
또 떠나는구나

2모작 밀보리 가을 끝낸 논에
모내기도 선참 끝낸 기쁜 소식
수령님께 보고 드려 달라던
농장의 소원 다 안고
나도 며칠전에 다녀 온 길

해마다 설날이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고
위대한 령도의 자욱 온 나라에 새기시는
장군님의 그 자욱 따라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언제나 찾는
태양의 집

저 멀리 대흥단 감자꽃 핀 포전길이
탐구의 밤을 지새우는 과학지구의 구내길이
조국을 지켜 이슬 맞는 최전연 길이

태양의 집 대문으로 이어 저 있나니
강이면 질러 가 어서 뵈고 싶은 마음
청류다리로 놓여 지고
힘한 령 단숨에 날아 안기고 싶은 마음
금릉동굴로 열려
이렇게 이어 졌어라
금수산기념궁전행 궤도전차길도

어느 한 순간도
인민을 떠나서는 못사시는
수령님 마음이
수령님 떠나서는 못사는
인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열려 진
조선의 길이여

아, 기적소리는 울렸다
어서 떠나거라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태양의 궤도를 타고
온 나라가 함께 간다
온 세계가 함께 간다

금수산의 지맥

금수산은 반만년 긴긴 세월 우리 민족과 더불어 강성과 쇠퇴, 자부와 치욕 등 민족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여 온 산이다. 그리 높지도 않고 웅장한 원시림이나 장엄한 만년설은 없으나 산세 수려하고 기묘함이 절륜하여 깎아 지른듯한 단애나 사시장철 푸른 로송이며 기암괴석들을 바라보노라면 하나같이 속되지 아니하고 장하다는 느낌이 폐부에 든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옛적 금수산을 찾은 한 시인이 《포백은 이족귀한데 문체는 귀금수(세상에 귀한것이 비단이라 하였건만 네 모습은 그 비단우에 수까지 놓았구나)》라고 읊었다 하니 그것은 우연치 않다고 해야겠다.

어쨌든 금수산을 세상에 보기 드문 절경으로 일러 온것은 먼 옛날부터이다.

그러나 오늘에 금수산이 더 빛나는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만이라도 꼭 찾아 보고 싶어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로 되었기때문이다.

언젠가 머나 먼 북아메리카에서 조국에 찾아 온 한 해외동포학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전설이 되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머리에 이미 세월의 백발을 인 해외교포로 말하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지리학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연구과제가 특이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인즉 그가 한생의 연구목표로 설정한것이 단순한 위도, 경도로 구분되는 지리학이 아니라 조선고유의 풍수법을 세계지리와 거기에 담긴 력사속에서 재 음미해 보고 그것을 하나의 과학으로 정립해 보려는것이였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오늘에 와서 지리풍수란 비과학적이고 허황한것으로 낙인된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주장인즉 풍수설에서는 궁성이나 도읍, 주택, 묘지 심지어 나무 한그루를 심고 떠옮겨도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세의 형국을 살피고 음양리치를 따져 화를 피하고 복이 들도록 자리를 잡아주는데 수천년 인류력사를 더듬어 보면 결코 그것이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속단해 버릴수만은 없다는것이다.

례를 들어 집터를 잡을 때는 해빛이 잘 드는 남향으로 향좌를 택하고 부엌에서 물이 나지 않도록 지세를 살펴 정하는것이 초보적인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축적된 인간생활의 경험과 지식이 미발전된 과거시대에 풍수설을 이루었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수수만년의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함

축된 풍수설은 당연히 학문의 한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였다.

학자는 이 학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의 일생을 다 바쳐 세상을 종횡무진하였다 한다.

그는 로마제국의 수도와 비잔틴, 인디아와 고대 중국의 옛 도시들과 성곽, 메카와 예루살렘 등 종교의 성지들까지 찾아 다니며 그 지대의 일고 잡은 력사들을 낱알이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 그는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은 그 지맥과도 많이 관련되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고대 바빌로니아제국이 부흥할수 있는것은 황금의 량강지역을 가졌기때문이며 중국문화가 자랑높은것도 황하와 장강 두 강을 가졌기때문이라고 보았다. 에짚트는 널강과 삼각주를 가졌기에 세계고대사를 장식하는 강국을 일으켜 세울수 있었고 피라미트와 같은 거대한 기념비를 축조할수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도, 중세 유럽이 열 몇 차례에 걸쳐 펼쳐 나섰던 십자군원정도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 성지를 차지하는가 빼앗기는가에 따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으니 예로부터 성지를 가진 민족과 나라는 멸망을 모른다는 금언이 전해왔기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든든한 밑자료들이라고 할수 있었다.

머리에 백발을 인 오늘까지 그가 이러한 류다른 학문을 닦고 자기 리론을 완성하기 위해 전심전력해 온데는 그나름의 깊은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반만년의 자랑찬 력사와 문화를 가진 문명한 우리 조선민족이 반세기에 걸쳐 남북으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것이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해서였다.

그리하여 《민족의 진혈》을 찾는 자기의 독특한 학문으로 민족에게 무언가 큰 기여를 하리라고 결심하였던것이다. 하여 로쇠와 피로, 추위를 이겨내며 히말라야산줄기도 오르고 알프스산정도 수차 넘었으며 멀리 인가제국의 옛 수도도 찾아 갔었다. 사실 이국의 산발을 더듬어 다닐 때면 늘 그의 가슴에 품은 생각은 《왜서 내 나라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온 세상 사람들이 찾아 갈만한 성지를 못가졌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원래 평양태생이였다.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풍수쟁이여서 그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고 그 덕에 그는 삼십대에 못미처 벌써 관서지방뿐아니라 해서지방과 관동지방에까지 이름난 풍수군이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백의민족이 번영할 진혈을 찾을

욕망으로 남북삼천리를 종횡으로 주름잡아 다녔지만 끝내 찾아 보지 못했고 전란과 풍운의 세월에 떠밀려 다녔다. 결국은 기이한 운명의 반연으로 일생 세계 여러지역을 편답한 그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때에 다시금 고국으로 가볼것을 결심하였다. 소시적에는 그가 보지 못했던 진령이 삼천리장산 그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먼저 찾아본곳은 남조선땅이었다.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 사흘동안 내려다 본 도심은 그에게 허무감과 실망만 안겨 주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이 들어 서고 현란한 네온불빛이 명멸하는 화려한 서울이 그에게는 한갓 폐허로밖에 여겨 지지 않았으니 그의 입에서는 서산대사의 《만호장안은 개미뚝 같도다》고 한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처럼 쇠하고 이지러진 지맥에 그 무슨 래일이 있을손가, 리조 500년을 지탱해 왔다는것이 놀라운 일 이рода. 무학대사도 먼 앞날을 못보았구나.》

제탄에 자기 식의 학문으로 민족의 앞날을 예측하고 겨레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 그의 푸른 꿈은 남조선땅을 돌아 보며 이렇게 깨어져버리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애통하게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전해졌다. 민족의 대국상이 있는 후 장군님께서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려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학자의 마음은 견잡을수 없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풍수설에 의하면 성지란 지맥으로부터 앓음새와 땅색같이 물빛까지도 다 정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평양의 금수산지구라면 대성산이며 아미산, 모란봉 그리고 대동강 등을 그는 손금처럼 환히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평양이 세상에 보기 드문 절경이고 관서 8경의 으뜸이라고는 생각했으나 그곳을 진혈로는 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곳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선정하신분이 온 세계가 비범한 위인으로 칭송하여 마지 않는분이시니 그분께서 어찌 경계만을 보고 성지를 정하셨으랴. 내 가서 금수산지구를 다시 보리라. 너무도 급작스레 려장을 꾸리는 그를 보며 가족친지들이 우려했으나 로인은 뒤를 돌아 볼새 없이 허위단심 평양으로 달려 왔다. 평양에 들어 선 로인은 회포를 나눌 사이도 없이 모란봉과 대성산, 아미산의 산발을 밟고 대동강기슭을 더듬어 보며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여름밤에 모란봉 을밀대에 오른 그는 진실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옛 시절 단군성왕이 이곳에 도움을 정하고 박달 민족의 첫 나라를 세운것도, 동방의 강성대국 고구려가 이곳으로 천도해 온것도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하랴. 더우기 평양천도를 단행한 고구려의 장수왕으로 말하면 97살로 근 80년간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었고 을지문덕장군이나 연개소문장군으로 말하면 모든 술수에 도통했을뿐아니라 천기를 내다보

는 성인이었는데 어찌 우연히 이곳에 고구려의 천년사적을 의탁했을것인가. 이 민족의 5천년 력사에서 천년이상의 강성대국을 이룩한것은 이곳에 도움을 정한 단군조선과 고구려뿐이 아니였더냐. 이 어찌 우연일소냐....

그 먼 옛날의 성인들이 여기에 나라의 주추를 얹힐 때 무엇을 보았을까? 그것을 알아 내야 했다.

어느날 안학궁터를 돌아 보고 대성산성의 장수봉에까지 오른 그는 한참동안이나 사면팔방을 돌아 보았다. 그러다가 금수산지구에서 실로 놀라운것을 보게 되었다. 땅거미가 깊어 지는 저녁인데도 금수산지구는 그 어떤 신기한 빛에 싸인듯 밝게만 느껴지는것이였다. 어둠은 그곳에도 어느곳과 다름 없게 서려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굵이치는 대동강과 합장강이며 사방으로 펼쳐 진 넓은벌과 굴실굴실 둘러 싼 금수산의 산발이 밝은 대낮처럼 날날이 눈에 안겨 왔다. 날이 저물수록 더욱 선명해 지는 금수산지구를 내려다보던 그의 눈은 갑자기 광명을 얻은듯 황황히 불 타올랐고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즐기찬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 얼마나 신비한 땅인가! 이야말로 <완사명월>이요 <금구물니>가 아닌가! 큰 강인 대동강이 서남으로 이 땅을 감싸안으며 용용히 흐르고 수려하고 힘찬 절벽이 있어 천하제일 명산이니 이 어찌 길지가 아니라 하랴!》

《완사명월》이란 산수가 비단을 밝은 달아래서 빠는 형국을 말하는것이니 이런 곳에서 바로 불세출의 위인이 나는 법이라 했다.

비단이란 귀인의 옷이요 그 비단을 달빛아래서 빨면 미려함이 끝이 없다는 뜻이였다.

또 《금구물니》란 금거북의 형국을 말하는것인데 금수산지구가 바로 금거북의 형국으로 하늘이 정해 준것이였다.

세상의 진혈을 론하여 가로되 가락지처럼 이루어진 《금환락지》는 2등진혈이요, 다섯보물이 사귀는 《오보교취》는 3등진혈이라 세상에 매우 희소하다 하였으니 《금구물니》 즉 1등진혈인 금거북 형국은 구만리장천아래 오직 이곳뿐이리라.

풍수설에서 금거북의 형국은 《수가 이치러지거나 소하거나 공활하지 않아야 인재가 나고 야세는 넓은 들에 하늘도 넓어야 복지며 토색은 생기와 길색이 있어야 하고 토사가 견밀하며 샘물이 맑아야 하는것이라 하였으니 바로 이곳이 그러한 땅이였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1등진혈의 땅, 금수산지구를 우리러 학자는 두손 모아 합장하였다.

《아! 5천년전 단군성왕이 여기에 첫 도움을 정하고 천년강성대국 고구려가 여기로 천도했던것은 다 이 금수산지맥을 바로 보았기때문이요. 력사에 큰일을 한 통일고려가 5백년을 넘기지 못하고 리왕조가 5백년을 넘기지 못한것도 개경이나 서울이 이 나라의 참진혈이 아니기때문인것이였구나.》

이러한 학자로인이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본것은 비단필을 펼친듯한 달빛아련 대동강이었다.

그에게는 소시적 아버지가 들려 준 옛 전설 하나가 떠올랐다.

옛날에는 금수산을 낀 평양성을 한척의 배라고 일러 왔다. 그것은 성의 남북길이가 길고 동서너비가 좁아 마치 배모양과 같이 생긴데다가 북쪽엔 합장강이, 동남쪽엔 대동강이 성벽을 감돌아 흐르고 서쪽엔 보통강이 성벽을 따라 흘러 대동강과 합류하므로 그대로 물우에 떠 있는것 같았다. 그리하여 일찌기 성사람들이 평양성이 떠내려 가지 말라고 큰뚝을 만들어 대동강물속에 잠그었다 한다. 그런데 이 뚝이 임진왜란때 평양성에 기여 든 왜놈들에 의하여 들리었는데 높이가 20여자나 되고 굵기는 둘레가 1자가량 되는 대단히 큰 뚝이었다고 했다. 그때 성안에 남아 있던 로인들이 왜놈들에게 벽력같이 소리를 치며 《이 뚝을 당장 제자리에 잠그라! 그렇지 않으면 평양성이 물에 잠기고 모두가 물귀신이 되고 말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금거북형국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물이다. 자라나 거북은 어차피 물과 관련되어 있으니 너무 탕수가 쳐도 안되며 말라 버려도 아니되는 법이다. 그러고 보니 을묘대탕수요, 왕가물ियो 할적마다 빈번이 나라에 개화가 찾아 들고 편란이 일어 났음은 우연치 않았다. 결국 그때마다 금거북이 평안을 얻지 못해 움쉴거리곤 한것이였다. 그가 어린 시절에 수없이 보아 온 대동강과 보통강은 범람하는 홍수와 감탕으로 하여 인명까지 앗아 가는 죽음의 강이였다. 바로 이러한 금거북에게 천년만년 평안을 주었은즉 경애하는 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서해갑문을 막아 대동강의 흐름을 영원히 멈추어 세운것이였다. 이로써 대동강은 역년 변화를 모르는 대인공호수가 된셈이였다.

그러나 학자로인의 이 모든 견해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립상을 모신 홀을 지나 대계단을 올라 서 태양과도 같으신 어버이수령님앞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비로소 금수산지구가 1등진혈로 된 비결을 확연히 깨달았다.

이 땅이 생겨 수수만년의 세월을 헤아리나 이곳이 오늘에 금거북형국의 1등진혈로, 복지로 점지된것은 바로 이곳에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시며 한울님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기때문인것이다. 소시적부터 자신이 수없이 보아 온 금수산, 그때에는 그리 눈에 띄이지 않던 금수산이 민족의

참진혈을 간직한 땅으로 된것은 바로 이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신 때부터였다!

자기는 지금껏 지맥이나 산수가 출중한 위인을 배출한다고만 생각해 왔었다. 허나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은 대성인이여서 풍수의 지맥을 리롭게 변화시키신것이였다.

궁전방문을 마치며 학자로인은 가슴에 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달래일길 없어 방문록을 마주하였다. 그는 늘 몸가까이에 간수하고 다니는 벼루에 향먹을 듬뿍 갈아 대붓을 적서 들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눈을 감고 앉았다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필휘지로 적어 나갔다.

《오호라! 김일성주석님께서 영생하시는 금수산은 민족의 참진혈이오니 이 성지우에서 머지 않아 만년강성대국이 일어 서리라.》

금수산의 지맥이 풍수설에서 1등진혈인 금거북형국이라고 했다는 지리학자에 대한 전설은 요즘 향간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

금수산기념궁전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수산에 오르시여 지맥에 대한 말씀을 하신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에게 멀리 을밀대와 만수대언덕, 장대재학생소년궁전쪽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저기 당중앙위원회가 자리 잡은 창광산으로부터 해방산, 인민대학습당이 앉은 남산재와 학생소년궁전이 있는 장대재 그리고 만수대는 다 이 금수산의 지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정일조직비서가 의사당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금수산의 한끝에는 내가 있고 저끝에는 김정일동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진산인 금수산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하늘이 낸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상만사에 도통하시고 천문지리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며 금수산의 지맥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겠는가. 해외동포 지리학자는 금수산이 금거북의 형국이며 서해갑문을 막아 금거북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었다고 하면서 금수산지구는 민족만대의 진혈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경탄이 낳은 위인전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김우경



친아버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량강도 대흥단군 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서두분장에 휴양각마냥 아담하게 일떠 선 제대군인 마을을 돌아 보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장군님께서 자기들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에 접한 제대군인들과 안해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새 혁명초소에서 만나뵙는 끝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뜨거운 환호에 다정히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신 다음 제대군인 민원식동무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였으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결혼식은 언제하였는가, 안해 박혜금동무는 평양에서 살다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흥단으로 달려 왔다고 하는데 농사일이 힘 들지 않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신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엌과 살림방들을 돌아 보시였다.

아늑한 방안의 한쪽 벽면에 대흥단으로 파견되는 제대군인들과 평양의 처녀진출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친필이 정히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를 비롯하여 이불장, 옷장, 밥상과 부엌세간들이 그뿐하게 갖추어 져 있었다. 정말 집안 그 어디를 둘러 보아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찬장, 옷장, 이불장들을 손수 열어 보시며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물으시였다.

그들부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철 입을수 있는 옷들과 여러채의 이불, 지어 부엌세간과 텔레비존수상기까지 보내주시여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도 모르고 산다고 그이께 대답 올리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낮 설은 고장에 와서 새 살림을 켜는데 왜 불편이

없겠는가고 하시면서 소금과 간장, 된장은 제대로 공급되는가, 지난 겨울 방이 춥지는 않았는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이어 제대군인의 안해가 오래지 않아 해산하게 된것까지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준비는 되었는가고 하시며 창고안의 미역도 보시고 부엌의 수도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도 몸소 알아 보시기까지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흥단의 제대군인들은 어제날에는 조국보위초소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 오늘은 농업전선에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들이며 공산주의리상존건설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가고 있는 영예로운 선봉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값 높은 삶은 강성대국건설사의 한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기록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제대군인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이윽고 집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념사진을 찍어 주실것을 바라는 제대군인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그들부부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하기에 그들부부는 그 날을 잊지 못해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나 소탈하게 대해 주시는지 친정집의 부모님들을 뵈옵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 이들의 부모도 미처 찾아 오지 못한 머나먼 이곳에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 오시여 세간 나간 자식의 집을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며 한 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 주시였으니,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이들만 아닌 이 나라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의 친아버지이다.

부모와 자식사이에 오고 가는 혈육의 정에 비할바 없이 가장 뜨겁고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그이의 사랑에 떠받들리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하루빨리 건설될것이다.

시조

전선길에 승리가 빛난다

첫 자옥

박전걸

천리로 뻗고
만리로 이어 진 전선길...
내 오늘 한굽이 또 한굽이
성스런 혁명실록의 갈피를 더듬어 보니
가슴에 뜨겁게 안겨 오누나
이 길에 새겨 진 사연 깊은 첫 자옥이

길
장군님의 천신만고로 열려 진 이 길에
가슴 뜨겁지 않은 자옥 있으랴만
내 정녕 헤아릴수 없구나
그 첫 자옥에 실렸던
우리 장군님의 만고의 아픔과 무거운 심중을

가장 어려웠던 날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 마지막충계를 내리신 장군님
다박술초소를 찾아
눈보라치는 전선길을 가시던
그 첫 자옥

하늘이 열백번 무너져도

자신께서 기어이 열어야 할 길
걸음걸음 강철의 담력으로 헤치신 길
정녕 단신으로 찍으신 그 자옥우에
선군이란 말이 태여 났거니
그 말 사전에 있었거나
그 말 고전에 있었거나

그렇듯 험난한 전인미답의 길이었다
그렇듯 힘겨운 생사운명의 첫 자옥이었다
그 첫 자옥에서 시작된 전선길
백두삼천리별로 뻗어 갔더라
랑림의 험한 산밭을 넘었더라
동서해기슭에 이어 졌더라

하기에 건듯 불어 치는 한줄기 바람결에도
내 났을 다해 귀 기울이고
산기슭의 바위 하나 풀 한포기도
피 더운 가슴에 소중히 안아 보나니
이 땅에서 고난의 행군이 영영 없어 진 그날에도
인민이 못 잊고 력사가 못 잊으리
아 우리 운명의 고마운 그 첫 자옥

총이어

리창식

불빛 흐르는
영웅의 고지
긴긴 전호도 다 돌아 보시고
병사들의 훈련모습도 보아 주신 장군님
이제 떠나셔야 할 시간을 앞두고
하셔야 할 말씀 많으시련만
최고사령관은 병사에게 총을 주시었다

백두령장의 존함이 새겨 진
그 은빛총과
쌍안경을 받아 안고
감격에 목 메이는 병사들
피 뿜는 가슴들은 무엇을 생각했던가

총
성스러운 종
혁명의 재부로
총은 무거웠다

사랑속에
믿음속에 총대를 안겨 주심은
미래를, 혁명을, 우리의 붉은기를
총 잡은 아들딸들에게 기꺼이 맡기신것
총을 목숨처럼 끌어 안은 병사의 가슴에
어찌 더 소중해 지지 않으랴
이 땅 이 하늘이

우리 장군님 지켜 가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그 모든것이

추켜 든 마치와 낫우에
우리의 총대가 있나니
총은 나의 조국
총은 우리 혁명

아 총은

불패의 당이며 정권

명장의 위업과 병사의 위훈
하나로 이어 놓은 총
총으로 시작되어
총으로 이어 지는 혁명의 길우에
우리 장군님 세워 주신
섬광 번뜩이는
총, 총이어!

군인가정이 사는 집

한광춘

감을 쥐고 있는 처녀라면
이제는 누구나 안다
축복 받은 군인가정이라면
이제는 온 나라가 안다

어버이 깊으신 정
2월의 뜻 깊은 사진에 다 담아
자랑으로 내세워 주신 총대가정
군인가정의 참 뜻을 생각하는 내 마음
저 눈 덮인 백두설령을 넘노라

어디에 새겨 저 있느냐
항일의 피어린 전장
김대장 찍으신 혈전의 그 자욱은
어느 산발에 어렸느냐
빨찌산녀장군 날리시던 군복자락은

아 눈보라 내닫는 백두산에
이 나라 첫 군인가정
빨찌산가문이 있었구나
내 나라 군인가정의 첫집이

백두밀영고향집이었구나

오붓한 살림이 아니라
백두산 3대장군의 배낭이 걸려 있는 집
이 집문을 나서신 위대한 군인
우리 장군님
백두의 눈보라길을 전선길로 이으셨나니

그 길에서
해풍에 실려 간 너인의 병사시절이
어깨우에 별이 되어 빛났다
애국의 가풍 총대로 이어 가는
우리의 혁명적군인가정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일떠 섰다

아 백두의 눈보라속에
총대가정의 첫집은 서 있고
빨찌산가문의 혈통을 이은 오늘의 군인가정
군인가정의 노래가 울리는 집은
최고사령부 불빛 흐르는 전선길에 있어라

귀속말

주광일

꿈 같은 순간이었네
노을 비낀 전호가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주시던 장군님
분대의 맨 마지막
나어린 병사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정겹게 귀속말을 하시었네

새들도 부러워

노래를 멈춘 순간
그 순간을 놓치면
한생을 잃을것만 같아
병사는 마음의 문을 다 열었네

산발에 메아리치던
감격의 만세소리도 잦아 들고
흐르던 시간도 멎어 선듯
고지우엔 고요가 깃드는데

병사는 심장으로 들었네
 꼭 영웅이 되라는 아버지의 귀속말을

 친어머니만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바다였네
 믿음의 하늘이었네
 아 장군님의 귀속말
 온 전선길이 새겨 안은 그 귀속말...

병사들에게 영광을!

계훈

선뜻 들어 설수 없구나
 마식령 10리 굴길
 무지개처럼 아름다워서만
 내 이렇듯 뜨거웁에 젖는것 아니여라

쫓아 보며 한걸음
 더듬어 보며 또 한걸음
 걸음걸음 이 가슴에 메아리쳐 오누나
 천연암반을 한치한치 뚫고 나가던
 그날의 메질소리 불꽃 날리던 정소리
 《적기가》의 노래소리

캄캄한 굴속
 등불이 다 타면
 고무장화를 잘라 땀불로 추켜 들고
 불덩이되어 나아가던 땀 젖은 얼굴들
 그 사랑스러운 우리 병사들을
 내 후더운 마음의 손길로 다 안아 주고 싶구나

전선길의 한구간
 10리 굴이여 말해 보라
 어둠속 돌무지우에서 식사하는
 병사들을 두고 그냥은 못 지나
 전조등불빛을 비쳐 주시며

가시던 길 오래오래 멈추신 장군님

 그 불빛
 장군님의 사랑의 불빛인줄 뒤늦게야 알고
 달려 가며 엎어 지며 만세를 터치며
 멀어 저 가는 승용차를 따르던 병사들
 그들이 너무도 기특하시여
 우리 장군님 두고두고 외우시며
 한평생 잊을수 없다고 하시였구나

내 걱정애 넘쳐 바라보는
 아아한 마식령
 줄기줄기 산악이 품고 있는것은
 은금보화보다 귀중하고 빛나는
 병사들의 결사판철 그 정신
 불멸의 그 위훈

병사들이여
 인사를 받으시라
 조국의 감사를 받으시라
 줄기줄기 마식령이 웨친다
 병사들에게 영광을
 장군님 병사들에게 영광을!

샘물이야기

김진주

이 마을 날아날아
 전선길 날아날아
 산기슭 샘물가에 내려 앉으니
 아 찰랑이는 샘물이 하는 이야기
 못 잊을 그 이야기 가슴에 흘러 드네

깊은 밤 이른 새벽
 전선길을 이어 가시던 장군님
 잠시 이 샘터에서 쉬여 가시였네

뜨거운 불별아래 달계 드신 샘물 한모금
 한모금 샘물이 장군님 야전식사였네
 샘물도 끼니가 되는줄 내 처음 알았네

나는 알았네
 병사들을 찾아 가시는 그 천리길이
 산기슭 한모금 샘물로 이어 저 간 길임을
 이런 샘물이야기를 남기시며 가신 길이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였네

이 길에 나의 시가 있었다

채동규

술술의 그림자 푸르게 비낀 길
진달래며 산새들도
그옥한 시정 자아내건만
내 오늘 그날처럼 선뜻 붓을 들수 없구나

려장 메고 철령을 오르던 그날에도
아스라한 날벼랑가
얼음길의 차바퀴자국 두손 모아 쓰다듬으며
사람들이여 나는 그만 울었다

장군님 천만고생
오로지 시로써밖에는
달리는 덜어 드릴수 없는 시인의 마음
그날 나의 시도 함께 울었다

이렇게 쓴 한편의 시조차
우리 장군님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보아 주셨나니
천리 또 천리 전선길에는
아이들의 웃견본도 병사들의 노래도
조국의 운명도 실려 있었다

위대한 스승의 슬하에서
시와 인생을 배운 그 길
승리로 빛나고
천지개벽의 전설도 많아
내 붓을 들어 노래하려니
전선길 전선길이 그대로 영웅서사시더라
아 그 길에 나의 시도 있었다

세상에 오직 한길

오피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을 지나간
그런 수수한 길이 아니구나
굽이굽이 길이로만 켜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구나

오늘도 옷자락 날리며 서계시는
장군님의 전선길
그 위대한 심장이 뛰는 길
누구든 이 길에서 보시라
그러면 길은 말해 주리라

자신은 눈길에 발을 열구시면서도
해풍에 튼 너병사들의 손을 끌어 주시며
걸음걸음 사랑으로 열으신 길임을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병사들에게 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명령하며 헤치신 길임을...

철과 철이 부딪치고
불과 불이 맞서는 최전연 열점에도
단신으로 나서시여
내 조국에 천만겹 강철옷을 입혀 주실 때
그이의 옷자락 부여 안고
병사들이 울었다

온 나라가 울었다

누리에 처음 열린 길
민족을 살리고 조국의 번영을 열어 놓은
선군령도의 길
이 길이 아니었다면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노래도 없었으리
대홍단 감자꽃도 피지 못했으리
락원의 봉화도 타오르지 못했으리

아 길이어 전선길이어
명산에 우는 새소리도 그 길에 흐르더라
사철 푸른 동해의 물결도 그 기슭에 칠썩이더라
그 길우에 하늘은 푸르고
대고조로 달리는 천리마의 숨결이 굵이치더라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고
혁명이 가는 그 모든 길
그 길은 장군님의 전선길
승리의 전선길이어라!

(주체 89. 4. 15)

따뜻한 눈

최영학

1

저물어 가는 주체40(1951)년.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피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강산에 마치 평화가 온듯이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최고사령부 집무실이 자리 잡은 방공호를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평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는것이 저으기 상쾌하시였다. 방금 방에서 안고 나오신 무거운 기분을 날려 버리듯 큰숨을 내그으시였다. 소리없이 따르는 부관을 등뒤로 느끼시며 손을 내들고 눈송이를 받으시였다.

손바닥에 내려 앉는 눈송이속에 수정꽃처럼 되어 있는 눈꽃들은 백두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정교하였다. 자연의 영원한 법칙과 그가 지닌 순결한 아름다움에 그이께서는 문득 감동을 느끼시였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할것이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제기된 문제를 생각해 보시였다.

어제밤 전선에서 돌아 오신 그이께서는 아침에 곧 내각회의를 여시고 적들의 《추기공세》가 여지없이 격파된후 전선상황을 보고하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이른바 <항공우세>를 코에 걸고 구성이북지대에 정전선을 설정하자는 날강도적인 요구를 정전담판장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렴치한 주장속에는 우리가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구성이남지역에 원자탄을 떨어뜨린다는 위협이 깔려 있는것입니다.…”

한편 적들은 보도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전선에서의 패배를 보상하기 위한 심리전을 펴고 있었다. 《북조선은 <자유세계>와 함께 살아 남든가 아니면 방사성구름속에서 전멸하든가 둘중의 한 길을 택해야 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 질것이다. 그것은 원자탄전쟁이다.》

《한명의 아메리카비행사가 유유히 날아 가 전쟁을 결속해 버릴것이다.》…

전선과 판문점에서 놈들의 기도가 안팎으로 좌절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차피 미제의 발악적인 원자탄공격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또다시 문제는 전체 인민이 자기의 당,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노예의 삶을 택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지켜 죽음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었다. 여러차례 논의를 거듭하여 왔던것이지만 명백

한것은 피할길 없는 준엄한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것이였다. 무거운 기분이 사람들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이럴 때 판문점편락군관이 도착하여 국제항공우편표식이 있는 편지 한통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담판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세계인권기구로부터 적 포로들에게 보내오는 우편물을 접수하면서 미국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리의 내각성원인 림병선동지앞으로 보낸 개인서한을 별도로 전달 받았습시다.…”

그 바람에 미제에 대한 분노는 《원자탄의 아버지》 아인슈타인한테로 번져 갔다.

아인슈타인이란 어떤 자인가? 그를 두고 세계에서는 현대물리학의 창시자요, 20세기 인간지성의 최고대표자로 떠받들고 있다.

한다하는 정치가들과 국가수반들이 자기의 정치적정당성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법전처럼 인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명백한것은 《민족멸살》의 불가사리인 원자폭탄을 미국놈들에게 제공한 자가 다름아닌 아인슈타인이라는것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 공화국의 내각일군앞으로 개인서한을 보낸단 말인가. 분노는 어느새 림병선에 대한 시비로 번졌다.

도대체 전쟁쌍방의 주요인물들사이에 공직을 벗어난 이른바 《개인서한》을 주고받을수 있단 말인가. 고급동서에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원칙적으로는 이를 내통으로 간주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 어떤 사람은 문제를 극단적인데로 몰아갔다.

《그는 원래가 우리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찌기 손문과 레닌동지를 접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칼 맑스의 조국인 도이쉴란드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해방후에 서울서 그를 찾아 가 함께 싸울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한사코 등을 돌려 대다가 순수한 민족운동이라 하여 가지고 좌도 우도 아닌 중간길을 선택했지요. 한마디로 사상적립장이 애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다 안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와 아인슈타인이라는 자의 관계를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편지를 해독해 보면 알겠지만…》

그는 아예 암호편지로 치부해 두고 《해독》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붙였다.

《그가 이미전부터 이러루한 거래를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검토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그 말을 차마 들으시기 무참하여 폐회를 선포하시고 김천에게 조용히 그의 생각을 물으시었다.

《저는 그렇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수령님께서는 그가 채 하지 않은 말을 음미해보시었다.

《리해는 되지만 생각해 보시오. 눈을 가로 뜨고 사람을 가려 보면 우리 나라에 <만일>의 여지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그이께서는 지지를 얻고 싶으신 심정이였다. 김천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그에 대한 원칙적인 해명을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림병선에 대해서는...》

그가 일반사람이라면 몰라도 내각일군인만큼 반드시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동지 림병선을 잃는 길이다.)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었다. 검토를 거쳐 《만일》의 의심이 해소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한 인간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될것이다. 그때 그의 불행이 어떠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고 있다.

피로운 마음을 달래일길 없으시었다. 편지는 일단 자신께서 건사하시고 밖으로 나오시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 가 《해독》을 하느라 하면 후에 봉인 뜯기운 편지를 전달 받는 림병선의 심정이 어떠하랴 싶으시어서였다. 그이께서는 저기 멀리 어렴풋한 산발너머로 북방의 눈길을 헤치며 본래의 성실한 됃됨 그대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그의 모습을 그려 보시었다.

놈들의 《추기공세》를 결정적으로 짓부셔 버릴 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떠나실 때 전재고아들의 겨울철 생활보장문제를 안고 이미 그곳에 나가 있는 림병선을 전화로 불러 새로운 파업을 덧말겨 주시었다.

《얼마 안 있어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놈들이 또다시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새로운 공세를 벌리려고 하고 있지만 원래 <크리스마스>라는건 선생도 알다싶이 그리스도교국가들에서 평화와 정의, 인간의 행복을 바라는 인민들의 념원이 담긴 명절입니다. 나이 많으신분에게 거듭 수고를 끼쳐 안되었지만 그곳 비지구에 있는 적포로수용소들에 다녀와 주십시오. 포로들에게 인민군전투원공급규정을 실시할데 대한 명령실행정형을 료해하는 겹 자기들의 명절을 불우한 처지에서 맞게 되는 포로들을 공화국정부대표로서 위문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쯤은 그가 포로수용소들을 돌아 보고 있을것이다...》

《부관동무, 말을 가져 오시오.》

그이께서 푸근한 눈발속으로 말 타고 질주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시었다.

림병선! 그는 증명해 보일것이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강계까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로 들어 갔던 거기 고산진의 장자강반우에서 펼쳐 놓았던 인생의 추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람과 사람사이에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동지들앞에서 자기를 해명해 보이는 쓰거운 고백으로 되어 버릴것이다...》

부관이 말을 가져 왔다. 그이께서는 손때 묻은 탐탁한 말고삐를 넘겨 받으시었다.

《좀 달리고 오겠소. 그동안 물을 좀 덥혀 주오. 아이 목욕을 시켜야겠소.》

어제밤 전선에서 돌아 오시는 길에 데려 온 아이를 념두에 두신 말씀이였다.

...이것은 그 하나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성주! 너는 김혁!》 지금까지 우리의 혁명은 믿음으로 동지를 얻고 사랑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겪고난 이후부터 사람들사이에는 은연중 불신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여기다가 우리의 잠재적인 원수들은 암암리에 독이 든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있다. 《너는 누구냐?》

의심의 씨앗을 뿌린 땅에서는 증오가 싹트고 이것이 성하면 원자탄보다 더 철저한 파괴력을 가지고 사회를 전멸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을 해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

적아가 들고 나며 사생결단 운명의 싸움을 벌리고 있는 이 땅에서 사회의 영원한 요람인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지켜 내야 할 무거운 사명이 나서고 있음을 그이께서는 절감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건뚝 몸을 날려 말안장에 오르시었다. 푸르륵! 흥분한 준마의 전물을 느끼시며 한바탕 달려 갈 산굽이길을 줄잡아 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고무하듯 말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시다가 자! 달려 보자! 슬쩍 발뒤축으로 배허벅을 차시었다. 준마는 달리기 시작하였다. 점차 속도를 높이는데 따라 평평 내리는 함박눈이 세찬 눈보라가 되어 밀려왔다. 문득 이 눈보라가 1년전 그 장자강기슭에서부터 밀려 오는듯한 착각이 드시었다.

2

(림병선... 림병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뇌이시며 뺨안 눈발속을 달리시었다.

그날 림병선은 현물세납부사업때문에 도에 나갔다는 정형을 보고하려고 찾아 왔다가 느닷없이 연포리주막집이야기를 꺼냈었지...

《후창에서 일을 끝내고 여기로 나오는 길에 연포리에 들러 보았습니다. 오래전 김형직선생님께서 일경에 체포되어 가시다가 탈출한 주막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것을 보니...》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우시였다. 산에서 함께 싸워 온 동지들속에도 알려 지지 않은 그 주막집 이야기를 한생 해외와 남조선에서 보내다가 해방후 건국을 앞두고 우리한테 온 그에게서 듣게 될줄은 참으로 뜻밖이시였던것이다.

《림선생이 어떻게 그 주막집의 역사를 다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더 무르익히는 어조로 말했다.

《웁습니다. 그것은 력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것을 민족의 력사로, 혁명의 전통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 군내무서장이라는 사람도 주막집 내막을 모르고 있기에 말입니다.

가문에는 혈통이라는것이 있듯이 사회에는 전통이 있고 민족에는 력사가 있어 여기에 인간을 짐승과 구별해 온 녀이 있다고 말해 오던 신채호선생이 생각납니다.》

그이께서는 평소에 과묵하고 조용하던 그에게서 전에 없던 흥분을 감추하시면서 방을 떠나 인적 드문 장자강기슭으로 나오시였다. 전통이요, 력사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간에 부친의 이야기를 집무실 안에서 수상과 상의 직분으로서 나눌수는 없으시였다. 인정사는 어디까지나 인정사로 여겨두고 싶으셨던것이다.

《고맙습니다, 림선생.》

그이께서는 눈 덮인 장자강반우에서 그의 손을 잡으시였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 처 남은 인생에 다시는 력사의 흐름을 놓치지말자고 다잡는 결심입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운다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두번이나 저의 인생을 건드리고 흘러 간 력사를 놓치고 살아 왔습니다.

20년전 그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민족 매 사람이 자기의 새로운 력사를 의식했더라면...

력사에는 가정을 세울수 없다지만 저는 민족분열과 지금의 전쟁이 피할수 없는 숙명이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이의 눈앞에는 어느덧 한 인간의 일생이 오래 동안 함께 살아 온 사람의 일처럼 생동하게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

...소년은 홍의장군 박재우가 아흐레동안 왜적과 격전을 벌린 거룡강기슭 아흐레벌에서 발을 매다가 호미를 내던지고 발머리에 베어 놓은 풀단우에 벌렁 드러 누웠다. 지친 몸은 땅속으로 잤아들고 났은 육체를 떠나 훨훨 창공으로 날아 올랐다.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버지의 옛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울려 왔다.

《...승냥이한테 쫓기고 쫓기다가 더는 피할수 없게 된 오누이는 서로가 누이와 오빠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려고 하였더라. 이때 손우에 이 세상을 올려 놓고 하늘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거인은 마음착한 오누이를 위해서 해빛으로 엮은 그네를 내려 보내 주었지. 오누이는 그것을 타고 저하늘나라로 훨훨 날아 올라 갔단다.》

소년은 가없이 푸른 허공속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인의 모습을 찾아 내려고 뚫어 지게 올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은 자기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우의 또 하늘우에서 인간세상을 굽어 보는 거인의 시선을 분명히 느끼였다. 그 흥분때문에 몸이 오싹했다. 하늘에 해가 비치고 달이 뜨는것도 땅우에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것도 모름지기 《그》가 주관하고있을것이다. 아! 해빛으로 엮은 그네를 내려 보내주지 않으려나...

소년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세찬 충동이 일어 났다. 저 산너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저 강건너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저 지평선너머에는?... 어디로 가면 거인이 내려 보내는 해빛으로 엮은 그네를 탈수 있을까...

소년은 마침내 거룡강너머로 인생길을 잡고 고향을 탈출하였다.

망향 20년! 《해빛으로 엮은 그네》를 찾아 떠났던 그는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아버지가 안계시고 형님들이 늙은 고향으로 돌아 왔다. 그가 얻은것은 울적한 심회를 담은 시 한수뿐이었다.

일찌기 고향을 버린 나그네
공자의 땅을 떠나
석가의 땅을 지나
마흐메트의 땅에 내려
옛 에짚트문화의 정점을 향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갔으니
지구를 절반이나 돌아 왔건만
여기 또한 남에게 빼앗긴 땅
5천년 령혼의 짓밟힌 신음소리
돌무덤속에서 울려 오누나

들끓는 중국땅 손문을 만나고
쏘베트 로씨야 레닌을 만나고
세상에 이름난 명인들의 글을 읽어
철학박사학위를 지니었으니
풀집 지던 시골소년 이만큼 되었으면
금의환향이라 할수 있건만
해빛으로 엮은 그네는 어디 있느냐
리향보다 더 슬픈 오, 귀향이여!

늙어 버린 형님들은 8남매의 막둥이인 그에게 하

늘 같은 기대를 품었다.

《니 이제는 쓰러 진 집안을 일떠 세우라고.》

《형님들, 제가 부디 왜놈밑으로 돌아 온것은 집안이나 일으키자고 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말을 지켜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자는것입니다.》

《어허여, 이 어찌노. 말깨나 하는이들은 모두가 감옥으로 가는 세월이요. 니 집안도 아니 세우고 으째 나라타령하노.》

귀국한 이듬해인 주체19(1930)년 겨울에 그는 당시 《5.30폭동》의 후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주국 군벌파의 교섭차로 《신간회》의 대표로서 만주로 가게 되었다. 그때 거기서 옛 독립군시절 동창학교에서 사귀었던 황백하를 만났는데 그 사람 불쑥 흥분해 가지고 《지금 길림쪽에서 소년령수 **김일성**의 새로운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파, 어느 주의에도 기울지않고 곧장 민중속으로 확대해 가는 품이 뭔가 다르오.》 그러면서 자기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 그분의 부친을 연포리 주막집에서 구원한 이야기를 자랑스레 덧붙였다.

그는 그저 씩씩하니 흘러 듣고 말았다. 한다하는 독립운동가들, 대륙을 뒤집어 엮은 세계의 영웅들, 종교와 철학, 장구한 인류문화, 이 모든것을 피부로 느껴온 나였다. 어찌다 우리 민족이 10대의 소년에게 운명을 걸 정도로 쇠하였는가.

이렇게 그는 생각해 버렸다.

그때 안내도 받고 방조도 받으면서 친숙해 진 《동화일보》 지국장 최형우가 주체25(1936)년에 그를 찾아 왔다.

《두고 보십시오. 해방은 틀림없이 **김일성**장군님 기발아래서 옵니다....

이때도 그는 지나친 환상을 가지지 말자고 자신을 다잡았다. 도저히 털어 버릴수 없는 거인에 대한 미련에도 불구하고 《인간구원의 길》이라는 필생의 연구과제를 의식하던 베를린시절에 확립한 관념, 이를테면 세계가 하느님이나 어떤 영웅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인류가 아직 찾지 못한 객관적진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세상에 번쩍 나섰던 사람들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스러지고 말더라는 타성적인 체념이 고집스레 머리를 들었다.

이럴 때 **김일성**장군빨찌산의 보천보전투승리소식이 신문에 났다. 온 서울장안에 말 없는 기쁨이 싱글벙글 흘러 넘쳤다. 어학회성원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모아 소주와 옥파를 사다가 축배를 들었다. 이 소박하고도 환희로운 축배는 그가 **김일성**장군님께로 인생길을 돌린 첫 걸음으로 되었다.

어화 어화 백두산

김대장 산아

《어학회가》에 이런 3절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노래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국내공작원과 연계하여 어학회안에서는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해 갔다. 그러던 주체31(1942)년 조선말대사전이 원고 단계에서 완성되고 그 초판자금때문에 전전궁궁할 때 그는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일제놈들이 말하는 《조선어학회사건》이 터졌던것이다.

《해방주요! 술 한잔 드시고 밖으로 나가시오. 나라가 해방됐소.》

페인이 되어가지고 들것에 들리워 감옥을 나오니 《해방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가 하늘 땅에 차넘쳤다. 만세 부를 지력도 없어 눈물만 짙짙 흘러며 봄비는 사람들의 틈새로 푸른 하늘을 쳐다 보느라니 해방은 틀림없이 **김일성**장군님 기발아래서 온다던 10년전 최형우의 말이 가슴을 찔었다. ... 해방의 환희와 처자들결으로 돌아 온 기쁨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인생이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조선말대사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는데도 그 허전함은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일찌기 두번이나 제 인생의 문을 두드린 민족의 새 역사를 놓쳐 버렸다는 느낌, 무엇으로써도 그 인생의 빈자리를 메꿀수 없다는 잠재의식에 눈 뜨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리하여 늦게나마 인생을 따라 세우며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서울유지들과 함께 흥성흥성 뛰여다니다가 그만 미국놈이 들어 와 리승만의 꼴을 보게 되었다. 내가 벌을 받는가부다! 체념해 버리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48년도 초봄이었다. 력사는 앞집 담장을 예돌아 꽃향기 진동하는 등나무넝쿨밑으로 해서 세번째로 찾아 와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렸다....

《수령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 왔습지요....

결국 이번 연포리길은 그 옛날의 빈자리를 참회하는 길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의 팔굽아래를 다정히 끼여 잡으시었다.

《선생은 력사를 놓쳤다고 후회하시지만 선생의 고귀한 사업은 민족사에 뚜렷이 남을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위업이 앞으로 장구해 질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르고 보니 해방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책동에 대항해서 사전 하나 없이 심히 방언적이고 사멸해 가던 우리 말을 정리하여 통일적인 언어활동의 기초를 마련해 놓은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력사지 다른것이었습니까.》

그는 한없이 행복한 미소가 피여 오르는것을 감추지 못하고 게면쩍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복잡다단한 인생

행로와 한결같이 순수한 충의지심이 어린 얼굴표정 속에 깊은 조화를 띠면서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끌어 당기는 그를 물끄러미 지켜 보시였다. 조국이 어려운 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김일성 동지께서는 말고삐를 잡아 채시였다.

네굽을 안고 질주하던 준마는 호용소리와 함께 앞발을 쳐들며 멈춰 섰다. 반짝반짝 땀이 돋은 말갈기에서 김이 피어 올랐다. 숨을 돌리느라 투레질치며 뚜벅거리는 말을 다독여 주느라니 집무실안에서 안고 나왔던 무거운 기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따뜻한 그리움이 피어 오르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풀물이 든 잠뱅이를 입고 풀단우에 누워서 푸른 하늘에서 《해빛으로 엮은 그네》가 내려 오기를 목마르게 바라 보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 소년은 지금 포로대우문제를 안고 북방의 수용소지구에 나가 있다. 문득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죽마고우를 먼곳에 보낸듯이 부쩍 그리워 지시였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처럼 그리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나쁠수도 있는가?)

그이께서는 편지를 넣은 주머니를 손으로 짚어보시였다. 그 뽀뽀한 편지봉투의 생소한 감촉이 또다시 무엇인가를 부인하려 들었다. 《해득해 보아야 합니다.》... 이 깨를직한 생각을 밀어 내면서 어디서부터인가 이 세상을 통채로 믿고 사랑할것만 같은 힘과 기백이 밀려 왔다. 그쪽으로 욕감을 좇아 기수를 돌리니 방금 달려 오신 길을 따라 저기 뿐만 눈발사이로 최고사령부가 전개된 산자락이 보인다. 거기 자신의 야전침대우에 채워 두고 온 아이의 가엾은 모양이 안겨 오시였다. 놀랍게도 힘은 그 가련한 아이한테서부터 밀려 오고 있었다.

위대한 힘, 영원한 생명이 잠자고 있는 그곳으로! 그이께서는 연방 박차를 가해 달리시였다.

3

림병선은 조국해방전쟁전부터 타고 다니던 자기의 회색승용차를 타고 돌아 왔다.

그는 수령님의 전화지시를 자의대로 포기한 일때문에 우선 내각의 동지들을 만나 사전에 동의를 구해 두고 싶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물끄러미 바라 보고만 있다. 누군가가 던지시 말을 던졌다.

《동무는 미제의 충실한 어용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어떤 관계요? 언제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소?》

서울에서부터 알고 있는 외무성의 박부상이였다.

그의 어조에는 적의가 비껴 있었었다.

림병선은 내각일군의 감각으로 대뜸 자기에게 어떤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깨달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가 세계적인 이 물리학자를 알게 된것은 베를린××종합대학시절이였다.

《사회적정의를 탐구하는 인간의 논리도 언제나 물리학적진실에 일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시 그의 상대성리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었다.

주체17(1928)년. 그는 몇해동안 살아 온 북베를린의 낡은 살림집 조그마한 세방에서 나와 아인슈타인교수의 집을 찾아 떠났다. 에나멜이 벗겨진 낡은 가죽가방속에는 교수에게 기증할 자기의 박사논문 《종교와 철학, 그 역사적의미》가 들어 있었다. 7년동안의 탐구와 사색이 이 한권의 책으로 응결된 것이였다.

감회가 깊어 졌다. 교수의 집을 처음 찾아 가던 일이 생각났다.

그날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새로운 물리학적원리를 론증하기 위하여 뉴턴과 칸트의 리론을 거들다가 청강생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걸어 치우라!》

《칸트는 게르만족이요.》

《제군, 중요한것은 그가 게르만족이라는것이 아니라 철학자라는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주가 요구됩니까?》

우리 게르만족은 지구만 가져도 됩니다.》

목소가 터지고 발뒤축으로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강당을 어지럽혔다. 파시즘의 물결을 타고 대두한 민족배타주의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던 시기였다.

림병선은 면담계시관을 보았다. 조국이 없는 이 노벨상수상자가 학생들에게 개별면담을 허락하고 있는 시간에 그의 집을 찾아 갔다. 그의 집에는 이미 와이즈만이라는 유대청년이 찾아 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은 망국노군요.》 서로 소개를 하고 나서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20여년망국노라면 우리는 2천년망국노지요.》

후에 유대인국가의 수반으로 될 운명을 지닌 이 청년은 비극적인 어조로 아인슈타인의 유대인적 감정을 자극하려고 애 썼다. 교수는 해탈된 표정으로 청년을 일축해 버렸다.

《당신이 말하는 유대국가나 유대인공동체같은것이 세워 진다고 해도 나는 일개 국가의 국민으로 되고 싶지 않소. 나는 오직 물리학에 속하는 자연의 아들로서 이를테면 <세계시민>으로 남아 있겠소.》

아인슈타인과의 학구적인 교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였다. 교수의 서재에서는 과학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철학, 종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폭 넓고 새로운 생각들이 샘솟았던것이다. ...

《축하합니다. 철학박사 립병선씨.》

교수는 전례없이 전실로 마주 나왔다. 그는 시들하니 웃으며 책을 꺼내 주었다.

《그런데 당신은 전혀 성공한 사람답지 않군, 꼭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비극적인 얼굴이요. 철학박사의 얼굴은 의례 그래야 하는가.》

교수는 정답게 빈정대었다.

《이걸 읽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책의 마지막대목을 들쳐 보았다.

《…

종교와 철학, 이것은 한마디로 감성과 리성의 두 의식분야에서 인류가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여 온 탐구와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는 아직도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나의 논문이 물음으로 끝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인간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저의 성공으로 밝혀진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나치스악대가 군악을 울리며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온 도시가 파쑈군악에 맞추어 하루를 시작한다.

《무서운 일이요. 저 검은 홍수가 거리를 메우는 저녁이면 나는 땅우에서 영영 사라져 가는 인류의 마지막 몇해를 보는듯한 느낌이 들군 하오.》

그는 도이칠란트를 떠나면서 아인슈타인과 헤어졌다.

《당신의 항구적인 연구과제는 역시 인간구원에 대한 사회학적탐구겠지요?》

나의 총적과제는 물질세계의 통일적인 마당을 해명하는것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인간구원의 길이 여기로부터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는 그때 이것을 머나먼 인생의 과제로 미루어 두고 당장은 조선어연구를 결심한 터였다. 그는 결코 아인슈타인처럼 민족을 초월한 《세계시민》으로 살아 갈수는 없다는것을 알았다. (신채호선생은 역사를 지키고 나는 조선말을 지키고… 이렇게 지켜 내는 민족의 넓이 두고두고 민족재생의 파열구를 내는 창끝이 되도록…)

그는 그저 웃었다.

《그것은 어차피 저의 필생의 연구과제로 남아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서로 다른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과제를 추구하게 된 셈이요. 그렇지 않소?》

그는 또다시 소년시절 하늘가에 엮어 둔 꿈! 《해빛으로 겪은 그네》를 생각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해마다 이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편지로 교환하곤 하였다.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리유로 하여 집과 재산을 몰수당한채 5만마르크의 현상금이 걸린 몸으로

도이칠란드에서 쫓겨 난 나로서는 그 시절에 사귀었던 선량하고 실력 있는 벗들과 더불어 우편이라는 문명의 복도를 통하여 우정과 사색을 나누는것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야흐로 나의 연구과제에 도달할것같은 예감이 듭니다. 물질세계의 통일적인 마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나의 추리가 여러 방면들에서 특히 원자연구분야에서 립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받은 마지막편지였다. 그후엔 어째서인지 편지를 보내어도 회답이 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감옥을 나온 이듬해 서울의 어느 한 신문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둔갑한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상대성리론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생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세계시민》으로 살면서 세계구원의 길을 찾겠다던 그가 어떻게 되어 미제국주의정책에 추종하는 핵심인물로 변졌는지... 그는 마음속으로 그와의 우정을 의절해 버렸다. 더구나 미제침략자들이 청소한 공화국에 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을 원자탄으로 멸망시키겠다고 공갈하고있는 지금에 와서 옛 우정은 적의와 증오로 바뀌어 버렸다....

그는 이러한 내막을 자초지종 설명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 도리가 없는만큼 당초에 의심을 품고 접어 들면 백번 말해도 소용 없는것이 다.

《우리는 인간구원의 길이라는 공동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도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아니였고 나도 공화국의 내각상이 아니였지요.》

박부상은 맞아 떨어 졌다는듯 득의만면했다.

《예, 그래서였군요. 공산주의운동을 외면한것은...

어떻습니까... 그날밤 내가 감기약을 얻으려 갔던것은 아니였지요?》

그는 이 사람이 서울때 일을 가지고 말한다는것을 알았다. 그렇다. 이 사람은 그 마가을밤에 봄가을의투깃을 세워 마스크한 얼굴을 감싸박고 소리없이 찾아 왔었다. 그 일을 까맣게 잊어 버렸던것이 놀라왔다.

《예... 나도 그날 부하린이나 프로쓰끼를 만났던것은 아니지요.》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튀어 나온것을 삼켰다. 같이 야비해 지고 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눈이 감졌다. 세상에는 꼴물을 나누어 마시면서도 목구멍에 가시가 걸리게 노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떨어지고 사회의 질이 나빠지며 민족의 기질이 흐려 지는것이다. 그는 이런 사람과 마주 서면 너무나 무능한 자신을 이전부터 느껴오고 있었다.

《나는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수령님께 사업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안달이 난 박부상은 등 뒤에 대고 찬물을 뿌렸다.

《무엇을 보고한단 말이요? 명령집행을 포기하고 돌아 온 사람이.》

그는 방을 나와 함박눈이 쏟아 지는 희끄름한 하늘을 당연히 바라 보았다. 이리다가 하늘이 몽땅 무너져 내리는게 아닐까?...

4

《목욕물을 덥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말고삐를 부관에게 넘겨 주시었다.

《작전실이 좀 넓지, 거기다 준비해 주오.》

그이께서는 군복상의를 벗고 면내의소매를 걷어 올리시면서 야전침대로 다가가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아픈 마음으로 굽어 보시었다. 어제밤 그리도 가슴 저리던 일이 다시금 떠 오르시었다.

...전선에서 돌아 오던 길에 돌리었던 그 농촌집 주인할머니는 어두운 목화기름등잔빛에 그이를 알아 보지 못하였다. 그저 《지나 가던 군대어른》으로 범상히 맞아 들이였다. 할머니는 로인처럼 얼굴이 주글주글한 아이한테 죽을 떠 먹이고 있었다. 아래목에서 가지런히 자고 있는 아이들 넷은 티울을 분간할수 없었다.

《다 굴러 다니던 애들이웬다. 전쟁통에 이것들이...》

손님을 대하느라 죽 떠 넣는것이 좀 떠지자 아이는 울었다. 운다는것이 소리도 눈물도 없이 입만 앙벌리고 있을뿐이었다.

《차에 과자가 좀 있지.》

그이께서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과자를 이끌로 씹어서 입에 넣어 주시었다.

《악귀, 악귀, 옛말에나 들어 왔더니 그 악귀같은 놈들이 사람들을 사파움에 가두었다가 쫓겨 가면서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지 않았갔소.

이게 하나 살아났는데 내 손에 들어 온지 1년이 되도록 자는 시간하구 먹는 시간 내놓구는 줄창 마른 울음만 읊네다래. 할미 얼굴만 쳐다보멘시리.》

《할머니,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 혼자 살기도 조련치 않으실텐데.》

《말 마소. 내사 왜정때 령감, 아들 다 떼우구 한뉘 죽은 귀신처럼 살다가 질긴 목숨덕택에 회한한 우리 세상을 살아봤시다.

술한 남정네들, 내인네들이 나라때매 싸우다가 죽다가 하는데 이 구신은 할 일도 죽을 구명도 없쇠다래. 세상이 날 잊어 버렸는가 보웬다. 그래 이것들이라두 살려서 미국놈 나쁜놈 다 없어진담에 김장군세상에 놓아나 주문 이 할미 한 있갔소?》

《...》

《허, 그게 어쩔 어른한테 편안스리 앉았시다래. 그 얼굴 좀 보슈. 아직 짐승이나 같은게 사람정을 아나부웬다.》

그이께서는 그애를 차마 떼어 놓고 울수가 없으시였다. 억지로 떼어 놓고 떠나셨던 길 끝내는 백리를 되돌아가 데려 오시고야 말았던것이다...

《자, 목욕을 하구 어데 부락해서 네 옷이랑 좀 마련해 보자꾸나.》

그이께서는 아이를 깨워 안으시였다.

부관이 물바게쓰를 들고 들어 와 커다란 피나무 함지에 쏟아 부었다. 흰 김이 활활 피어 올랐다.

뒤따라 김천이 들어 왔다. 수령님께서는 그가 손을 불이려 드는것을 만류하시였다.

《장군님, 림병선동무가 돌아왔습니다.》

《뭐요?》

크리스마스가 아직 하루이를 남아있지 않는가?

김천은 마치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듯이 민망해하며 말하였다.

《그나름의 리유가 있겠지만 차라리 잘된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될것이고 문제는 그 편지말입니다.

방금 외무성 박부상동무의 말이 림병선동무가 오래전부터 아인슈타인과 함께 공산주의사상 밖에서 그 무슨 <인간구원의 길>이라는것을 공동연구과제로 연구해 왔다는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끝내 그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단 말인가?》

견잡을수없이 벌어진 일에 그이께서는 마음이 격해지시였다.

아이를 한팔에 안으신채로 전화를 드시였다.

그의 방에 사람이 없는 모양 전화를 받지 않는다. 속이 타시였다.

《장군님!》

김천은 약간 갑자르며 수령님을 우려했다.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믿을만한 근거를 세워야...》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였다.

《김천동무, 우리가 당초에 공산주의자 림병선을 초청했던것은 아니지 않소.

지금도 나는 그를 공산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말을 지켜 낸 애국자로서, 인간으로서 믿는것이요.》

《...》

《물론 김천동무의 말이 옳소. 믿을만한 근거를 세워야지.》

그러나 《만일》의 여지없는 근거는 세울수 없다. 만일 림병선에게 온 편지를 누군가가 암호편지로 가정한다면 그가 이것을 법정부인할 방법이 있는가? 없다! 반대로 그런 가정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없다! 그러니 남는것은 부인도 증명도 할수 없는 의심뿐이다. 이런 의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죽여 버리고 《중오》를 자래운다.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이 마주 섰을 때 깨끗한 웃음을 머금지 못하고... 이것이 원자탄보다 그 위험이 덜

하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아이를 더 힘껏 껴안으시면서 그 어떤 촉박감에 쫓겨 하시던 생각을 뛰어 넘으시었다.

《나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놈들이 원자탄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롱하고 있는 이때 놈들에게 이 무기를 제공한 그를 인간적으로 환영할수 없는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을 창시하여 인류문명에 공헌한 그의 업적이 크지 미국놈들에게 원자탄을 제공한 그의 실수가 더 크겠습니까.

나는 과학자의 선량성을 믿습니다.

노벨상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죄 아닌 죄로 파쑈도이칠란드로부터 죽음을 선고 받은 그가 미국에 가서 원자탄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 거대한 악의 무리를 징벌하려는 정의감으로부터 출발하였을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약소민족인민들의 정의의 투쟁과 자유로운 행복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정책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희롱당한 수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도 미국놈들을 이겨야 합니다.》

수령님의 음성에 방안이 드릉드릉 진동했다. 김천은 숨얼른 감정에 휩싸였다. 10여년 수령님결에서 사업을 보좌해 오고 있던간 아직도 그 심원한 세계에 가닿지 못하여 마음쓰게 헤드리는것이 죄송스러웠다.

《장군님, 제가 림병선동무를 찾아 보내겠습니다.》

수령님께서 그의 뒤모습을 바라시면서 졸전의 생각으로 돌아 오시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어데서부터 흘러 나오는지 마음속 흐름을 따라 곱곰히 그 시원을 찾아 보자. 이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진보적인류의 승리를 위한 리념문제이다.)

《자, 옷을 벗구...》

그이께서는 아이를 물함지에 들여 앉히시었다.

《아, 오셨습니까?》

림병선이 들어 섰다.

수령님께서 언뜻 그의 얼굴을 살피시었다.

《거긴 더 추울텐데 몸은 일없습니까?》

한동안 못 보신 정도 있지만 마음속 피로움을 지그시 누르고 언제나와 같이 경건한 몸가짐과 성실한 표정으로 인사를 올리는 그의 모습에서 애뜻한 정을 느끼시었다.

《좀 맞잡아 주십시오.》

수령님께서 방금 천리길을 달려 온 나이 많은 분에게 험한 일을 부탁하게 되는것이 문득 놀라우

시였다. 하지만 림병선의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어리는것을 보시고 그가 이것을 각별한 정으로 받아들이는것이 고마우시었다.

《산에서 싸울 때 정숙동무가 외우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기들은 목욕할 때마다 손가락 한마디만큼씩 큰답니다> 하던게...》

림병선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수령님도 자식을 두신 아버지인것이다.)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북방으로 떠날 때도 그는 이런 생각으로 수령님께 말씀드렸었다.

《제가 설밑에 돌아 오게 되겠는데 그때 자제분들을 모셔오면 좋겠습니다. 설을 끼었는데 며칠동안 아버지 곁에 와서 그간의 그리움도 끄고...》

수령님께서 어린 자제분들이 가 있는 먼 북방하늘가를 바라 보시었다.

《고맙습니다.

애들 생각을 하면 불쌍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원데다가 전쟁까지 겹쳐 겪느라니... 아, 아이들만은 불행을 모르고 살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우리 애들만 아버지한테 설 쇠러 간다고 차에 태워 떠나 오면 학원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설뚱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대신 담임교양원한테 편지나 한자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애들을 절대로 따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애들에 대해서는 교양원한테 편지로 따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래, 수령님도 가정사에 들어 가서는 그저 아버지이신것이다 하고 생각한 그였다. 그러나 실은 어땠던가...

《이제는 물을 갈자.》

아이는 앙상한 뼈우에서 살가죽이 제멋대로 밀려나 목욕을 시키기가 여간 말쑥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초벌 씻은 아이를 물함지에서 건져 드시었다. 《빨리, 아이가 감기 걸리겠소.》

그는 부관과 맞잡아 더러워진 물을 버리고 서둘러 새물을 부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하는일을 잊으신듯 그냥 아이를 띄여들고 계시었다. 가는 팔다리를 기운없이 버둥거리는 모양에 가슴저리신것이였다. 이내 자신을 다잡으신 수령님께서 아이 엉치를 받쳐 든 손등으로 물온도를 가늠해 보시며 슬슬 얼려 잠그시었다.

《자... 좋지... 그래, 이제 크나 보자, 어...》

수령님께서 웃으시려는데 별안간 눈물이 스며나오시었다. 짐짓 튕겨 난 물방울을 훔치시는척, 어깨에 걸친 수건에 대고 눈굽을 찍으시었다. 하지만 일단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눈물을 어찌는수 없으시었다. 하는수없이 함지에서 물러나 작전대 저쪽으로 천천히 돌아 가시면서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시었다. 이윽하여 슬픔을 누르고 벽에 붙은 대형

조선지도를 마주하여 한동안 서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비스듬히 몸을 돌려 작전대너머로 아이를 건너다 보시었다.

목욕시킨 아이를 부관에게 맡기신 수령님께서서는 군복상의를 입으시면서 나직이 말씀을 전네시었다.

《어떻게들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원아들이.》

림병선은 수령님과 함께 아이를 목욕시키는 사이에 가슴속에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한것을 느끼면서 학원들의 후방공급정형과 원아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렸다. 그러면서도 포로위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기를 은근히 바랬다.

《그리고 편지는 전달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없이 조용히 그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림병선은 목이 메어 왔다. 거기 장자산골짜기 학원마당에서 담임교양원과 함께 읽은 수령님의 편지구절이 울려 왔기때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소한 특전이나 특혜도 허용하지 말아 줄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그애들이 전쟁의 어려움과 불행을 함께 겪으면서 인민들속에서 인민의 아들딸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

수령님께서서는 일단 사적인 이야기는 밀어 놓으시는 어조로 물으시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돌아 왔습니까?》

어차피 변명해야 할 문제였다.

림병선은 말없이 서류가방을 열고 포로수용소에 서 가져 온 서방의 신문 몇장을 꺼냈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에 실린 영국탐방기자의 조선탐방기를 읽어 올렸다.

《…처음으로 나의 관심을 끈것은 수용소에 울타리가 없는것이였다. 숙소배치가 까다로웠다.

미국백인들은 미국흑인들과 절대로 함께 자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면전에서 그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한 흑인이 백인전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기때문이다.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을 멸시하고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을 깔보려고 한다. 음식 문제는 더 까다로운 문제였다. 양키들을 위해 밀가루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슬람교도들때문에 소고기를 조리하는 주방을 따로 차리었다.

생활은 매우 자유로웠다. 그들이 근심하는것은 오직 한가지 즉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공산주의와 친해 졌다고 누군가가 자기를 고발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모든 유엔군포로수용소들에 <적 포로들에게 조선인민군전투원공급정형을 실시할데 대하여>라는 이 나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어 있는것이다.…》

탐방기자의 론조에는 저들의 립장에서 느낀 강한 만족이 풍기고 있었다. 저주할놈들! 그래 만족할테

지… 그런데 네놈들은…

그는 다른 신문 하나를 골라 들었다.

《거제도. 광신적인 폭동자들,

폭동은 9월 9일 아침에 시작되였다. F 구역의 포로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공화국선포의 노래> 등 금지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증원대가 파견되였다. 밀려대좌가 그들을 지휘하였다.

폭동자들이 팔을 결고 전진하려는 순간에 사격명령하였다고 대좌는 말했다. 광신적인 폭동자들은 쓰러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자기 공화국의 날에 자기들의 장군에 대한 노래를 소리내어 부르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내뿜었다.…》

그는 이 신문을 수령님께 보여 드리고 싶었다.

저놈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것처럼 굴속에 몰아넣고 휘발유로 태워 죽이지 못할망정, 저놈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것처럼 기관총으로 쏘아죽이지는 못할지언정 어찌하여 저놈들이 울타리 없는 곳에서 배불리 처먹고 노래 부르며 자기네 탐방기자에게 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이게 하는가. 이런 놈들에게 꼭 위문까지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런 생각이 헤아릴길 없는 그이의 도량에 어긋나는것이라는 느낌때문에 심한 심리적압박속에서 묵묵히 수령님의 말씀을 기다리었다. 이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고 계시는 수령님이 아니신가.

병선은 수령님의 존안에서 날카로운 섬광이 번뜩이는것을 보았다. 그 매혹적인 보조개마저도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싸워야 합니다. 놈들이 야수적이라고 해서 우리도 야수로 될수는 없습니다. 력사에 야만성이 인간성을 이긴적이 있습니까?》

《…》

《때로 개별적인 싸움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야만의 승리가 력사를 통하여 공고화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인민의 의지를 넘두에 둔것입니다.》

수령님께서 너무나 거창한 사상을 너무나 조용한 음성으로 레사롭게 말씀하시기때문에 그는 한동안 얼터름해 졌다. 미처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전에 수령님께서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끝내시는 모양으로 어조를 바꾸시었다.

《참, 나한테도 선생에게 전해드릴 편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서 왔는데 내가 말아 두었습니다.》

얼결에 편지를 받아 드는 순간 그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 났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박부상의 말마디가 다시금 가슴을 쿵 저미였

다. 그 저런 아픔이 편지봉투에 남아 있는 수령님의 따뜻한 체온에 스르시 녹아 버렸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편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그와 의절해 버렸으니 구태여...》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인간구원의 길을 인생연구과제로 내세운 사람이 나쁘게 변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정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병선은 마치 옛 스승앞에서 소년시절의 우정을 되찾은 심정이었다.

《그러하면 우리의 우정을 찾아 주신 은인앞에서 함께 편지를 읽고 싶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위인의 순진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렇다면... 실은 나도 흥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를 뜯었다. 발신인은 베를린시절의 벗에게 도이칠란트어로 편지를 써 보내었다.

...나는 마침내 이 세상에서 나의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내가 인생의 총적 연구과제로 간주하였던 물질세계의 통일적인 마당은 바로 열이었습니다. 모든 물질의 신적인 결합은 열을 통일적인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원은 열이다! 이것이 나의 해명입니다. 이것은 어느날 아침에 문득 떠오른 생각도 아니며 오늘 비로소 발견한것도 아닙니다. 모든 물질의 내부에는 그 질량에 빛속도를 곱한것의 두제곱에 해당하는 열이 잠재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나는 오래전에 $MC^2=E$ 라는 공식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세계도처에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물리학자들의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원자폭발이라는 실체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원자폭발이야말로 나의 물리학적진리를 반영한 인간의 첫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찌기 당신이 자기의 학술적성공으로 하여 부각했던것보다 더 절망적인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도이칠란트에서 더는 살수 없게 된 나는 세계를 향하여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법앞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며 정치적인 자유와 호상존중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고싶다>는 희망을 표시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시민》으로 살고싶은 나의 희망을 아무런 반대조건 없이 받아 들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나는 응당 이 《선량》하고 《리성》적인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진다면 아무런 도덕적, 리성적 제약도 없이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날뛰는 히틀러의 히스레리집단을 소멸하고 인류를 구원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MC^2=E$ 원리에 기초한 초강력폭탄제작의 가능성을 력설한 편지를 미국대통령에게 보냈던것입니다.

《각하... 만일 새형의 일개 핵탄을 소형배에 실어서 파쑈도이칠란트의 항구에 들어 보내 터뜨린다면

... 히틀러의 멸망은 용이한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첫 핵폭탄은 소기의 목표였던 도이칠란트가 이미 패망한 이후인 주체34(1945)년 6월 16일에 최초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무서운 폭발이었습니다.

원자폭탄제작에 참가하였던 과학자들은 련명으로 그 사용을 금지할것을 미국대통령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탄을 가진 미국은 벌써 횡포해졌습니다. 12g의 우라늄을 장진한 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순식간에 30만의 목숨을...

세레마크호수가의 별장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들은 나는 무서운 전율로 간이 파괴되었습니다. 간수술을 받고 나와 회복기를 보내고 있는동안에 쏘련에서 핵폭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나의 심장을 재차 타격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 나라마다 원자폭탄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 지고 조만간 지구에서 인류가 자체멸망할것이라는 예감때문에였습니다. 불행은 벌써 당신의 나라 조선에서 시작되는듯 합니다. 사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원자폭탄사용을 결정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내가 일찌기 생각하였던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배반으로 하여 나는 줄지에 인류의 원쑤로, 희비극적인 외토리로 되버렸습니다. 이런 꼴이 되고 보니 당신이 말하던 《거인》이 이 무신론자의 뱃을 건잡을수 없이 유혹합니다. 신발도 찾아 신지 못한채 로대에 나와 심혼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이런 목소리가 울려 옵니다.

《거인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생을 준다면 선량한 마음으로 온 생애를 바쳐 탐구한 진리가 인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행성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즈음 그 메아리가 우리 행성의 어느 한 곳에서 울려 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라디오의 보도 기사들속에서 짹짹 문을 열어 보이는 당신의 나라, 분명 그곳으로부터 구원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핵폭탄에 의한 멸망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나라에서 적 포로들에게 자기나라 병사들과 꼭 같은 대우를 실시하는것은 세계전쟁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로 하여 조선이라는 말은 벌써 세계에서 정의와 인간의 승리를 표현하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자기의 도덕적패배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나의 $MC^2=E$ 공식으로도 설명할수 없는 신비로운 열원을 가지고 있는 당신네 나라에서부터 세계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는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느낌은 내가 뉴턴의 오유로부터 물질세계의 새로운 모습을 예상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뚜렷합니다....

그동안 원자폭탄제작에 참가한 우리 《맨하탄성원》들은 미국의 리익과 히틀러의 멸망을 위하여 외부와의 일체 서신거래를 중지당했습니다. 그리하

여 당신과의 서신교환을 일방적으로 끊어 버린 데 대하여 때늦은 용서를 구합니다. 더불어 하나의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우리 《맨하탄성원》의 발기에 따라 머지 않은 기간에 세계원수폭반대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원자폭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신네 나라의 목소리는 세계에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줄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우리들사이에 오래동안 추구해 온 공동의 연구과제를 세계공동의 연구과제로 연장할수 있는 훌륭한 공간으로 될것입니다.

이 불행한 세계에서 당신과 나의 운수가 그리 나쁘지 않다면 바야흐로 히로시마에서의 상봉을 기대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수령님께서서는 확신어린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작전대를 에돌아 커다란 지구의결으로 다가가시였다. 《지구》를 슬슬 돌리시였다.

《선생의 그 연구과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그이께서 문득 물으시였다.

《<인간구원의 길>말입니다.》

그는 송구스러웠다.

《언제 그런걸 생각하게 됩니까. 더구나 수령님결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어쩐지...》

《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문재인 동시에 민족문제이고 매 인간의 운명문제입니다.

세계의 호상련관이 극도로 깊어 진 현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사색적인 얼굴로 동감을 표시하였다.

《수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놈들의 원자탄 공갈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한동안 잊고 살았던 소년시절의 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필생의 연구과제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던가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전쟁을 하고 있는때에 나라의 상이라는 사람이 동화적인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무엇을 용서하랴, 그래서 인간이다.

전화종이 울리였다. ××전선사령관의 목소리가 지하전화선을 타고 울려 왔다.

《적들이 전선서부로 새로운 기갑무력을 들이 밀고 있습니다.》

전쟁이다!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매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해하여 주고 싶지만 때양 그렇게는 안되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송수화기에서 울려 나오는 지명을 찾아 전선지도우에 몸을 기울이시였다. 색연필로 두개의 지점에 동그라미를 그리시였다. 음흉한 놈들... 앞에서는 정전담판을 제기하고 약속을 청해오면서 뒤에서는 원자탄을 휘둘러 닳을 빼려 들더니

결국 기회를 노려 열구리를 물고 늘어 지자는 흉심이군. 수령님께서서는 동그라미우에 연필을 던져 놓고 몸을 세우시였다. 그리고 《남쪽》의 《서울》로 향한 연필끝에 시선을 박으시였다. 세상에는 사람처럼 생긴 승냥이들이 있다. 이것들과는 사람의 마음으로 대할수 없고 사람의 말로 통할수 없다. 무자비한 타격만이 이놈들과 통한다.

《알겠소. 놈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십시오.》

수령님께서서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시였다. 놈들이 집결하는 두개의 돌출부로부터 불의에 돌파구를 내어 서울로 진격하는 한편 터진 폭을 막으려고 적들이 전선서부로 무력을 기동시킬 때 공백이 조성된 전선중부와 동부에서 일제히 공격작전을 벌려 지금 고착된 전선을 37° 선이남으로 밀고 내려 가는 하나의 전쟁이 그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졌던것이다.

《계속, 끌어 들이라지. 원자탄이라도 말이요.

놈들이 조만간 우리한테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게 될거요.》

송수화기를 놓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자신의 말쑥에 스스로 놀라시였다. 분명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배짱이 솟구치었는데 송수화기를 놓으시고나니 그게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아무리 생각해 보고 둘러 보아야 원자탄보다 위력한 그 어떤 새로운 무기도 없다.

눈앞에서는 부관이 말없이 아이를 목욕시킨 마루바닥에 걸레를 치고 림병선은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접어 든채 경건히 서 있다.

(분명 무엇인가 있는데... 그 실체는?...)

수령님께서서는 이내 림병선에게로 주의를 돌리시였다.

《하루 쉬고 힘든대로 다시 가 주십시오.

적 포로들과 담화도 해보고... 앞으로 참가하게 될 히로시마회의를 위해서도 이것은 선생에게 좋은 기회로 될것입니다.》

《제가 유치한 소견으로 수령님의 뜻을 어겼으니... 지금 곧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저를 정말 히로시마에 보내려고 합니까?》

《아인슈타인의 개별초청이 아니라도 선생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는 망설이였다.

《수령님, 저는 더이상 동지들의 의심을 살수 있는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시였다. 하지만 그때문에 자기의 고결한 마음그대로 당당한 립장을 세우지 못하는것이 매우 언짢으시였다.

《나는 선생의 진실한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림병선은 목이 메여 그이를 우려했다.

이런분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것은!
내 일생에 이런분을 곁에 모신것은!

5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림병선의 회색승용차가 눈을 맞으며 어슴새벽에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려고 발동소리를 고르롭게 울리고 있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방금 목욕시킨 아이를 안으시고 김천과 함께 림병선을 내려려 몸소 나오시였다. 병선은 수령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아이를 보느라니 느닷없이 멀리 북방의 눈속에 서있는 그이의 어린신 자체분들 모습이 안겨 와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눈 덮인 산기슭 박우물가에서 어린신 아드님께서는 아장이는 너동생을 얼음우에 앉히고 세수를 시키고 계셨다. 그 애절한 모습 먼발치 바라만 보고 떠나와야 했으니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리다.

수령님께서는 처져 내리는 아이를 가슴우로 높이 추켜 안으시면서 작별악수를 청하시였다. 그이의 손을 잡는 순간 병선은 머리가 핑 돌았다.

어린 시절의 꿈! 《해빛으로 엮은 그네》가 이 땅우에 내린것을 느꼈다. 그는 태평양너머 아인슈타인을 향해 걱정을 더쳤다.

...나는 마침내 나의 필생의 연구과제를 완성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거인을 봅니다. 거인의 환한 이마우에 머리칼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거인의 눈에서는 밝은 해빛이 흘러 나옵니다.

거인의 볼에 패인 아름다운 볼우물속에서는 온 세상이 퍼 마셔도 마르지 않을 사랑의 미소가 샘솟고 있습니다.

거인은 수수한 군복을 입고 가장 평범한 말로 하늘과 땅사이에 통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거인은 인민속에 있으면서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자기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 $MC^2=E$ 》를 초월하는 그 신비한 열은 바로 여기서부터 분출하는것입니다.

거인은 그 열로써 세계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따뜻한 믿음과 사랑의 피가 흐르게 합니다.

거인은 지금 자기를 낳은 위대한 생명, 인민을 머리우에 추켜 안고 흔들리지 않는 땅우에 거연히 서서 천세만년을 꿰뚫는 료원한 눈빛으로 세계를 굽어 봅니다....

자동차는 멀리 눈발속으로 사라져 갔다.

수령님께서는 뒤에 지켜 서 있는 김천에게 몸을 돌리지 않으신채로 느닷없이 중대한 결심을 이야기하시였다.

《믿읍시다. 믿고 정을 주면 천만사람이 따라 서서 승리의 길을 열것이고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천만이 홀어 지고 한두사람이 남을것입니다.》

××전선사령관에게 전화로 말씀하실 때 후위로 삼고 배짱을 세우셨던 그 《무기》가 지금 명백해 지시였다.

《나는 한사람한사람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으로부터 무조건 믿자는것입니다. 이것이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국놈들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만에 하나 배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뜻과 믿음과 정으로 결합된 거대한 생명, 인민대중은 그러한 배반을 그 하나의 불행으로 내던져버리고 승리의 길, 자기의 력사를 전진시켜 갈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문득 평평 내리는 눈송이마다에 이 세상에 살고 죽은 매 인간의 낮이 깃들어있는듯 싶으시였다. 이 눈은 아마도 사람과 사람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행복하고 싶은 인류의 념원이 서린 하늘에서부터 장장 수천년을 거쳐서 내려오는것이리라....

수령님께서는 땅과 하늘사이로 천천히 손을 내들어 그 눈을 받으시였다. 하얀 눈송이들은 고난에 찬 태고의 방랑을 끝 마치듯이 그이의 손우에 숨숨이 내려 앉았다. 모자를 쓰지 않으신 그이의 머리우에도... 외투를 입지 않으신 그이의 어깨우에도...

눈송이들은 내려 앉았다.

고귀한 혁명유산

오늘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피 주신 락원의 봉화따라 조선로동당 창건 55돐은 맞는 뜻 깊은 세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 진격하고 있다.

이 총 진격대오의 선두에는 전화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충실성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온 락원로동계급이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을 찾으시였던 지난 1월 27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관과 현지지도사적비,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6월 주물직장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신 력사적인 장소인 민주선전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 보신 후 작업현장에서 락원의 10명 당원들중의 세사람들인 호천학, 황순화, 장흥준동무들과 뜨겁게 상봉하시였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며 거룩진 로당원들의 손을 놓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오시다니...》라고 인사를 올리며 눈물을 삼키는 로당원들...

참으로 가슴 뜨거운 상봉이였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도 흘러 어버이수령님께서 락원을 찾으시였던 전화의 그 시절에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였던 10명 당원들이 이제는 70, 80대의 고령이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난 수십년간 한시도 잊은적 없으시였던 락원의 귀중한 10명 당원들이 흐르는 세월속에 한명, 두명 떠나가 이제는 그전날처럼 다들 만나볼 수 없게 되신것이 가슴 아프신듯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을 따라 50여년 력사의 풍파를 헤쳐 온 영웅적삶의 흔적이 력력한 로당원들의 역센 모습과 성성한 백발을 더듬으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젊은 동무들은 없습니까? 이제는 나이들이 많은데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여 모두 100살을 넘겨 살아야 합니다.》

걱정의 파도가 또다시 세차게 일어 번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마움에 목 메여 눈물짓는 로당원들을 진정시키시려는듯 여러분들이 고령

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장에 나와서 젊은 세대를 고무해 주고 이끌어 주고 있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로당원들의 곁에 나란히 서 있는 신포향주철직장 류재명직장장을 비롯한 끝끝한 젊은 로동자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공장의 한 일군이 《이 동무들이 10명 당원들의 자식들입니다. 부모들의 뒤를 이어 공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림름하고 미더운 모습에서 신포향영웅을 비롯한 전화의 날 당원들의 모습을 다시 보시는듯 감회를 금치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생을 값있게 살았을뿐아니라 자식들도 훌륭히 키웠습니다. 락원의 대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락원에서 충실성의 대가 역세대에 이어지고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께 그 아들입니다.》

혁명의 한길에 나란히 선 로세대와 새 세대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계급은 자기의 대를 이을줄 아는 훌륭한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 다진 그날의 맹세를 변함 없이 지키며 락원의 정신과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있는 이곳 로동계급이야말로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은 락원의 로세대가 간직하고 있는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한 높은 평가였으며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충성의 한모습을 흐리지 않는 조선로동계급의 량심과 의리에 대한 열렬한 레찬이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더없이 소중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과 수령을 충성을 다하여 옹호보위하고 높이 받드는 락원의 정신, 락원의 전통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피 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맨 주먹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빈터우에서 양수기와 기중기, 굴착기를 만들어 낸 그날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서 자체의 힘으로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시대의 창조물들을 안아 올린 락원의 충실성의 전통은 이곳 로당원세대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하여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고결한 사상정신적채부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였

다.

하기에 락원의 로당원들은 자식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터를 지켜 가는것을 아들딸들로부터 받는 최대의 공대와 미덕으로 여기면서 준엄한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먹고 살아 갈 걱정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락원의 정신, 충실성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 줄 일념으로 가슴을 불 태웠다.

락원의 새 세대들은 또한 부모들의 넋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투쟁속에서 자기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며 선대들처럼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충성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락원의 영원한 충실성의 역사를 읽으시였고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의 변함없는 한모습을 감명 깊게 보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궁지와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가며 꽃 피우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가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형성되고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되고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신념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조선혁명이 마련한 재부중의 재부이며 대를 이어 가며 물려 줄 혁명의 고귀한 유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하시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며 조선혁명은 반드시 충성의 역사를 온 세상에 떨치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힘 있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더욱 소중히 안아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의 대가 바뀌고 시련이 닥쳐 와도 변심을 모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순결해 지는 그것을 물려 주고 물려 받으며 이 땅에서 혁명의 대가 역세게 이어 지고 주체혁명위업이 힘 있게 전진하고있다.

그렇다. 선대가 후대에게 물려 주는것은 수없이 많아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처럼 소중한것은 없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력사가 낳은 고귀한 혁명유산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며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튼튼히 담보해줄것이다.

본사기자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최창만

시작은 어디고
네 끝은 어드메냐
가없이 한껏 들린 하늘아래
다문다문 피여 웃는 감자꽃
별 가득 깔렸구나

꽃가루 뒤집어 쓴 벌 나비
꽃속에 파 묻혀 놀고
훈풍에 실려 오는 향기에
나도야 취해선가
차마 발걸음 옮길수 없어라

둘러 보면
백두의 설경 에 펼쳐 놓은듯
설레이는 꽃바다 꽃물결
눈이 부시도록 피여 설레이는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어드메냐 우리 장군님
해지는 저물녘까지 걸고 걸으시며
감자농사법 자세히 깨우쳐 주시던
못 잊을 그 포전머리는

아버이장군님 다녀 가신 영광의 땅은
오늘도 은혜로운 그 사랑에 떠 실려
가 없이 아름답게 펼쳐 졌는가
아,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인민의 기쁨이어

활짝 피여라
우리 장군님 가꾸시는
강성대국의 세월속에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우리의 기쁨속에 피여라
온 나라 대지우에 영원한 행복의 꽃으로

영원한 태양의 노래

김일수

4월은 무궁한 노래의 원천이며 시의 세계이다.

얼마나 많은 시가들이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올라 누리를 밝힌 조선의 4월, 인류의 봄명절에 다함없는 송축과 레찬의 열정을 한껏 터치였는가.

노래도 많은 이 땅에 봄노래도 많지만 만민의 가슴에 자주의 봄, 행복의 봄을 안아 온 위대한 태양에 대한 칭송의 송가, 4월의 봄을 노래하는 시대의 찬가야말로 시가운데 시, 봄노래속의 봄노래 되어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우리 시가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이후 4월의 노래는 그 사상감정에 있어서 주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사상감정을 반영하는데로 지향하면서 태양절의 제정과 더불어 태양민족의 역사를 더욱 빛내이는 뜻 깊은 날을 노래하는 영원한 태양찬가, 영생찬가로서의 특징과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의 시대는 수령님의 영생을 바라는 노래, 태양절이 빛나는 4월을 더 강렬하고 새로운 체험으로 노래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2000년의 봄언덕에서 빛나는 태양절에 바쳐진 시목음 《4월의 봄은 영원하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답을 주려는 시인들의 강렬한 사상정신적지향과 새로운 형상적탐구의 결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4월의 봄은 영원하리라는 하나의 주제밑에 엮여진 이 시목음에는 《나의 노래》(김영택), 《그대들은 왔다》(장원준), 《봄날의 생각》(황성하), 《꽃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김석주), 《이 밤은 가지 않으리》(김은숙), 《평양의 4월》(홍현양) 등 6편의 시가 들어있다.

4월의 봄명절을 주제로 하는 기념일시창작에서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시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4월의 태양절을 노래하는 시형상,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사상감정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

의 감정과 밀착시켜 장군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노래하는 서정세계로 펼치고 있는것이다.

이 시들에서 노래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후 여섯번째 4월을 맞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은 위대한 영생에 대한 체험세계와 매여 놓고 생각할수없다.

내 심장의 노래는

백두광야의 그 자욱자욱을 삼가 더듬고

눈보라 치는 천고밀림에도 울려 가는 노래

이 땅우에 사회주의봄을 꽃 피우신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못 잊는 노래

-시 《나의 노래》-

봄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쌓으신 업적을 노래하고 사회주의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헌신과 로고의 한평생을 격찬하는 시의 세계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칭송의 열정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 주고 있다. 그 커다란 감화력은 세월이 흘러도 태양민족의 4월은 인민의 마음속에 가지 않으며 무수한 영생송가를 낳게 하는 영원한 노래의 원천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있다.

4월의 봄축전무대로 달려 온 여러 나라 예술인들을 두고 시세계를 펼친 시 《그대들은 왔다》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진리를 감명깊게 시화하고있다.

여기서 《세상에 춤노래 펼칠 무대는 많아도》, 《한번을 불러도 한생토록 못 잊을 노래》, 《부르고싶은 진리의 노래가 이 땅에 있어》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고 평양으로 달려 온 친선의 사절들에 대한 시적형상은 바로 인류의 영원한 자주의 봄을 꽃피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속에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것을 깊이 있게 일반화하고 있는것이다.

이 두편의 시들뿐만아니라 《평양의 4월》을 비롯한 다른 시들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격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위대한 영생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빛내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감정과 결부된 서정적화폭으로 펼치고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수령님께서 영생 하시며 장군님께서 계시어 이 땅우에 태양절이 빛나고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른다는 바로 이것은 우리 시대의 본질이고 우리 인민의 생활에 혈액처럼 관통하는 기본사상감정, 숭고한 시대정신이다.

태양절을 계기로 하고 있는 이 시들에서는 시형상의 전반흐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는데 기본초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4월의 봄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성의 세계에 대한 칭송의 감정과 밀착된 서정으로 되게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는 시세계가 그대로 선군령도의 전선길에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내여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과 격찬의 서정으로 충만된 시세계, 여기에 이 땅우에 영원한 태양절의 시대적의의에 대한 서정의 새로운 뜻이 있으며 그 사상정서적지향과 감정의 흐름새에 있어서 태양절을 노래한 이전의 시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영생을 노래하는 서정적 화폭마다에 충만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칭송의 열정이 선군령도의 거대한 의미와 불멸의 의의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사색과 체험, 감정의 론리우에 불 타게 됨으로써 이 시들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노래, 태양절찬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끝없이 이어 진다는 심오한 철학적해명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들은 충실한 후계수령에 의해서만 수령영생위업이 실현된다는 진리를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고 숭고한 공산주의적도덕의리관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동깊이 보여주고 있다.

시목음 《4월의 봄은 영원하리》가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는 시대정서, 승리의 전선길에서 4월의 봄을 빛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은 매 시들의 서정적화폭에 즐기차게 관통되어 있으며 또한 매 시마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활감정속에 굴절되고 있다.

태양절을 맞이한 서정적주인공-시인들의 가슴을 뜨거운 격정에 젖게 한것은 무엇인가. 태양절봄축전의 나날 《온 세상 만민이 부르는 노래의 바다에 /하나의 물방울과도 같은 나의 작은 목소리도 합치고 싶》은 (시 《나의 노래》) 끓여 솟는 시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었으며 어디에서 분화구를 찾았는가.

계절이 안아 온 4월이 아니여라
전선길에서 꽃 퍼 난 이 봄날
-시 《봄날의 생각》-

태양민족의 4월을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심장은 이 봄날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대한 정서적체험

속에 마침내 뜨거운 용암마냥 분출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수령영생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체험과정에 시인들은 이 땅우에 꽃으로, 노래로 대성황을 이룬 태양절봄축전을 두고 가슴 설레이는 정서적충동을 받아 안았으며 그로부터 4월의 노래가 어떻게 흘러야 하는가 하는 감정의 흐름새도 확고히 파악하게 된 것이다.

칭송과 흠모의 노래를 터치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사상정서적충격은 바로 이 하늘아래 태양절을 펼쳐 주시고 멀고 험한 전선길 자욱자욱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위인적풍모에 대한 절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인들이 심장과 심장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쳐 부르는 4월의 노래, 태양절찬가는 곧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노래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로 되는것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4월에 드리는 노래는 그대로 4월의 봄을 영원히 빛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찬가,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격찬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상정서적지향은 매 시들의 주장과 열정, 서정을 한곳으로 굽이 치게 한 위력한 형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시 《나의 노래》에서 《수령님의 위업을/ 만대에 이어 가시는/ 우리 장군님 걸음걸음에》 어려 있을 풍상의 로고를 헤아리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 세계에 바로 감격의 노래, 격정의 노래를 터치지 않을수 없는 사연이 뜨겁게 새겨져 있다. 우리 인민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적주정과 열정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에 대한 민족적공지와 환희로 넘치는 심오한 사상감정의 터전우에서 터쳐 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시형상은 사람들을 무한히 공감시키는 정서적힘을 낳고 있는것이다.

어느 시를 보나 전선길에서 4월의 봄을 빛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감정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것이니 시 《그대들은 왔다》, 《이 밤은 가지 않으리》는 봄축전무대를 보다 직접적인 시적정황, 계기로 하여 4월의 시대적화폭과 그에 대한 주정토로를 결합시켜 서정을 펴 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 《봄날의 생각》, 《꽃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에서 흠모와 칭송의 감정은 목메이는 감사와 고마움의 정,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와 밀착된 서정세계를 이루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겨울에 따뜻한 봄을 펼쳐여》 준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은 은혜로움》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이 봄날도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실 장군님께서도 달리는 그리움... 이렇게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생활감정의 전개, 시적계기의 포착과 시상의 심화는 영원한 4월의 봄에 대한 사상정서적주

장을 강렬한 서정으로 터질수 있는 믿음직한 생활 바탕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다함 없는 감사와 고마움, 그리움, 흠모와 신뢰의 정에서 시작되고 그 감정으로 물결치면서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빛내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한 걱정으로 충만된 서정은 수령영생위업은 선군 정치의 위대한 시대와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폭 넓은 사상감정의 일반화를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만경대초가집에서 시작되어
승리의 전선길에서 꽃 피는 4월
오늘도 먼먼 미래에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거니

...

우리 장군님 위대한 령도로
위대한 영생은 빛나더라
그 영생은 영원한 노래를 낳더라

이러한 뜻 깊은 걱정, 의미 깊은 시적주장은 태양 절의 이 봄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에서 4월의 봄이 꽃 피며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는 한 4월은 먼먼 미래에도 무한한 민족적공지와 환희로 넘치는 영원한 노래의 원천으로 될것임을 해명하는데까지 흘러 오고 깊어진 이 시의 절정이며 결속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이 시목음의 총적인 지향이며 동시에 끝없는 여운의 시작인것이다.

태양절에 바쳐진 이 시들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숭엄한 시적대상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체험세계에 의거하여 탐구된 서정으로 노래함으로써 기념일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것이다.

기념일시는 수령에 대한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노래한 일반서정시로 되어서는 안되며 기념일의 의의를 서정화하기 위한 탐구가 없이 정론적인 특성만을 추구하면서 시형상을 단순한 정론으로 만들어도 안된다. 이 경우 시는 필연적으로 기념일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기념일시는 무엇보다도 시로 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체험된 서정의 바탕으로 매 계기에 맞는 기념일의 현실적의의를 뚜렷이 부각시키는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시기 기념일시창작에서 서정시의 본도를 살린 우수한 작품들의 경우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4월의 봄은 영원하리》에 묶여진 시들 역시 지난 시기 사적과 사실자료의 전달로써 서정적형상을 대신하거나 분위기적인 강조나 주장으로 결구를 맺는 류형성에서 벗어나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고 있는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 시들은 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체험 세계에 형상의 초점을 두고 매 시인들의 개성적인

정서적체험의 깊이에서 서정을 펴내고 있으며 그 체험된 서정의 터전우에서 태양절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시적대상의 특성에 맞게 기념일시의 생리를 살리고 서정성을 강화하는데서 이 시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 그 자체를 노래하는데 머물지 않고 보다는 그 감격과 환희에 잠긴 서정적주인공-시인자신의 내면적체험세계를 노래하는데로 지향되고 있다.

시 《나의 노래》, 《평양의 4월》이 봄축전을 계기로 한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정서적체험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자기의 서정세계에 전인민적 사상감정, 시대정서를 체현시키고 있다면 시 《그대들은 왔다》, 《이 밤은 가지 않으리》의 경우에는 봄축전무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동적이며 화폭적인 서정속에 서정적주인공의 사색과 체험을 결합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 《봄날의 생각》, 《꽃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는 주로 명상적이고 은근하면서도 내면적인 울림이 강한 형상방법으로 세부적인 감정 정서를 파고 들면서 체험된 서정을 펴나가고 있다.

시 《꽃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에서 노래의 대상은 **김일성** 화전시장에 활짝 피어 난 태양의 꽃 **김일성** 화이다. 이미 많이 노래된 시적대상이지만 시인이 새롭게 탐구한 서정과 절절한 체험이 거기에 비껴 있어 참신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내 지금껏 꽃은 웃는줄로만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봄엔 꽃도 생각에 젖어 있구나

어떻게 온 봄이더냐 어떻게 피운 꽃이더냐
우리 장군님 전선길에서 지켜 주지 않았다면
대동강얼음도 풀리지 못했으리
4월의 이 꽃도 피지 못했으리

인간의 모든 정성우에
우리 장군님 의리가 있더라
가장 어려운 겨울에 따뜻한 봄을 펼치여
이 봄에 핀 꽃들이 이리도 아름다운게 아니
나

4월의 **김일성** 화전시장에서 천송이, 만송이 꽃들도 생각에 잠겨 있는것으로 본것은 매우 의미 깊으며 시적감정의 독창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느낌은 체험의 깊이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웃는 꽃, 간절한 열망과 소원의 꽃 등으로 노래하던 시세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상령역이다. 선군령도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수령영생위업을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승

고한 도덕의리관에 매혹된 경지에서 심화된 서정적 주인공의 체험은 오늘의 시대적높이에서 태양의 꽃에 어린 형상적의미를 시적으로 천명하는 근본열쇠를 준것이다.

생각에 잠긴 꽃에 대한 개성적인 체험의 터전위에 청송의 열정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형상과 밀착됨으로써 시는 4월의 노래가 영원한 수령영생송가로 되는 근거를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든 새로운 형상세계를 이루고 있다.

시 《봄날의 생각》이 짙은 서정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주는것도 거기에 개성적으로 탐구된 생활정서가 있고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속에 뿌리 내린 감정이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 전형적인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가 안받침되어 있기때문이다.

따스히 내리는 해빛의 애무속에
세계가 모여 오고
먼 길 갔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 오는데
오늘도 그이는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시는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달리는 인민의 마음은 4월의 이 봄날 그리운 장군님은 어디에 계시는가하는 생각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어제는 북방대흥단의 찬 바람 맞으시며/ 제대군인안해의 해산준비까지 헤아려 주시더니》 오늘은 《굽이굽이 철령을 또다시 넘지나 않으시는지》... 서정적주인공-우리 인민의 이러한 절절한 감정세계는 그리움의 서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뿜어 올릴수 있는 봄축전무대라는 이 하나의 생활적계기에서 더욱 절절한 정서로 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이 시에서 《성대한 봄명절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그러나 《노래물결/춤물결/우리만이 즐기교》 있다는 죄스러움의 감정선을 교차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럴수록 오늘도 《그 어느 전선길에 계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목 메이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을 감명 깊게 부각하고 있는데 있다.

그리움의 감정이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하여 개념적인 말로 추상화하거나 직선적인 생경한 논리로써 설명하지 않고 《인민의 가슴속에 넘쳐》 흐르는 보편적인 감정인 동시에 그것이 《내 마음에 젖어드는》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쳐오르는 개성적인 감정으로 노래한 여기에 체험의 개성화에 도달할수 있는 기본요인이 있는것이다.

이 시들은 그것이 노래하고 있는 전 인민적인 레찬의 감정의 절절함과 뜨거움에 맞는 숭엄하고 힘모적인 정서적색갈을 잘 살리면서도 위대한 대상에 대한 시인의 깊은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시와 철학

을 훌륭히 결합시킨 특성과 면모를 보여 주고있다.

수령님 노래로 밝아 오고
수령님 노래로 흘러 온 이 세기

-시 《나의 노래》 -

20세기의 노래도 이 땅에 있고
새 세기의 노래도 이 땅에 있어

-시 《그대들은 왔다》 -

노래속에 평양이 있고
평양속에 세계가 있구나

-시 《이 밤은 가지 않으리》 -

경구와 같이 뜻 깊게 울리는 시어로 표현된 이 대조적인 강조는 장엄한 격조를 띠면서 이 땅우에 태양절의 푸른 하늘을 펼쳐 주시고 영원한 수령영생송가가 누리에 울려 퍼지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뉘어 넘치는 힘으로 가슴후덥게 하며 인상깊은 여운을 안겨 준다.

이 시들이 태양절봄축전을 계기로 하고 있는것만 큼 노래와 결부된 시적화폭속에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열정과 서정을 이렇듯 시와 철학이 밀착된 인상깊은 서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있는것은 기념일시의 특성을 살리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은 령도자와 인민대중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에 바탕을 두고 위대성에 대한 격찬, 칭송의 열정을 명실공히 시의 본색을 갖춘 생활적서정으로 진실하고 열렬하게 노래하려는 우리 시인들의 미학적리상의 높이와 체험의 깊이에 의해 담보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선군혁명령도의 거대한 현실적의의와 위력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이 수령영생의 새 력사, 영원한 태양의 력사를 부각하는 깊이 있는 생활감정으로 뜨겁게 무르익어 형상 전반에 일관되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념일시의 생리적특성에 어울리는 시대적이며 무게있는 생활적서정구현의 귀중한 경험과 창작적시사를 받아 안게 된다.

이 시들이 보여 준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길에서 지켜 주시고 빛내 주시는 4월에 대한 노래는 곧 아버지수령님은 내 나라, 내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신다는 불변의 신념에 대한 찬가이며 태양절과 더불어 영원한 태양찬가이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태양찬가도 영원하며 선군령도의 새 시대를 펼쳐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거창한 투쟁으로 우리모두를 불러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수령영생송가가 높이 울
리는 내 조국의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이 땅
에 영원한 수령영생송가가 흐른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 주는 여기에 시뭇음 《4월의
봄은 영원하리》가 가지는 생명력과 커다란 사상미

학적감화력이 있는것이다.

이 시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는 한
아버이수령님은 세세천년 높이 울리는 태양찬가의
노래속에, 아름다운 태양칭송의 화폭속에 영생하시
리라는 시대적사상감정의 빛나는 구현이며 태양민
족의 불변의 선언이다.

머리 들자 나의 붓이여

리범수

총과 붓을 들고
복무의 먼 길을 나는 왔노라
고삐도 없고 박차도 없는 세월의 준마는
내 머리위에 흰 서리 없으며
인생이 저문다고 갈 길 재촉하누나

일찌기 10대의 그 시절부터
시가의 나래를 키우며
부푸는 큰 뜻을 하늘에 세웠건만
지붕의 높이에도 오르지 못했어라

문노니, 내 시가의 글발들이여
내 걸어 온 생의 자욱에
어머니조국땅에
너의 흔적 그 얼마나 남았느냐

돌아 보니 60평생
받아 안은 그 은혜 산처럼 높고
바쳐 온 그 충정 산기슭의 조약돌처럼
숲속에 묻혀 보이지 않건만

아 꿈인가 생시인가
장군님의 그 은정 층층이 쌓여
인생의 봄꽃이 활짝 피여 난
생일상 생일상을 내가 받다니

받아 안은 그 사랑 너무나 커서
우러러 높이 모신 장군님의 초상화가
눈물에 가리워 보이지 않아
그 영상 심장으로 더듬어 안으며
감사의 큰 절을 삼가 드리여라

어린 시절 두만강기슭에서
왜놈의 학대속에 어머니 잃고
홀아버지 보급우에 덧실려 눈비 맞으며

락엽처럼 험한 세상 떠 돌던 내가
백두령장의 축복을 받았나니

인생을 최우등으로 총화했다고
벗들은 나에게 축배를 권하건만
어이하라 보답할 해와 달이 너무나 짧아
내 이제 하루를 백날천날로 살면
장군님의 그 은혜 다 갚을것인가

오, 불타라 나의 심장이여!
장군님 부어 주신 사랑의 생일술을
청춘의 부활주
일생의 보양주
심신의 불로주로 마셨거니

잊지 말자 나의 붓이여
내 시가의 글줄도 외워 보시며
친히 내 이름도 불러 주시던
장군님의 크나큰 그 믿음을

아 태양 태양을 향해
더 높이 머리 들자 나의 붓이여
시가의 불줄기
심장의 붉은 피를 뜨겁게 뿜자

원컨대 내 시가의 글발들이여
붉은기사상의 병사가 되라
혁명적군인정신의 불꽃이 되라
결사옹위의 시폭탄 되라

장군님 그 품에 순직하는 그날까지
내 심장 재가 되게 타고 또 타서
해빛을 보태고 별빛을 보태려니
어머니조국이여 높이 솟아 빛나라!
김정일세기여 더욱더 밝아 지라!

붉은 태양

니싸르 나씨크

김일성 그이는
절망속에 신음하던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태양

김일성 그이는
자본의 철회에 억압 받던 근로인민의 심장속에
꺼지지 않는 주체의 불씨를 지펴 주신 화불

김일성 그이는
암흑을 밀어 내고 인민들의 앞길 밝히는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이시여라

김일성 그이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에게는 구세주
평화와 화목의 상징

김일성 그이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기치
영원한 태양이시여라

(필자는 파키스탄시인임)

가사

인민의 행복 위한 한생입니다

리경순

인민들의 기쁨을 위함이라면
고생도 락으로 삼으십니다
대홍단 찬눈을 헤쳐 오신 길
동해천리 공장길로 이으십니다
아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 위한 한생입니다

수령님의 인민행 열차 타시고
언제나 인민을 찾으십니다
비바람 새벽이슬 다 맞으시며

밤도 없이 가시는 길 끝없습니다
아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 위한 한생입니다

이민위천 큰뜻을 안으시고서
해빛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모진 풍상 헤치신 그 자욱우에
인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폼니다
아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 위한 한생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주인입니다

리준식(도이칠란드)

자갈 그리고 모래와 세멘트
이러한 물질들이
떨어져 있을 때

자갈은 자갈
모래는 모래
세멘트는 세멘트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이
한데 어울려 사랑으로 합쳐질 때
하나의 작은 벽돌은
한채의 살림집으로 산뜻한 도시로 자랑스런 공장
이 된다

남과 북 해외가
한데 어울려 하나의 사랑으로 일어 설 때
우리의 조국은 하나가 된다

조국의 저 건설장에 뛰여 들어
흙 한삽 뜰가
가슴 후련히
땀을 흘려 볼가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군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걸음새

윤경찬

대소한의 땀뻘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날. 나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현지도하여 주신 신의주방직공장에 취재차로 나갔다. 올해 공동시설관철을 위해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는 속에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공장이었어서 그런지 어쨌든 척 보기에도 공장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구내를 오가는 료전기재며 사람들의 걸음걸이며...

나는 우선 당위원회에 들러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은 초급 당비서를 만났다.

당비서는 50대 중반기에 들어섰음직한 풍채 좋은 여성이었다. 현장에 나가려던 참인지 옷걸개에서 덧저고리를 벗겨 들던 당비서는 내가 자기 소개를 하며 들어서자 난감한 기색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지금껏 술한 기자들과 촬영가들의 《시달림》을 받은지라 내가 또 찾아왔으니 가뜩이나 바쁜 때에 발목을 잡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긴 장군님께서 다녀 가신지 며칠 안되는 공장의 당비서가 오죽이나 바쁘랴.

그렇다고 나도 취재대상을 놓칠수 없었다.

《현장에 나가던 길이면 공장을 같이 돌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나도 방직공장엔 처음 와 보는데 공장구경을 할겸.》

《그렇시다. 이번에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로정대로 꼭 돌아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무실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당비서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작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난 방직공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이번 걸음에 공장의 생산공정에 대해 상식적인 정도로나마 파악하고 싶었다. 방직공업은 역사가 제일 오랜 공업이라고 한다. 태고적 인류가 무화과나무잎이나 짐승 가죽으로 몸을 가리우다가 그것을 벗어던지고 천으로 짠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직공업이 생겨난걸 보면 결국 방직은 인간을 문명으로 안내한 첫 안내자이며 모든 공업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 들어 서니 처음엔 눈길을 어디에 모아야 할지 알수 없을 지경이었다. 말그대로 직기바다를 방불케 하는 넓은 현장에서는 기계며 사람이며 모

든것이 실재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기대사이를 날렵하게 돌아 가는 직포공들의 작업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당비서의 걸음새가 어찌나 빠른지 미처 따라 다닐수 없었다. 나이로 보나 풍채로 보나 그런 날랜 걸음새가 어디서 생겼는지 도무지 믿어 지지 않을 정도였다. 속담에 바빠 돌아 가는 사람을 벼들에 북 나들듯한다고 하더니 북바디 소리 요란한 직기바다에서 살아 그런지 행동거지가 재빠르기 이룰데 없었다.

모든게 언뜻언뜻 스쳐 지나기만 하니 난 무엇하나 자세히 볼수도 없고 뭘 생각해볼 여유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공장을 돌아 보는 하루종일 돌아쳐도 아무 소득도 없을것 같았다. 그렇다고 당비서에겐 천천히 걷자고 말할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나는 봉사성 없는 《안내원》을 만난셈이었다.

(당비서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한들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는가?)

기분이 상한 나는 억지로 웃는 기색을 지으며 당비서에게 말했다.

《비서동지 걸음새가 어찌 빠른지 난 미처 따라다닐 줄 못하겠습니다.》

그 말에 당비서는 나를 피뚱 돌아 보았다.

《웬걸요. 이렇게 다녀두 현장을 한바퀴 돌아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형편입니다. 이번에 그이께서는 생산공정을 꼭 돌아 보시며 어느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그 천재적예지엔 저절로 감탄하게 되더군요. 장군님께서서는 그렇게 쉬임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으시며 우리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데 나같은건 아무리 뛰여 다녀두 일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래의 걸음새로 발걸을 옮기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가슴을 치는 충격에 당비서를 따라가는것도 잊고 그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 장군님의 걸음새는 더 빠르시단 말이 지.)

나의 생각은 절로 깊어진다.

장군님께서서는 2000년 새해의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근 한주일동안 평안북도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셨다. 태천의 토지

정리전투장으로부터 구성의 공작기계공장을 거쳐 서북단 한끝의 광산과 경공업공장들...

한시의 휴식도 없이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 가신 현지지도로정은 무려 3,000여리에 달한다고 한다. 한주일도 못되는 단 며칠사이에 주름잡으신 3,000여리의 현지지도로정. 정말이지 하늘을 나는 전설의 천리마속도로 우리 장군님 쪽잡과 췌기밥으로 이어가신 로고의 3천리는 그이의 혁명실록에 또 하나의 특기할 장으로 기록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이 로골화되는 류레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드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힘차게 달리신것이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기쁨으로 받아 들이신 인민의 령도자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시려고 이처럼 낮에 밤을 이어 가시며 혁명의 길을 걷고 계시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가시는 곳마다 혁신의 봉화가 타 오르고 사랑과 믿음의 전설이 생겨 나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

하긴 축지법을 쓰시는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고야 감히 누가 그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 진두에 계시기에 력사에 전무후무한 가슴뜨거운 혁명일화가 생겨 날수 있는것이다. 그

것은 정녕 우리 조국과 인민을 한해라도,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고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속도라고 례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 신념과 의지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하나같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낼수 있었으며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을 구보로 내달리고 있는것이다.

장군님의 그 걸음새를 본받아 세계 《마라손너왕》 정성옥영웅이 태어났고 제2, 제3의 정성옥이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조국을 빛내이고 있다.

그러니 당비서의 걸음새가 빠른것은 나를 푸대접해서가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걸음새를 본받은것이 아니겠는가. 당비서도 직포공도 온 나라 인민모두가 장군님의 걸음새에 발 맞추어 강성대국의 직선주로에 들어 섰으니 머지 않아 우리 조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강성대국의 결승테프를 끊을것이고 주체의 사회주의승리를 온 세상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빨리, 더 빨리! ...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걸음새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방식이다.

나는 총진군의 길에서 준마 타고 내달리는 우리의 걸음새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현장을 떠났다. 나의 발걸음도 자연히 빨라 진다.

40 분

송명근

김도 나지 않는
군용밥통을 손에 들고
습기찬 돌무지우에 둘러 앉은 병사들
그들의 식사시간 끝날 때까지
전조등 불빛을 비쳐 주신 장군님의 40분

희미한 등잔불아래
병사들을 두고 차마 못 떠나시여
가셔야 할 전선길을 멈춰 서신 40분!
습기 찬 동굴안에서
장군님 기다려 주신 40분!

사람들이여
최고사령관은 불을 밝혀 주시고

병사들은 그 사연 모르고 밥을 들었다
오, 이 시각
최고사령관의 직분보다 그 앞엔
눈물 많은 아버이가 서 계셨거니

장군님 멈춰 서신 40분!
언제나 어디서나
병사들의 수고앞에
그저는, 그저는 스쳐 지나지 말라고
온 나라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시간
내 나라 인민의 심장파 심장마다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을 높이 켜 준
영원한 시간!

위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속에 영생하는 작가

최연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의 작가로 높이 내세워 주신 작가들중에는 소설가 변희근의 이름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어지돈에 깃든 어버이 수령님의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창작한 장편소설 《생명수》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 주시고 소설을 잘 썼다고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그리고 당일군의 빛나는 전형을 훌륭히 형상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내놓았을 때에도 또다시 제일먼저 소설을 읽으시고 계급성도 있고 당일군들의 형상도 잘된 이 소설을 당원들과 간부들이 많이 읽도록 할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 변희근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고급시계와 인생최대의 영광인 《김일성상》 계관인의 영예도 안겨 주시였다.

나는 오늘 훌륭한 창작실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신 작가 변희근의 한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한생토록 그처럼 뜨거운 열정을 바쳐 심장으로 써서 남긴 소설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해 본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기억속에, 인민의 사랑속에 영생하는 삶보다 더 값 높은 삶,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 수행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며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돌이켜 보면 작가 변희근의 한생에는 일시적인 곡절과 시련도 없지 않았으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인생행로를 똑바로 잡고 한생을 충성으로 깨끗이 마무리한 행운의 작가였다.

함경남도 함주군 상기천의 이름 없는 빈농민의 아들로 태어 난 작가 변희근[주체13(1924)년 11월

1일-주체78(1989)년 1월 29일]은 조국해방과 더불어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 피운 실력있는 소설가였다.

그는 일찌기 창작초기에 벌써 단편소설의 명수로서 두각을 뚜렷이 보인 조숙한 소설가였다.

처녀작 《첫눈》으로부터 시작하여 《빛나는 전망》, 《보리마당》, 《빨간 덩기》, 《전사의 길》, 《그들의 문제》, 《철의 력사》 등 그가 창작 발표한 수십편의 단편소설들은 재능 있는 소설가로서의 작가 변희근의 개성적면모를 뚜렷이 보여 준다.

그중에도 수령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 《철의 력사》와 전후복구건설에 일떠선 영웅적로동계급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한 단편소설 《빛나는 전망》은 단편소설가로서의 변희근의 대표작으로,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작으로 된다.

단편소설 《철의 력사》는 이 땅에서 주체적인 철생산의 력사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로동계급인 주인공 박응철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는 진실한 로동계급의 생활화폭을 통하여 철의 력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로동계급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배려를 참으로 의의 깊게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 《철의 력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시기 수령의 위대한 형상에 바쳐진 첫 계열의 성과작으로서 참으로 거대한 문학사적 및 사상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단편소설 《빛나는 전망》은 창조적로동속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고 가정생활의 아름다운 꽃을 꽃피워 나가는 선진적인 녀성로동자인 주인공 혜숙이의 형상을 통하여 전후시기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문제와 그들의 사상정신적면모의 급격한 변화발전과정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로동에 대한 혁명적 관점과 가정생활의 새로운 료리를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다.

단편소설 《빛나는 전망》은 시대가 제기한 절박한 문제를 내세우고 훌륭한 전형을 통하여 옹결한것으로 하여 전후시기 우리의 단편소설문학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작으로 된다.

작가 변희근은 단편소설의 능수로서 문단에 등강하였으나 그의 창작의 원숙기는 장편소설의 창작시기와 일치한다.

장편소설 《지하의 별들》 [주체59(1970)년]과 특히는 그의 창작이 가장 무르익고 있던 시기에 창작된 쌍벽의 작품들인 장편소설 《생명수》 [주체67(1978년)]와 《뜨거운 심장》 [주체78(1989)년]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작가의 깨끗한 충정과 인민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다. 사상적으로 심오하고 예술적으로 세련된 이 장편소설들에서야말로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은 이 작가의 고유한 창작적개성과 독창성이 가장 뚜렷하게 발현되고 있다.

물론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어느 한 작품의 특정한 형상요소나 어느 한 시기의 몇몇 작품이 아니라 창작의 전과정에, 작품전반에서 풍겨 나오는것이지만 작가의 개성이 가장 뚜렷이 발현되는것은 그 창작의 원숙기이며 역시 그 대표작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작가 변희근의 창작적개성을 그의 장편소설들과 결부시켜 이야기하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다.

60년대 전반기 문단에 평론의 첫 발을 들여 놓은 내가 지면으로만 알고 있던 작가 변희근과 그의 창작을 두고 직접적으로 교우관계를 가지게 된것은 그의 장편소설창작이 왕성하던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때 그는 이미 원고개를 넘어 선 로년의 원숙한 소설가였다.

나는 그때 우산장창작실에서 그와 함께 소설의 줄거리도 토론하고 소설초고도 성의껏 읽었으며 밤가는줄 모르고 소설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그리고 장편소설 《생명수》와 《뜨거운 심장》이 세상에 나오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렸을 때 더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작가를 축하도 해주고 《로동신문》 지상을 통하여 평론도 썼다. 이러한 창작교우과정을 통하여 나는 작가의 인간적개성과 함께 그의 남다른 창작적개성과 깊이 접촉할수 있었다.

작가 변희근은 인간적개성, 그것처럼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소설가였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작달막한 키에 굵실굵실한 반고수머리, 살갗이 감실감실한 로년의 작가, 늙은이답지 않게 언제나 정열과 기지로 반짝이는 눈, 류다른 썩소리청에 손짓과 몸동작이 날랜 작가 변희근의 모습이 생동히 떠 오른다.

언제나 기지와 정기에 차 넘치는 유표한 눈은 그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남보다 먼저 찾아 내기라도 하려는듯 했고 류다른 소리와 함께 거기에 잘 어울리는 재빠른 손짓과 몸짓은 자기가 내 놓는 일가견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열정적으로 토로하군하는 그의 성격에 잘 어울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열정의 인간, 작가였으며 생활과 문학앞에 성실하고 진지한 소설가였다.

그는 일단 창작에 달라 붙으면 낮과 밤을 따로

몰랐다. 이런 나날에 우산장창작실의 작가들은 첫 새벽에 산에 올라 한병 가득 받아 담은 찬 이슬을 들고 내려 오는 그를 보곤 하였다. 첫 새벽이슬을 마시면 피곤이 다 사라지고 젊음이 솟아온다는것이였다. 참으로 놀라운 정력이며 부러울만큼 뜨거운 창작적열정이였다.

정의에 대한 사랑과 주장이 강렬한 그만큼 부정과 불의에 대한 증오와 경멸의 정이 또한 누구보다 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그의 이야기속에는 적지 않은 유모어가 뒤섞여 있었는데 여기에는 웃음으로 부정을 비판하려는 누를수 없는 요구가 명백히 비껴 있었다.

그는 참으로 이야기하기를 즐기었고 그 이야기들은 분명 꾸며 낸것이겠으나 어찌나 구수하고 흥미 있는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굴려 들게 하는 그 어떤 인력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그것은 자기가 구상한 소설의 줄거리나 주인공의 운명선의 생활적진실성을 스스로 타진해 본 것일수도 있다.

어쨌든 인간 변희근은 불임성과 기지가 있어 함께 있어도 쉼증이 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즐거운 소설가였다.

작가 변희근의 이러한 인간적개성은 그의 작품속에 더욱 뚜렷한 창작적개성으로 표현되였다.

개성이 뚜렷한 작가일수록 그것을 한두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소설가 변희근의 창작적개성은 당과 수령이 바라는것, 시대와 인민이 지향하는것이라면 언제나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포착하고 지체없이 정면으로 들고 나온데서, 일체 흐리멍텅하고 알쏭달쏭한 잡것이 섞이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가장 훌륭히 창조한데서 찾아 볼수 있다. 그리고 조금도 화려하거나 멋 부리는데가 없이 지극히 소박하고 진실하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는 생활묘사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순탄하고 명백하게 차근차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심리적굴곡도 있고 극도 있게 감정을 잘 조직하여 시종 흥미와 견인력을 가지게 하는 작품의 능란한 구성조직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두말 할것 없이 작가가 한생을 바쳐 성실하게 기울인 진지한 생활탐구와 끊임 없는 창조적사색과 불같은 창작적열정의 귀중한 결정체라고 해야 할것이다.

높은 창작실적으로 당과 수령의 기억속에 빛나는 작가들, 문학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작가들의 창작적성과를 력사에 고착시키고 그 고유한 창작적개성을 연구일반화하는것은 한생을 주체문학건설에 바친 작가를 위하여 후배들이 해야 할 응당한 의리이고 본분일뿐아니라 우리 문학의 보다 새로운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평론가의 의무는 자못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문학은 평론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 왔다. 인류문학사에 올라 있는 훌륭한 작품 가운데는 평론가의 옳은 평가에 의하여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 지게 된것도 적지 않다. 한때 이름 없이 파묻혀 있던 작가가 평론에 의하여 세계적인 문호로 이름을 떨친 경우도 없지 않다.

나는 이런 평론가의 본분에 비추어 남들이 한편, 많은 경우라야 두편의 장편소설밖에 넣지 못한 도서 《현대문학작품해설》에 생전에 쓴 장편소설의 전부인 세편의 장편소설을 다 올린 작가 변희근의 창작에 대하여 마땅히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스스로 지니게 된다.

이것은 평론가로서의 의무이기전에 당의 작가로서 당의 문학을 건설하는데 한생을 바친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선배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아직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소설을 몇권 더 쓸수 있는 때에, 창작적열정이 그 전성기에 이르렀던 65살의 나이에 뜻밖의 급병(심장마비)으로 우리 곁을 떠난 아물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쉬움이 나로 하여금 작가 변희근에 대하여 후배들에게 꼭 알려 주어야 하겠다는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작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창작적개성이며 창작적개성을 밝히는데서 기본은 작품의 사상예술적특징을 작가의 개성, 작가의 창작생활과의 통일속에서 고찰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의 사상예술적특징을 작가의 개성과는 무관계하게 분석평가한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작품평으로는 될수 있으나 작가론적이고찰로는 될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작가의 생애나 창작활동을 작품과 관계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작가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서술로 될뿐 작가론적이고찰이라고는 할수 없다. 작품을 떠난 작가의 개성이란 있을수 없다. 흔히 작가의 생애와 활동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화들로 흥미를 주는 글들이 종종 씌여 지고있으나 그러한것은 작가에 대한 평가의 한 측면으로 된다는 의미에서 작가교양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작가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로는 될수 없다.

이런 립장에서 나는 작가 변희근의 창작을 되새겨 보며 그 중심에 그의 작품들, 특히는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장편소설들을 놓고 창작적개성을 분석해 보며 그러한 사상예술적성과를 가져 오게 한 작가의 개성과 창작생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려고 한다.

작가 변희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회 깊게 추억하게 되는것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요구하시는것이라면 만사를 제쳐 놓고 남 먼저 앞장서 그것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실적으로 관철한 참된 당의 작가, 수령의 작가였다는것이다.

그가 한생을 두고 온 넋과 심혈을 다 바쳐 창작한 훌륭한 소설작품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참대갈이 끈고 억센 혁명적신념과 의리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작가들은 자기의 독특한 고유의 생활경력과 체험, 개성적특성과 특기 그리고 자기의 창작의도에 따라 작가 리기영이나 천세봉과 같이 주로 농촌물주제의 작품, 농민형상을 창조한 작품을 쓰기도 하고 작가 윤세중과 같이 로동계급형상에 바쳐진 작품을 쓰기도 하며 작가 박태원과 같이 력사물주제의 작가로 유명해 지기도 하면서 그것이 작가의 창작적개성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작가 변희근은 주로 로동계급형상을 위해 자기의 소설을 많이 바쳤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작가 변희근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당과 수령이 바라는 절박한 시대적문제,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창조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갖 창작적정열을 다 바친 충실한 당의 작가였다.

작가 변희근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생명수》도 바로 어지돈관개공사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을 쓸수 있을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창작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뜨거운 걱정과 흥분속에 받아 안은 작가 변희근은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오래동안 구상해 온 자기의 창작계획을 미련없이 뒤로 미루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작품창작과제를 스스로 맡아 안고 거기에 모든 창작적심혈을 다 기울여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작품창작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나섰것은 우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과 함께 수천년을 두고 《하느님》도 풀어 줄수 없었던 물에 대한 그들의 가슴 맺힌 념원을 다 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하늘 같은 은덕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길이 전하려는 뜨거운 충성의 열정이 가슴넘치게 솟구쳐 올랐기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작품창작과제를 받아 안고 창작실로 돌아 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작품창작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작품을 창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라고 흥분에 넘쳐 하던 작가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전에 별로 창작적교제가 깊지 않았던 작가 변희근을 내가 선배작가로, 혁명동지로 존경하게 된것도 이때부터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당

의 요구, 수령의 요구를 우리 작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 당의 요구박에 개인의 그 어떤 명예나 공명은 인연이 없었다.

작가 변희근은 장편소설 《생명수》의 창작과정을 통하여 우리 작가들에게 결사관철,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충실성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장편소설 《생명수》의 창작과정, 그것은 말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의 연속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지돈관개공사를 내용으로 한 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창작과제로 받아 안은 작가는 하나의 저수지건설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수리화정책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일반화할것을 결심하고 각오하였다. 이것은 피 타는 노력과 투쟁으로만 관철될수 있는 비상한 결심이고 각오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시고 산 현실로 꽃 피 나는 우리 나라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현실을 자신의 심장속에 새겨 넣기 위한 현실체험의 길에 나섰다. 그는 어지돈관개공사과정에 발취한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만이 아니라 평남관개공사전반과 연풍호를 비롯한 천지개벽의 력사를 취재하고 체험하였으며 수년간의 신고를 거쳐서야 소설의 줄거리를 세울수 있었다.

줄거리를 세웠다고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참으로 줄거리를 완성하고 형상을 완성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이 흘러 갔으며 휴식 없는 창작전투로 날과 달을 보내고 해를 넘기는 사이에 늙지 않을것 같았던 작가의 모습도 점점 몰라보게 수척해 갔다. 변함없이 반짝이는 그의 눈만이 꺼질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세운 이야기줄거리뿐아니라 인물관계와 대사, 지어는 지문에 대해서까지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받아 가며 더 성숙시키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다.

소설분과위원회가 조직한 집체적인 구성안토의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점심때까지 그리고 오후 두시에 다시 시작하여 저녁식사시간이 될 때까지 옹근 10시간이나 걸쳐 하고도 모자라 밤시간에까지 계속된 일을 두고도 그가 작품완성에 얼마나 심혈을 쏟아 부었는가를 알수 있다. 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이야기한것은 밤시간뿐 나머지 옹근 하루에 걸치는 구성안토론은 그 자신이 동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기 위해 제기한 의견들이었다.

토론자들이 구성안이 다 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에도 그는 《난 솔직히 말해서 됐다, 됐다할 때마다 불안해서 도무지 붓을 들게 되지 않는단 말

이요. 이게 어떤 작품이요.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까지 주신 소재를 쓰는 소설인데 감히 서둘러 붓을 들수야 없지 않소.》라고 진심으로 근심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그의 이런 말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가가 작품의 형상수준을 놓고 얼마나 마음 쓰는가를 가슴 뜨겁게 헤아리게 하였다.

그는 자기스스로가 자기 작품초고의 부족점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쉬어서 쓸것을 권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를 주신 작품인데 내 뼈를 깎고 살을 저민들 해 내기만 한다면 무슨 한이 있겠는가고 절절하게 하소하곤하였다.

참으로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이 흘러 갔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장편소설 《생명수》는 마침내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독자들의 기대속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주체67(1978)년 11월, 누구보다 먼저 장편소설 《생명수》를 읽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이 좋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어제날에는 무슨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쓰라고 가르쳐 주시고 작품이 출판되어 나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그 부피 두터운 소설을 읽으시고 그처럼 파분한 치하를 주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작가의 심장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최상의 행복으로 하여 가슴이 터질듯 하였다.

이 영광, 이 행복만으로도 설레이는 마음 그 어데 없을까가 없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전달해 주시고 작가에게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고급손목시계까지 배려해 주시었으니 작가의 감격과 흥분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때 연단에 나선 작가 변희근은 《나를 작가로 키워 주신 분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내가 작품을 쓰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 주신 분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나의 작품을 읽어 주시고 파분한 평가와 배려를 돌려 주신 분도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입니다. 나는 당의 작가로서 당의 작품을 쓰는데 한생을 바칠것입니다.》라고 열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렇다. 작가 변희근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당의 작가로 자라나 당의 작품, 수령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피와 살을 바치고 열정과 지혜를 쏟아 부었으며 한생을 남김 없이 바친 참된 충신, 훌륭한 동지였으며 재능 있는 귀중한 작가였다.

이름 없는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손끝에서 피가 터지도록 부모들이 고생하여 번 푼전으로 겨우 중학을 졸업하고 망국노의 고역로동으로 뼈를 군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의 해방을 안아다주시고 자신과 우리 인민에게 운명의 주인된 새생활을 마련해 주시고 창작적재능을 꽃 피워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 같은 은덕을

한생토록 가슴 뜨겁게 안고 살았다. 하기에 심장에 묻어 두고만 살수 없는 이 불같은 보답의 정을 터치지 않고는 못 견디어 일찌기 창작의 붓을 든 때로부터 유고작품인 장편소설 《새 조선의 주인》의 흥분된 창작과제를 앞에 두고 뜻밖에 심장의 고통을 멈춘 순직의 그 마지막까지 순간순간을 충성의 마음으로 불태웠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진 순결한 그의 충성의 한생은 그가 남긴 빛나는 작품들과 더불어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고 있다.

작가 변희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못하고 추억하게 되는것은 또한 그가 심장을 바쳐 창조한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들의 빛나는 모습이다.

작가 변희근은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한걸음도 헛갈리거나 헛디딤이 없이 당을 따라 수령을 따라 오직 한길만을 정보로 곧추 걸어 가는 주체형의 인간전형, 참된 충신의 전형을 깨닫고 대바르게 높은 수준에서 형상한 귀중한 작가였다.

그는 자기의 주인공의 빛나는 모습으로 수천수만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키워 낸 우리 당의 기수였고 나팔수였으며 그리하여 인민이 잊지 않고 추억하며 수령의 심장속에 영생하는 작가였다.

그가 창조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두고 깨닫는다고 하는것은 그들모두가 백두의 흰눈과 같이, 아름다운 목란과 같이 티없이 순결한 충성심을 지닌 고지식한 충신들이라는것이며 대바르다고 하는것은 그들중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당정책적견지에서나 계급선에서 조금도 모호하거나 까리까리한데가 없이 혁명적립장이 투철하고 그 어떤 환경이나 정황속에서도 그리고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흐리멍텅한데가 없고 선명하다는것이다.

작가 변희근은 우리 시대의 충신전형을 훌륭히 창조한 충신작가였다.

그가 한생토록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에 것처럼 창작적정열을 기울인것도 지난날 철쇄에 묶이었던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하늘 같은 은덕을 세상에 소리높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주인답게, 맡아들답게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충성으로 앞장서 받들어 나가도록 힘을 주고 신념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 로동계급의 운명을 수령과 뗄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 진 혼연일체로 보고 그리였다. 그들은 불덩이와도 같이 뜨거운 충신들이다.

장편소설 《생명수》의 주인공 박대성과 《뜨거운 심장》의 신철민 등이 모두 그런 충신들이다.

장편소설 《생명수》의 주인공 박대성, 그는... 우리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어도 하루빨리 봉산벌에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어

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인간애를 심장 뜨겁게 체현한 참다운 충신의 전형이다.

그는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한생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정을 다 쏟아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 같은 은덕을 가슴이 터지도록 한몸에 체현한 인물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그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심장을 다 바쳐 어지돈관개를 위한 힘겹고도 보람찬 투쟁의 한복판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는 조국의 참된 아들이다.

경사 70도나 되는 가파로운 길로 대형압축기를 대담하게 끌어 올리는 하늘의 수리개들인 연공들, 억수로 퍼붓는 폭풍우속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쫓크레인을 구원해 내교야 마는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 한가운데는 언제나 주인공 박대성이 서있었다.

참으로 작가는 소설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 주신 귀중한 쫓크레인을 계급적원썹들의 준동과 폭풍으로부터 한몸을 들이 대어 끝내 지켜 내며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쫓크레인의 이설작업을 성공적으로 보장해 내는 주인공의 영웅적성격을 감명 깊게 그리기 위해 몇밤을 지새워 가며 몇십번을 다시, 또 다시 써 가며 정열과 지혜를 깡그리 바쳤다.

사나운 폭풍속에 사정없이 흔들거리는 쫓크레인의 팔뚝을 비끄러 매기 위해 공중 35m 나 되는 아슬아슬한 팔뚝을 한치한치 톡아 나가는 박대성의 숭고한 모습은 지금 다시 읽어 보아도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작가는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한 우리 로동계급의 이 숭고한 영웅주의가 아버지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것을 참으로 가슴 뜨겁게 보여 주었다.

작가는 몸소 봉산벌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토지개혁으로 분여 받은 땅에서 거둔 첫 낱알을 수령님께 선물로 올리였던 백성보의 이름 없는 양수기관리공을 잊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먼저 그 이름을 불러 주시였으며 그가 양수기를 지켜 끝까지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떠나간 전사를 못내 가슴 아프게 추억하시며 그의 아들 대성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촌수리화의 앞장에 서도록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눈물겹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상에술적으로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게 창조된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은 어지돈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영원한 화폭으로 아로새기는데서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돌우에 새겨진 비문만이 력사에 남는것이 아니다.

작가가 소설속에 심장으로 새겨 놓은 주인공의 이 빛나는 형상은 오늘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

간까지 험한 진궐길을 걸으시며 우리 농민들을 것처럼 따듯이 보살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못 잊을 그 영상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케 해주었다.

또한 그 은정이 고마울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인공 박대성이 수령님께 깨끗한 충정을 바쳤듯이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워 나가도록 청년들을 힘있게 고무해 준다.

작가 변회근은 장편소설 《생명수》의 주인공 박대성의 형상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기쁨을 드린 우리 당의 참된 당일군의 빛나는 전형인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 신철민의 형상을 참으로 훌륭하게 창조하였다.

당일군의 참된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일찍부터 기대하신 창작과제이며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당일군의 전형을 잘 그리는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서 실로 절박한 혁명의 요구가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깊은 뜻을 누구보다도 가슴 뜨겁게 받아 안은 작가가 바로 소설가 변회근이다.

그는 장편소설 《생명수》가 완성되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었을 때 벌써 당일군을 형상한 작품을 쓸 구상을 하고 있었다. 장편소설 《생명수》를 쓰는데 밤낮으로 쉬임없이 이어진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는것을 헤아려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대담하고 정열적인 열정의 분출이고 그 련속이라고 경탄하지 않을수 없다.

장편소설 《생명수》창작이 끝났을 때 한 책임일군을 찾아 온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의 작품을 그렇게 빨리 읽어 주시고 또 이처럼 과분한 치하를 주실줄은 상상도 못했겠소. 다음번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당사업방법을 체득한 주체형의 당일군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쓰자고 하오.

내 이번 당일군형상소설은 이미 쓴 두 장편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좀 빨리 쓰면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창작하려고 하오.》

한작품을, 그것도 단편도 중편도 아니고 부피 큰 장편소설을 피땀을 바쳐 끝내고는 끝내자마자보다 어렵고 중요한 창작과제를 스스로 자기앞에 제기하고 그것도 보다 빨리, 보다 더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완성해 내고야 말 열정과 결의로 가슴불태운 로년의 청춘작가 변회근!

한생을 당의 작품을 쓰는 당의 작가로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믿음과 배려에 창작실적으로 기여하라는 그의 불 같은 충성은 그대로 실천

에 옮겨 졌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그 구성안도 초고도 그리고 완성공정도 더 빨리,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었던것이다.

작가 변회근이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완성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작품을 친히 읽어 주시고 높은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작품을 성과작으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작가 변회근에게 최상최대의 영광인 《김일성상》 계관인의 크나큰 영예를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 당일군의 참된 전형으로 내세워 주신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 신철민은 참으로 한생의 운명을 당과 땀수 없는 혈연으로 련결시킨 작가 변회근이 장군님께 드린 충성의 보고, 진정의 산아였다. 그는 주인공형상창조의 전기간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으로 뜨겁게 불 태웠다.

작가의 이러한 충성심이 바로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불 타는 뜨거운 심장을 안고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그들을 굳게 묶어 세우는 것처럼 미더운 당일군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작가는 나라를 강철기둥으로 받들어 나가는 오랜 로동계급과 제대군인출신의 젊은 핵심로동자들을 비롯한 각이한 인물들과의 폭 넓고 의의 깊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당일군이 어떻게 사람들을 따듯이 포섭하고 원칙적으로 이끌어 주어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경제사업도 당적으로 잘 떠밀어 주는가를 참으로 진실하고 심오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인간관계의 설정도 그 해결과정도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견지에서 실로 원칙적으로, 전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일군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 지는 인간관계의 설정자체가 가장 전형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주인공이 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라고 할 때 그의 기본사업대상은 로동계급이며 그 가운데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오랜 로동계급과 제대군인출신의 젊은 새 세대 로동계급이다. 그들이야말로 당일군이 믿고 의지하며 대중앞에 내 세워야 할 우리 혁명의 핵심들인것이다.

그와 함께 생산기업소의 당일군이 어떻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도 생활이 해결을 요구하는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설정이 더없이 전형적일뿐 아니라 그 해결과정은 주인공형상의 전형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은 그러한것을 로의 밑통이 터졌을 때와 공

사의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는 50t 기중기의 시운전이 실패하였을 때 신철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강철기동과도 같이 마음의 든든한 의지가 되어준 오랜 로동계급인 장범도의 미더운 형상을 통하여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장범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한길에서 한생토록 한치의 드림이나 순간의 동요도 모르는 진짜배기 충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랑 담아 키워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믿고 내세워 주신 조선로동계급의 전형이다.

주인공 신철민책임비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뜨겁게 믿고 그에 의지하여 것처럼 힘겹고 방대한 과업으로 나섰던 1호 용광로 대보수공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훌륭히 수행해내는것이다.

소설에서 책임비서 신철민과 지배인 리형삼과의 관계를 통하여 당일군과 행정경제지도일군과의 관계에서 나서는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옳바른 해답을 주고 있다.

생산계획을 중시한 나머지 당위원회의 결정마저 집행하지 않는 지배인을 이처럼 심각하게 비판하면서도 막상 그 후파로 하여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버이수령님 앞에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다 맡아 나서며 지배인이 로보수공사의 앞장에 서도록 진심으로 도와 주고 떠밀어 주는 당책임비서, 그런가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 그토록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자기를 호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대신에 오히려 정치위원으로서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대로 일을 쓰게 하지 못한 자기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당책임비서를 두고 자책으로 모대기는 지배인.

작가는 이런 감동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서 한생을 값 있게 빛내여 나가려는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하게 하고 자기자신보다도 혁명동지를 더 귀중히 여기게 하였으며 어려운 곳에는 서슴없이 자신이 나서고 영광의 자리엔 혁명동지를 내세우게 하였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 나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세련된 우리 당일군들에게서만 볼수있는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관계이며 그 정화이다. 동시에 이것은 현실이 절박하게 제기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장 원칙적이면서도 예리하고 민감한 첫 해답이었다고 할수 있다.

작가는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박정호기사와의 관계나 차명진, 림영택 등 판료주의전횡분자, 소극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극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여곡절을 주거나 갈등을 주관적으로 약화 또는 예리화시킴이 없이 우리 당 계급로선과 군

중로선에 맞게 진지하게 파고 들어 옳게 해결하고 있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해결, 주인공의 형상창조에서 좌왕 또는 우왕하거나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오직 당의 로선과 계급정책에 따라 깨끗하고 대바르게 전형화한것은 작가 변희근의 귀중한 창작적개성인 동시에 우리 작가들을 위하여 참으로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전형창조에서 탈선하면 작품전반이 탈선하게 된다는것은 창작의 교훈이다.

작가 변희근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가장 훌륭한 전형을 창조하면서도 거기에 인정미와 정서적 향기를 누구보다도 풍만하게 부여할줄 알았다.

정치성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통일, 사상과 정서의 매력적인 결합, 이것은 성격형상을 두고 반드시 부언해야 할 작가 변희근의 창작적개성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의 소설과 주인공들은 원칙적이고 대바르면서도 흥미 있고 매혹적이며 견인력이 있는것이다.

성격형성에서의 고정적식화나 리상화는 작가 변희근과 인연이 없다. 그의 주인공들은 약점도 고민도 없는 완전무결한 리상적인물이거나 다른 명태처럼 죽이 없는 목적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혁명투쟁과 함께 개인생활도 있고 장점과 함께 부족점도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자기투쟁도 있다.

제철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신철민에게는 귀중한 전우인 안해 송경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남 모르게 간직되어 있으며 실패앞에서의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도 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무자비하리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자기 투쟁이 있는것이다.

성격의 전형화에서 뚜렷이 발현되고 있는 작가 변희근의 이 모든 훌륭한 창작적개성은 주인공의 형상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선, 덕성선속에서 훌륭히 부각한것으로 하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나 《뜨거운 심장》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에 직접적으로 바쳐진 화폭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가장 빛나게 그려진 이 화폭들은 주인공의 형상에, 그 성격과 생활에 활력과 향기를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작가가 그토록 크나큰 애정을 담아 한생을 바쳐 훌륭히 창조한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몇장의 원고지수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나는 깨끗하고 대바르면서도 인정미도 있고 매력도 있는 주인공들을 더없이 사랑하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 훌륭한 주인공들을 시대와 인민앞에, 당과 수령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한생의 개인적안락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창작에 모든것을

다 바친 작가 변희근을 문학의 선배로, 귀중한 혁명동지로 존경해 마지 않는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그의 소설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심 누구보다 기쁨을 금할수 없었으며 작품의 즐거리때부터 눈에 선하고 귀에 익었으며 심의 본때에도 몇번이나 곱씹어 정독한 책을 처음 보기도 하듯이 밤도와 단숨에 읽었다.

그리고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그토록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치하를 받았을 때에는 장편소설 《생명수》때처럼 즉시 평필을 들어 소박한 평론을 《로동신문》에 발표하였다.

애오라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생의 이 행복을 위하여 춘하추동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창작일념으로 달과 해를 이어 온 작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창조의 열매에 한줄기 향기를 더해 주고 싶은 진정에서였을뿐이었다.

그런데도 어느새 읽었는지 신문이 나간 그날 아침 늙은이답지 않게 막 달려 온 작가 변희근은 말없이 오래도록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었다.

나도모르게 몽클한것이 가슴에 치밀어 오르며 뜨거운것이 눈에 어리었다. 그의 눈에서도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맛 볼수 없는 평론가의 행복이라 할가, 동지에 대한 뜨거운 정이 그들먹이 심장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인간 변희근에 대하여 추억한다.

글은 곧 사람이라 하지만 작품의 주인공이야말로 작가의 대변자이다.

작가 변희근은 대바르고 고지식하며 정의감이 강하고 기지가 있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우산장창작생활의 짧지 않은 나날에 한 녀류작가에게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그 세대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곤 하였다. 주로는 알지 않는가, 창작이 잘되는가 하는 평범한 문안이였으나 거기에는 안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이 사실을 두고 각별한 애처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남아답지 못하게 녀자에게 빠진 사람이라고 비양거리는 익살군도 있었다.

그런데 룡담으로 넘길수도 있는 이 《평범한》 언행이 작가 변희근을 그렇게 노하게 할줄은 몰랐다. 우리 시대에만 있을수 있는 이 아름다운 생활에서 인간의 참된 미를 볼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작가는 커녕 참사랑을 지닌 참인간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꾸중이라고 할수있는 그의 말은 한두마디로 끝나지 않았다.

어느 한 당회의에서는 단 둘이만 알고 있는 별치 않은 사실을 두고 그가 자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 다른 한사람은 굵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를 편견하였으나 당앞에서는 크고작은 일이 따로없이 고지

식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삶의 지론이고 신조이기도 했다.

인간과 아름다운것에 대한 긍정의 열정이 강한 그만큼 부정의와 불의에 대한 경멸과 증오의 감정이 또한 강하였다. 그가 미워하는것중에도 제일 미워한것은 교만성과 관료주의이며 아부아첨이였다.

관료주의자와 아첨분자의 이름 한자들을 그대로 따서 부정인물에게 붙여 주어야 한다고 한 그의 말은 그의 대바른 인간적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 준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작가 변희근이 창조한 주인공의 대바르고 깨끗한 성격을 언제나 변심과 변덕을 모르고 고지식했던 그의 인간적개성과 하나로 련결시켜 추억하곤 한다.

작가 변희근에 대하여 추억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야기해야 할것은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은 개성적인 창작적기교, 그것과 함께 창작에 대한 참으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이다.

그의 작품들은 사상적내용이 심오한 그만큼 예술성이 높고 기교가 세련되어 있다.

예술적형상성과 기교의 면에서 볼 때 작가 변희근의 소설에서 특징적인것은 그의 인간적개성 그것처럼 조금도 화려하거나 멋부림이 없이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더없이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생활묘사, 그리고 그 어떤 특이하고 기발한 인위적꾸밈이 없이 생활의 논리를 따라 순탄하고 명백하게, 알기 쉽고 구수하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굴곡도 있고 극도 있게 감정을 잘 조직하여 시종 견인력을 주는 작품의 원숙한 구성조직,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량만으로 충만된 기쁨진 세부 묘사 등이라고 할수 있다.

순간 나의 머리에 잊을수 없는 화폭으로 생동하게 떠오르는것은 봉숙이와 대성이가 수차를 돌리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들이 꿈 꾸었던 은하수에 대하여 회상하는 정서 그옥한 장면(장편소설 《생명수》)이며 제대군인 김석철과 마동석의 생활에서 시종일관하게 차 넘치는 혁명적량만(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다.

작가 변희근의 높은 사상예술적기교는 그가 한생을 바쳐 기울인 창작적사색과 열정, 생활에 대한 탐구와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는 휴식과 중단을 모르는 열정의 작가였고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성실한 인간이였다.

명작이 재능의 산물이라면 재능은 열정과 노력의 열매이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소박하고 소탈하였지만 문학과 작가들, 동지들앞에 더없이 허심하고 진지하였다. 그러한 창작태도는 이미 단편소설을 쓰던 그 시기부터 굳어 진 그의 개성이기도 하였다.

그가 단편소설 《빛나는 전망》을 창작할 때 있

은 일이니 근 50년전 일이다.

그는 부피 작은 단편소설의 구성안을 두고 동지들 앞에서 무려 1시간 반에 걸쳐 이야기하였는데 손짓, 몸짓에 등장인물들의 억양까지 그대로 시늉하는 그의 모습은 어찌나 구체적이고 생동하였던지 마치 영화 한편을 보는것 같았다. 사람들은 흥미 있고 성공을 확신케 하는 그의 구성안을 두고 완성감을 느끼면서 선망의 눈길로 이 진지하고 열정적인 작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그자신은 무조건 한 가지씩이라도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문단에 첫발을 들여 놓은 신인의 목소리에까지 귀를 강구어 가며 그 소박한 의견을 원고지우에 토박토박 적어 나갔다.

무척 소탈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할수도 있겠으나 자기 작품의 구상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덧붙여 설명하면서 그들이 주는 의견의 얼마디중 한마디라도 참고될만한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적어 두었다가 작품을 보충하여 완성하는것은 그의 일관한 창작태도인것이다.

그는 자기 창작과정을 문학의 끝 없는 발전과정으로, 작가적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실천한 성실한 작가였다.

작가 변희근은 자기 작품의 키를 단 한치라도 높일수 있다면 한달과 일년도 아낌없이 바칠줄 안 작가였다.

그의 첫 장편소설인 《지하의 별들》도 작가의 이런 피 타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는 설명으로 되었던 소설의 개소들이 동지들의

의견을 받아 들어 훌륭한 장면과 화폭으로 되게 하는데 무려 웅근 두달반이라는 피 타는 노력을 성실하게 바쳤던것이다.

이미 문학계에 널리 알려 진 사실이지만 2부작장편으로 거의 완성된것이나 다름 없던 장편소설 《생명수》가 오늘의 단부작으로 완성될 때까지 작가는 무려 반년이상의 피 타는 열정을 쏟아 부었다. 이리하여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장중편 100편 전투과제의 첫째 완성품으로, 공화국창건 30돐 기념출판물로 성과적으로 완성되었던것이다.

끝 없는 자기 성장을 지향한 작가 변희근은 마침내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으로 단연 우리 소설계의 거장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가 그렇게도 돌연히, 그렇게도 애석하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생전에 것처럼 커다란 흥분을 가지고 구상하고 계획했던 장편소설 《새 조선의 주인》의 창작으로 조선소설문학을 보다 새롭게 장식하고 더 높이 성장시켰을것이다. 이 유고작은 가슴에 묻어 두고만 살수 없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대한 불 같은 보답의 분출이었으며 작가 변희근은 흥분된 창작과제를 앞에 놓고 붓을 든채 순직하는 마지막시각까지 생의 순간순간을 충성으로 불 태운 수령의 참된 전사였다.

작가 변희근이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으나 그가 남기고 간 귀중한 작품들과 주인공들과 함께 그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사랑속에 영생하고 있다.

명언해설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이야말로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특징 짓는 3대품모라고 말할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상에서도 위대하시고 령도에서도 위대하실뿐아니라 덕성에서도 위대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력사에는 남다른 품격과 자질로 하여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뛰어난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겸비한 위인은 없었다. 우리 수령님은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을 다 같이 한몸에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은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으며 그 어느 위인파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내 영원히 백두산에 서 있으리

(총련) 김윤호

걸고 걷는 내 걸음걸음
백두산 험한 길을
내 잠시나마 걸어서 올랐어라

발밑에 펼쳐 진 천리밀림이
세찬 바람에 설레이며
이역만리에서
술한 우리 겨레의 마음을 안고 찾아 온
나를 반겨 나를 반겨
손저어주는듯

아, 예가 바로
그 간고한 나날
백두의 호랑이로 이름 떨치시며
김일성장군님 항일의 횃불
높이높이 추켜드신곳이니

장군님 령도 따라
저 밀림을 누비며
이 험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해방의 그날을 위하여
20성상 기나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피 흘리며 땀 흘리며
혹한과 굶주림도 이겨가며
싸운 투사들의
그 피자욱이 스며있는 땅

구름도 발밑을 감도는
여기 백두산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붉은기 높이높이 추켜 드시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억세게 뿌리박으신 여기 백두산

그 백두의 령마루를 향하여
나는 걷는다
투사들의 고귀한 피자욱 어리고
진군의 나팔소리
멸적의 호령소리 총소리
지금도 내 가슴에 메아리치는
이 백두산

내 고향땅 등지고
이역의 밤길을 걸으면서도
전설인양 듣고듣던
마을로인들의 그 이야기

백두산에 장군별이 솟아
준령을 주름 잡으면서
수만대적을 단숨에 쓸어 넣힌다던 이야기

멀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감긴 철쇄 풀릴 그날이
조선에 해방의 해빛
밝아 오를 그날이

내 들으면서
높뛰던 가슴 억누를길 없어 하던
그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아직은 몰랐어라 그때에는
우리의 영원한 혁명전통
마련된 그 사연을

아, 해방의 그날
이역땅 하늘을 진감했던
우리의 만세소리
거리를 누비며
붉은 기발이 나뭇기던
그날 그때의 우리의 감격
우리의 합성

내 오늘
타국만리 남의 나라 하늘아래
바람 사납고 구름 무거운
이역에 살면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가슴에 새겼거니
오고 싶었어라 걷고 싶었어라
백두의 이 준령을
백두의 이 밀림을

내 사는 땅 자본주의 이국땅이기에
백두의 정신을 신념으로 삼으려건만
백두의 기상을 안고 살려 하건만
때로는 안일을 추구하고
해이와 태공을 허용하는 일 많아라

그럴 때면
내 심장에 새기노니
내 불 타는 결의 다지노니
백두의 정신으로 살리라
내 영원히
백두산에 서 있으리라

오, 백두산이여
내 마음 내 신념의 기둥이여
수기

내 영원히
너와 함께 삶을 빛내리라

《조선문학》과 나의 창작

김의철

잡지 《조선문학》이 자기의 창간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어언 반세기이상,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다.

하루빨리 잡지가 나오기를 고대하는 작가들과 문학애호가들, 못사람들의 기대와 기다림속에 달마다 한호씩 발행되는 잡지가 어느덧 루계호수만도 600을 넘기고 50여돌기의 년륜을 우리 문학사에 아로 새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회가 깊어 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돌이켜 보면 작가로서의 나의 성장과정은 《조선문학》과 떼려야 뗄수 없는 깊은 관계속에 있다.

문학창작의 길은 보람차면서도 멀고도 간고한 길이다. 이 길에 발을 들여놓기도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가기는 더욱 험치않다. 혹은 이 길의 초입에서, 혹은 중도에서 붓을 던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만큼 문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이 길을 끝까지 가자면 강의한 의지와 자기자신을 깰그리 다 바치는 그러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멀고도 힘겨운 길을 가자면 손잡아 이끌어주는 스승도 필요하고 조언을 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꾸지람도 해주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그러한 스승, 그러한 길동무가 바로 《조선문학》이다.

우리 문학사에 별로 큰 흔적도 남기지 못한 나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조선문학》은 문학수업의 초기부터 말없는 스승으로, 친근한 길동무로 되어주었다.

작가들 대개가 다 그러하지만 나 역시 자신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 한걸음 한걸음 문학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여기에서 《조선문학》의 역할과 몫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된다.

가렬치절했던 전화의 나날, 불 타는 전호가와 포진지결에서 전투의 여가시간에 짹짹이 퍼들군했던

《조선문학》의 갈피갈피가 문학이라는 길로 나를 손 잡아 이끌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전후 학창시절과 구슬땀 흘리던 건설장의 휴식참에 늘쌍 바지 뒤 주머니속에 넣고 다니던 《조선문학》을 읽으며 창작의 걸음마를 하나하나 익혀 나가던 일들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잡지의 머리글로부터 마지막페이지의 종지부에 이르기까지 한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읽어야 직성이 풀리던 그 나날속에 우리 혁명의 자랑스런 년대들이 흘러 갔고 나는 작가로 자라났다.

꿈과 공상, 희망과 기대도 있었고 실패와 실망도 있었고 또 성공의 희열, 보람과 자부심도 있었던 창작과 더불어 흘러 온 나의 생애를 돌이켜볼때 참으로 《조선문학》은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었고 힘 겨울 때는 힘을 주고 맥을 놓고 주저했을 때는 꾸짖어 주고 고무해 주며 멀고도 간고한 문학의 길을 끝까지 걸어 올수 있도록 떠밀어 준 진정한 길동무였다.

나의 창작생활과 《조선문학》에 대하여 말할 때 제일 선참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이다.

우리 소설문학이 주체문학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게 된것은 자기의 형상속에 위대한 수령의 형상을 모시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말할수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받들고 관철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던 1960년대 중엽 우리 소설문학은 비로소 자기수령의 거룩한 영상을 형상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시기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인 《조선의 힘》, 《큰 심장》, 《철의 력사》가 얼마나 사람들을 크나큰 감동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던가.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간 소설가 변희근, 고병삼 등 작가들은 이 작품들을 통하여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들을 받았고 동지들의 호평과 고무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 소설문학운동사에서 하나의 전환이 있을뿐아니라 잡지 《조선문학》의 사회적지위를 비약적으로 올려 세워 주었다.

이에 편이어 《크나큰 사랑》, 《력사의 자취》 등 수령형상작품들이 편이어 창작발표되었다.

이것은 나의 무딘 붓대에도 충격적인 자극으로 되었고 수령형상작품창작의 강렬한 열망을 품게 하였다.

바로 그무렵 나는 어느 한 교육일군회의에 참가했다가 어버이수령님께서 6명의 산골아이들을 위해 분교를 내오게 해주셨다는 한 너교원의 토론을 듣게 되었다. 이 사실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 혁명의 후대를 키우시기 위하여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숭고한 뜻을 깨닫게 되었으며 붓을 들지 않고는, 쓰지 않고는 건딜수 없는 창작적충동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씌여 진것이 《조선문학》 주체57(1968)년 9호에 발표된 단편소설 《나루가에서》이다.

그때 나는 독자들로부터 고무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작가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되었다.

나의 창작생활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활기를 띠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나는 《조선문학》과 이렇게 되어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시기 《조선문학》의 편집원들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편지를 띄우고 먼길 가까운길 가림이 없이 작가들을 찾아 다니며 수령형상창조의 불을 지피고 새로운 작품창작으로 추동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조선문학》 편집부로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의 령도풍모를 형상한 작품을 쓸데 대한 청탁편지를 받았다.

나는 탐구와 모태김속에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밤새워 쓴 작품을 편집부에 올려 보내고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다.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속에 두달이 흘러 갔다. 초조감에 잠겨 있는 때에 편집원동무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말할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쓰다나니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장시간에 걸쳐 편집부에서 토론한 대안을 내놓았다.

비로소 나는 수령형상작품의 생리를 파악하지 못한채 주관적흥분만을 앞 세우며 서둘러 붓을 들었던 자신의 착오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자신을 타매하고 채찍질하며 밤과 낮을 잇고 원고에 묻혀 씨름을 하였다. 그때 편집원동무는 꼬박 한주일동안 려관에서 원고가 탈고되기를 기다렸다.

편집원동무는 내가 고친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책을 손바닥으로 치며 《됐소. 수고했소!》하고 나의 손을 굳게 잡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조선문학》에 두번째 수령형상작품으로 발표된것이 단편소설 《빛발을 우리러》였다.

이 시기 소설가들은 수령형상창조에 한결같이 떨쳐 나섰다. 그리하여 그무렵에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논석이》, 《사랑의 품》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발표되었다.

《조선문학》의 지지와 방조, 충고와 고무속에 나는 그후 《유년기》, 《세월을 넘어》, 《준엄한 날에》, 《신화는 부서 졌다》, 《소년단경례》, 《전사의 집》 등 여러편의 수령형상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회고하건대 수령형상문학의 창작과정은 수령의 위대성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체득하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 작가들의 작가적기량을 높여 온 과정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의 새 력사가 창조되었고 우리 작가들은 그 창조자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힘을 넣고 있다.

잡지 《조선문학》과 더불어 걸어 온 자신의 창작생활의 일단을 더듬는 이 시각 결의는 새롭고 각오는 높다.

잡지 《조선문학》은 우리 문학의 얼굴이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세계가 높고 창작기량이 높을 때 그 《얼굴》이 더욱더 빛날것이다.

나는 이런 자각속에 자신을 채찍질하며 창작의 붓을 더욱 가다듬게 된다.

그의 소원

김정길

1

간다는 말없이 차거운 겨울이 가고 온다는 예고 없이 따뜻한 봄이 왔다.

거무죽죽하던 나무가지들엔 파아랗게 물이 오르고 높낮은 둔덕과 야산들엔 아지랑이가 가물거린다.

홍안의 처녀총각들이 짝을 무어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며 강반을 거닐기 좋은 때다.

하루일을 마친 나는 사무용품과 문건들을 간추려 철케에 넣고 감빛 저녁노을이 곱게 비낀 창문들에 문보를 치고 출입문쪽으로 걸어 갔다. 그때 전화기가 다르릉하고 울리었다.

《과장 유학민 전화 받습니다.》

《마침 있구만. 내 방에 잠깐 들렀다 가오.》

성당비서의 침착하고도 웅근 목소리가 송수화기에서 들리었다.

《알겠습니다.》

공손히 대답한 나는 성당비서가 왜 부를가, 무슨 일이 있어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 찾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의 방으로 갔다.

얼굴이 너부죽하고 눈이 서글서글한 성당비서는 나를 반갑게 맞으며 퇴근을 지체시켜 미안하다면서 래일 직동으로 출장을 가야겠다고 했다.

《직동가서말요. 그곳 탄광당비서와 김유봉동무를 만나고 오시오.》

《유봉동무를 말입니까?》

《그렇소. 전번 토론한대로 그를 성으로 소환하려고 하오. 상급당과는 합의를 보았소.》

《!》

순간 나는 너무도 기쁜 김에 인차 대답을 못하고 성당비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성당비서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묻는다.

《왜 그러오? 우리 시대의 영웅인 유봉동무를 성으로 소환하는거야 너무도 웅당한건데...》

그제서야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비서동지, 너무도 웅당하다마다요. 저는 유봉동무와 오래동안 같이 지내여서 그를 잘 압니다. 공산대학시절과 성에 올라와 있는 기간을 내놓고는 내내 함께 있었습시다. 한데 유봉동무와 다시 가까이에서 일하게 된것이 참으로 기뻐서...》

《허허... 동무들의 사이가 그랬됐구만. 나도 기쁘오.》

내 심정을 리해한 성당비서가 머리를 끄덕이며

환히 웃는다.

《한데말요. 유봉동무는 성으로 소환되는데 별로 의견이 없겠지만 직동탄광당비서는 유봉동무를 놓아 주자고 안할수 있소. 탄광의 기동을, 아니 온 나라가 아는 탄부영웅을 왜 내놓자고 하겠소. 그래서 부원을 내려 보낼수도 있지만 과장동무를 그곳으로 보내는거요. 내 뜻을 알만하오?》

《알겠습니다. 제 꼭...》

《음, 꼭 그래 주오.》

나는 성당비서의 친절한 배려움을 받으며 무척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방을 나섰다.

집을 향해 걷는 나의 눈앞에는 지금으로부터 십여년전, 유봉이가 세살난 모란이를 등에 태우고 무릎걸음을 하면서 《평양 가는 놀음》을 하느라 방안을 돌아 가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고 방안을 한바퀴 돌 때마다 《아빠 어디까지 왔나?》 《순천까지 왔다.》 《아빠, 어디까지 왔나?》 《평성까지 왔다.》 《아빠, 어디까지 왔나?》 《평양까지 왔다.》 라고 묻고 대답하던 모란이와 유봉이의 명랑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귀에 쟁쟁히 되살아 났다.

(이제 유봉이와 모란이, 모란이 어머니인 옥순이가 평양으로 올라 오게 되었다는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가. 아마도 모란이는 철부지어린애처럼 짹짹을 치며 방안을 깡충거리며 돌아 갈것이고 속 깊은 옥순이는 눈으로 수건을 가져 갈것이며 항상 평양을 그리던 유봉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병글 병글 웃으며 놓지를 못할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모란봉골안에서 불어 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한껏 들이키면서 월향동에 있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2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군요.》

허리에 두른 새하얀 행주치마에 물 묻은 손을 문지르며 부엌에서 나온 안해가 내 가방을 받으며 빙그레 웃는다.

《그렇소. 어디 맞추어보오.》

나는 중년나이가 되었지만 처녀시절의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안해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이참, 내가 무슨 제갈량이라고...》

안해는 갓 시집 온 새색시처럼 밝그레 낯을 붉히며 말끝을 얼버무린다. 그러더니 나를 즐겁게 한 일

이 도대체 무엇일가 하고 생각하듯 쌍겹진 눈을 잠시 깜빡거리다가 옷팔에 발을 단다.

《여보, 좋은 일이 있었다는건 알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쿵스럽게 하지 말고 어서 말씀하세요. 거 왜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았어요.》

《허허... 그런 말도 있었던가?》

기쁨김에 한마디 빈정거렸으나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희열만은 도저히 묵새길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에 들어 서는 길로 래일 직동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했다.

《야, 그래요?》

단발머리 소녀애처럼 두손을 봉긋한 앞가슴에 꼭 모두어 잡으며 환성을 올리는 안해의 눈은 새별처럼 반짝이고 입가엔 웃음이 넘쳐 난다.

《오늘 아침 저 앞 백양나무가지에 앉은 까치가 초리를 달짝이며 유난스레 깹깹거리기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했더니 이런 기쁨을 예고하느라고 그랬었군요. 참, 당신이 직동에 가면 유봉아저씨와 모란이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와할가요?》

그러더니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잇는다.

《아마 그들과 헤어진지도 5년이 되지요?》

《그렇소. 정확히 말하면 4년반이 되요. 내가 유봉동무와 함께 지낸건 35년간이지.》

이렇게 대답하며 담배를 붙여 무슨 나의 머리에는 유봉이와 함께 보낸 지나 간 나날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 해 묵은 세월의 갈피를 헤치고 선히 떠올랐다.

...한마을에서 태어나 옥천강에서 해 저무는줄도 모르고 발가숭이로 물고기를 잡던 일이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때 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일, 한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군인들이 사회주의건설장의 어렵고 힘든 초소인 탄광, 광산으로 진출해야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고는 직동탄광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채탄3중대에서 함께 탄을 캐던 일. 한날한시에 가정을 이루던 일...

돌이켜 보면 나와 유봉이의 관계는 남다르게 인연이 깊고 운명적으로 딱 맞물려 있었다. 그러다보니 안해들의 사이도 여간만 자별하지가 않았다. 그들은 언니, 동생하면서 친자매이상으로 가깝게 그리고 다정하게 지내었고 조금만 색 다른 음식이 생겨도 들고 다니었다.

직동탄광에 와서 2년이 되는 해엔 우리 두 집에 경사가 생겼는데 나의 안해는 순남이를, 유봉이의 안해는 모란이를 낳았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나는 채탄3중대장으로 임명되고 유봉이는 중대세포비서로 선거 받았다.

그때 우리 채탄중대로 로동단련을 받고 나온 말썽군 일곱명이 배치되어 왔다. 그들은 로동단련을 받고 나왔지만 자유주의적인 습성을 말끔히 버리지

못하고 저희들생각대로 놀아 댔다. 입쟁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탄을 캐다가 힘이 들면 채탄장을 슬그머니 빠져 나와 으스스한 곳에 박쥐처럼 들어 박혀 잠을 자기가 일쑤였다. 동발도 건승 들이었고 석탄에 섞인 버럭도 모르쇠하고 탄차에 실어 내보냈으며 지어 다른 중대에 가서 점심밥박을 슬그머니 가져 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대는 갱적으로뿐 아니라 탄광적으로 석탄생산량이 제일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나와 유봉이는 총화때마다 비판대상이 되어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참다 못해 말썽군들에게 욕사발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유봉이가 그들과 개별담화도 하고 친절히 타일러도 주었지만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의 처사를 더는 용인할수 없어 틀어 권주먹을 흔들며 유봉이에게 격한 소리로 웨치다 싶어 말했다.

《유봉동무, 난 더는 참을수 없네. 말썽군들을 다른 중대로 보내자구.》

그러자 유봉이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나직안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학민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들이 다른 데로 갔으면 한달음에 달려가 빼내와야 할 동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그들을 다른 중대에 보내면 그 중대에서 애를 먹을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자기가 편안하자고 남에게 불편을 주어서야 안되지. 미워도 고와도 그들은 우리 채탄중대의 탄부들이야.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한 탄부로 키워야 하네. 그래서 중대장인 동무와 세포비서인 내가 있는게 아니겠나.》

학민동무, 나는 말일세. 어머니배속에서부터 영웅이 되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없듯이 말썽군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다고 보네.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진짜배기 탄부로 키우자구. 화살은 바위를 못꿰어도 락수물은 바위를 뚫는다고 했는데 그들과의 사업을 더 진공적으로 그리고 인내성 있게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이루어 질거네.》

그리고는 그들모두를 합숙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의 처사가 달갑지 않았으나 아이적부터 한번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마는 성미임을 잘 아는터여서 그가 하는대로 내버려 두는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유봉이는 그들과 침식도 같이 하고 출퇴근도 같이 했으며 탄도 한교대에서 캐 냈다. 한마디로 유봉이는 그들과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돌아갔다. 그때 유봉이의 심신이 얼마나 고되고 고달팠던지 입술이 가물 탄 논바닥처럼 터갈라 졌고 동그스름하던 얼굴은 반쪽이 되었으며 군대때 일흔두키

로나 나가던 채중은 신여덟키로로 줄어 들었다. 했으나 유봉이는 더더욱 강심을 먹고 석탄을 두세배로 캐 냈고 말썽군들이 계획을 미달하면 자기가 캐낸데서 빼주곤 했다. 그들이 말썽을 부려 욕을 먹게 되면 자기가 나서서 잘못을 빌었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한번도 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유봉이는 있는 정을 그들에게 깡그리 쏟아 부었다.

그러던 어느날 유봉이는 밤을 새워 가며 마분지를 오려 엄지손가락만한 천리마를 중대인원수만큼 만들었는데 천리마를 탄 기수는 《평양으로!》라고 쓴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있었다.

유봉이는 그 천리마를 중대경쟁도표판 매 탄부들의 이름우에 가느다란 쇠줄로 매달아 놓고 탄부들이 석탄을 캐 낸만큼 천리마가 날아 오르도록 했다.

말썽군들은 나래를 활짝 펴고 평양으로 날아 가는 천리마를 보면서 처음엔 유치원애들 놀음 같다고 웃었으나 며칠이 지나서는 맨뒤에서 달리는 자기들의 천리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말썽군들의 그러한 마음을 간파한 유봉이는 하루일이 끝나고 경쟁도표판앞에 그들만이 남았을 때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정을 담아 말했다.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뒤를 따르겠니. 사람은 남보다 앞서 나가야 사는 맛이 있는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날아 가는 천리마를 타고 뒤에서 어물거린다는건 탄부로서 썩어나니라 인간으로서 더없는 수치다. 분발하여 맨앞에서 날아 가야 한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신단 말이다.》

이러한 때 유봉이 못지 않게 마음을 쓴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유봉이의 안해인 옥순이었다.

옥순이는 갓난 모란이를 키우면서 유봉이와 일곱명의 《시동생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을 썼다. 《시동생들》을 참된 탄부로 키우려는 유봉이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옥순이는 속 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나 낯색 한번 흐리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하였으며 식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다른 부문도 그렇지만 탄 캐는 탄부들은 영양섭취를 잘해야 한다. 갱내 위생조건이 보장되었지만 탄부들한테는 술과 고기가 기본이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영양제식당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것이다. 하지만 옥순이는 국가에서 탄부들에게 주는 영양제에 만족하지 않고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가정집물을 팔아 오리새끼와 병아리, 강아지와 돼지새끼, 토끼를 사다가 오래에서 키워서는 유봉이와 《시동생들》에게 잡아 먹이기도 하고 채탄중대에 지원도 했다. 유봉이의 집들은 《작은 목장》이었다. 탄광편의협동에서 국수 뽑는 일을 하면서 한돌도 안된 모란이를 키우고 여덟명에 달하는 사나이들의 뒤바라지를 하고 《목장장》일을 겸해서 하자니 옥순이의 육신이 오죽이나

고달팠겠는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는 말 그대로 집안팎을 핑이처럼 돌아갔다.

막장에서 탄을 캐고 나온 유봉이와 《시동생들》이 옥순이의 바쁜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그는 상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 걱정 말고 탄을 많이 캐 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석탄만 많이 캐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기쁘게 하겠어요.》

말썽군들은 자기들을 친동생으로, 《시동생》으로 각근히 대해 주고 따뜻이 보살펴 주는 유봉이와 옥순에게서 친혈육의 정을 심장으로 감득했다. 그러자 그들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 졌다. 석탄을 계획대로 캐내지 못하면 안타까와했고 몸 달아했다. 그리고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영웅이 없듯이 어머니의 배안에서부터 말썽군으로 되어 나오는 사람도 없다고 한 유봉이의 말이 꼭 맞았다.

지내 보니 승벽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썽군들이었다.

그들이 탄 천리마는 평양으로 맨 앞장에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봉이는 나에게 탄광내 각 중대들에 월 1만톤의 석탄생산을 호소하자고 제기했다.

월 1만톤, 그것은 일찌기 그 어느 탄광에서도 있어 본적이 없는것으로서 대단한 착상이었으니 지금보다 무려 네배에 달하는 석탄생산량이었다.

나는 그의 제기가 마음에 들었으나 중대앞에 부과된 석탄생산계획을 금방 넘쳐 하기 시작한 터여서 다른 중대에 호소하는것은 몇달 뒤로 미루자고 했다.

《몇달 뒤로 미루자구? 거 학민동무답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구만. <날 따라 앞으로, 앞으로!>하던 동무 같지 않단 말야.》

유봉이가 웃음을 머금고 하는 말에 나는 낯을 붉혔다.

《학민동무, 소쩍은 단김에 빼렸대구 중대탄부들의 기세가 부쩍 올랐을 때 목표를 높이 세우고 힘껏 날아 보자구.》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봉이는 일단 결심이 서면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으며 반드시 실천하고야 마는 강직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중네. 탄광내 각 중대들에 월 1만톤의 석탄생산을 호소하자구.》

나는 장알 박힌 그의 크지 않은 손을 꼭 잡았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기름하며 성격이 차분하지 못한 나와는 달리 보통기에 얼굴이 동그스름하며 체소한 유봉이는 명민한 눈을 빚내이며 환히 웃었다.

《학민동무, 고맙네. 아마 이래서 우린 인생길을 내내 같이 걸어 온 모양이야.》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후에 나와 유봉이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내가 공산대학으로 추천

을 받아서 갔기때문이었다. 실은 그때 유봉이도 나와 같이 공산대학을 추천 받았으나 그는 둘이 다 떠나면 월 1만톤의 석탄생산을 호소한 중대는 어찌겠는가고 하면서 자기는 후에 갈터이니 나부터 기라고 했다. 공산대학 가는 문제로 그와 나사이에선 근 며칠간 서로 먼저 가라고 신경이가 벌어졌으나 결국 내가 또 지고 말았다.

그렇게 헤어진것 이 오늘에 이르렀다.

공산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성 부원으로 배치를 받았다가 과장이 되었고 유봉이는 채탄중대에 남아 월 1만톤의 석탄을 생산하면서도 탄광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그후 두뇌가 남달리 명석하며 학구적이고 정열적인 유봉이는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기사가 되었으며 다음엔 탄부학사가 되었고 지난해에는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력영웅, 우리 시대의 영웅이 되었다...

《여보, 직동에 가면 말이에요.》

김이 물물 피여 오르는 저녁상을 들고 들어 오며 하는 안해의 말에 나의 생각은 동강이 났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생각이 있겠지만요 유봉아저씨와 모란이 어머니에게 잘 얘기하여 여기로 올라 오도록 하세요. 제대군인에 당원, 대학을 졸업한 기사에 탄부학사, 게다가 말썽군들을 묶어세워 월 1만톤의 석탄을 짹짹 캐 내는 이름 난 영웅! 유봉아저씨가 여기로 올라 오는데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잖나요. 난 막 그들이 그리워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유봉이를 성으로 소환하기 위한 료해차로 직동에 간다는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안해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한다.

《그러지요. 당신 말대로 내 힘 써 보겠소.》

시원스러운 나의 대답에 어지고 마음 착한 안해는 자기의 소원이 금방 이루어 지기라도 한듯 고운 눈과 고운 입에 함뱀 웃음을 피워 올린다.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나의 심정은 여간만 가볍고 흐뭇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한가닥 비껴 있었으니 그것은 성당비서가 직동탄광당비서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가 유봉동무를 안 내놓으려 할수 있소.》라고 력점을 찍어한 말때문이었다.

(직동탄광당비서가 유봉이를 안 내놓겠다고 잡아 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래일 출장을 위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3

직동역 나들문을 나선 나는 탄광당위원회청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제대배낭을 풀고 로동의 첫 걸음을 내디딘 곳이

여서 그런지 아니면 단란한 가정을 이룬 곳이었는지 그런지 그도 아니면 유봉이가 일하는 탄광이었는지 그런지 감회가 컸다.

길을 걸으며 탄광마을을 둘러 보니 내가 있을때 보다 많이 달라 졌다.

길옆에는 새로 지은 3층 탄부주택들이 줄 지어섰고 역에서 탄광으로 곧게 뻗은 길은 매끈하게 포장되어 있었으며 거리와 탄광마을은 그 어느때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수 있게 깨끗이 꾸리였고 길다란 고정속보판우에는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고 쓴 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낮결을 지난 해가 밝고 따사로운 빛을 뿌리고 샛방에서 불어 내리는 바람이 몇년만에 직동으로 오는 나를 반기듯 봄가을외투자락을 가볍게 날린다.

나는 유봉이네 집에 들러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곧장 당위원회청사로 갔다.

접수에는 이목구비가 번듯한 젊은 당부원이 직일을 서고 있었다.

《당비서동지 계시오?》

나는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물었다.

《계십니다.》

당부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나는 2층으로 올라 가 《당비서》라고 쓴 표쪽이 달린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대답이 없다. 다시 문을 두드렸으나 묵묵부답이다.

(분명 계신다고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며 살며시 문을 열어 보니 금방 자리를 뜬 모양 파르스름한 담배연기가 서류와 전화기가 놓인 넓은 책상우를 떠돌고 있다. 들어 갈가하다가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어 물었다.

(유봉이를 성으로 소환하려고 한다면 당비서동지가 뭐라고 할가? 그가 유봉이를 내놓을수 없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가. 어떻게 말해야 그를 납득시킬가.)

직동으로 오면서 수십번을 자문자답한것이지만 정작 탄광당비서방앞에 서고 보니 다시금 술한 질문과 내나름의 대답이 떠오르면서 머리가 무거워났다.

나는 유봉이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성당비서말처럼 유봉이는 성으로의 소환에 두말없이 응할것이라고 여겼기때문이다. 아이적은 물론 군사복무시절에조차 평양을 그리도 그리워한 유봉이었다. 언젠가 나는 유봉이와 언 땅에 배를 대고 초소근무를 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캄캄한 밤하늘에 총총히 열린 못별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앞으로 평양 가서 과학연구를 하는 연구사가 되는것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군사복무여가에 수많은

과학기술서적을 탐독했다. 제대되어 탄광으로 와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쟁도표에 천리마를 탄 기수가 《평양으로!》라고 쓴 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달리도록 했다. 평양을 그리는 유봉이의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로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그러니 문제로 되는것은 역시 탄광당비서이다. 만약 그가 유봉이를 정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놓겠다고 할 때까지 며칠이고 들이 대자. 백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창가에 서서 분초를 따라 높아 지는 저탄장을 내다 보며 속으로 다짐하는데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났다.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탄광당비서다.

《비서동지,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나는 허리 굽혀 깎듯이 인사했다. 나보다 나이가 15년 우이기도 하지만 내가 제대되어 오기전부터 탄광당비서로 일하는 그다.

《아니 이게 유학민채탄중대장동무가 아니요?》

탄광당비서는 나를 탄광시절의 옛 직위로 부르며 반갑게 맞아 준다.

《그래 그새 잘 있었소?》

《잘 있었습니다.》

탄광당비서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 간 나는 그가 가리키는 의자에 앉았다.

《머리가 더 희어 졌습니다.》

《희어 졌지. 가는 세월 따라 먹는 나이 어찌겠소. 래일모래면 내 나이도 60이요. 하지만 마음만은 청춘에 산다오.》

그는 밝게 웃으며 책상우에 놓인 《건설》담배를 들어 나에게 권한다.

나는 사양했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며 금방 피우기도 했지만 옷사람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다.

《그 레절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만.》

탄광당비서는 이러며 담배를 붙여 물더니 집은 다 무고한가, 과장일이 힘들지 않는가, 아이는 몇이고 집사람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등을 묻는 나는 일일이 대답하고 나서 유봉이는 아직도 채탄3중대에서 일하는가고 물었다.

탄광당비서는 유봉이가 몇달전부터 채탄5중대로 가서 일한다고 했다.

《아니, 채탄5중대로 옮겨 갔단 말입니까?》

《그렇소. 3중대에서 월 1만톤의 석탄을 넘쳐 해내자 유봉동무는 제일 뒤떨어 진 5중대로 자진해갔다오. 그가 3중대를 떠나는 날 난 땀을 뻘소. 학민동무가 중대장을 할 때 말썽을 부리던 그 일곱명의 채탄공들이 나를 찾아 와 우린 유봉형님과 헤어질 수 없다, 우리도 5중대로 같이 보내 달라, 지난날 우리때문에 유봉형님이 술한 고생을 했는데 이제 5중대에 가서 또 마음고생을 하게 할수 없다. 이렇게

들이 대는게 아니겠소. 그들이 날 찾아 왔다는걸 알고 유봉동무가 와서 너희들이 이게 무슨 것이냐, 내가 없어도 3중대는 제발로 탄광의 앞장에서 걸어 갈수 있다, 너희들을 믿고 3중대를 떠나 5중대로 가는것이니 내 걱정을 말라, 정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과 인연을 끊겠다라고 해서야 그들이 내 방을 나갔다오. 지내며 볼수록 유봉동무는 마음에 드오. 참으로 훌륭한 탄부야.》

《비서동지, 바로 그런 훌륭한 탄부이기에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를 성으로 소환하자고 말입니다.》

《아니, 유봉동무를 성으로 데려 가겠단 말이요? 그건 안되오. 우리 탄광당에서 쓰려고 관리국에서 달라는것도 안 주었는데... 이젠 또 성에서?》

탄광당비서는 딱 자른다.

그러자 나의 머리에는 성당비서가 한 말이 다시금 떠올랐고 탄광당비서가 안 내놓겠다고 하면 어쩔가 하고 위구를 가졌던것이 결코 허황한 예견이나 추측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서동지, 물론 탄광당에서 유봉동무를 쓸수도 있고 관리국에서 그를 데려다 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적전지에서 볼 때 유봉동무가 성에서 일하는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제대군인에 당원, 대학을 나온 기사에 탄부학사, 탄광에서 말썽군들을 묶어 세우면서 다년간 일한 로력영웅, 이런 유봉동무가 성일군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는 성일군보다 더 높은 직무를 맡겨도 손색없이 수행할것입니다. 비서동지, 그의 창창한 앞날, 그의 발전을 위해 성으로 소환하는걸 막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진심을 담아 절절하게 말했다. 진심만이, 사심과 가식 없는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것을 지금까지의 생활을 통해 심장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허허 참...》

탄광당비서는 반백이 넘은 머리를 손으로 몇번 비다듬어 올리더니 시원스레 벗어 진 넓은 이마의 깊은 주름을 펴며 두툼한 입가에 함박꽃웃음을 띄운다.

《우리 탄광의 보배이고 기둥이며 전국이 다 아는 유봉동무를 탄광에서 내놓긴 아쉽지만... 내 욕심만을 채울수야 없지.

중대장동무, 그를 데려 가오. 성에 가서 여기 탄광에 있을 때처럼 서로 도우면서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 일을 더 잘해 주길 바라오.》

나는 그의 시원스런 대답에 눈곱이 찌릿하게 달아 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 탄광당비서동지는 역시 도량이 넓은 일군이구나!)

그는 탄광에서 채탄중대장으로 일하던 내가 공산 대학을 졸업하고 성으로 올라 갈 때도 바로 이렇게 진정을 담아 말했었다.

《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가슴속에 무척히 차오르는 걱정을 도저히 묵새길수 없어 가방을 열고 안해가 유봉이와 마시라고 넣어 준 룡성맥주를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그것을 본 탄광당비서는 손을 내저었다.

《중대장동무의 심정은 알만하오. 하지만 그것은 도로 넣소. 유봉동무와 오래간만에 만나겠는데 그의 집에 가서 지난날의 회포를 나누며 마시라구. 유봉동무가 을번교대에 들어 갔댔으니 지금쯤 집에 있을거요. 한데 그가 소환에 응하겠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만.》

《당비서동지, 그에 대해선 넘려 마십시오. 유봉동무는 아이적부터 평양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이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늘 평양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 평양이 그리웠으면 모란이를 등에 태우고 집에서 <평양 가는 놀음>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소? 그럼 수고하오.》

자리에서 일어난 탄광당비서는 환한 웃음을 얼굴 가득 띄우고 내앞으로 손을 내민다.

나는 그의 거룩진 손을 잡고 고맙노라고 거듭 인사를 한 다음 뒤로 돌아 섰다.

4

샷갓봉을 넘은 태양은 마지막기력을 다 내여 저녁노을을 장엄하게 펼치고 있었다.

나는 가슴속에 사품치는 기쁨을 안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유봉이네 집을 향해 걸었다.

지붕에 회색기와를 얹은 유봉이네 집은 탄광합숙 뒤 나지막한 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대되어 탄광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일곱명의 말썽군동생들과 함께 살던 바로 그 한칸짜리 단층집이다. 그 집앞에 서니 웬일인지 눈시울이 뿌יתה 지면서 유봉이의 인간됨이 새삼스럽게 생각되었고 그 언젠가 유봉이의 안해인 옥순이가 우리 집사람에게 보낸 편지구절이 떠올랐다.

《탄광에서는 새로 지은 3층집 세칸짜리로 이사하라고 우리에게 입사증을 여러번 떼주었어요.

하지만 모란이 아버지는 처음으로 살림을 편 집에 정이 더 든다면서 식구 많은 탄부들이나 새롭가정을 이룬 제대군인탄부들에게 집을 양보하군 했습니다. ...앞으로 직동에 오게 되면 옛집을 찾아주세요.》

나는 옥순이가 옆에 있기라도 한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모란이 어머니,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것입니다. 평양 가서 고충살림집에서 이웃하여 함께 살

게 되겠으니까요.)

그리고는 대문에 매달아 놓은 종을 힘 있게 울리었다.

부엌문이 열리더니 《누구세요?》하는 귀에 익은 옥순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고 찰찰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납니다. 유학민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누구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은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 서는 나를 얼 나간 사람처럼 멍청히 바라본다. 하더니 내앞으로 엎어 질듯 달려 오며 환희에 넘친 목소리로 《순남이 아버지, 그새 편안하셨어요?》라고 웨치듯 말하는것이였다.

《편안했습니다. 유봉동무랑, 아주머니랑, 모란이도 다 잘 있었습니까?》

《잘 있구 말구요. 순남이 어머니도 순남이도 무고한가요?》

옥순이는 나의 출장용가방을 받아 들며 묻는다.

《그럼요. 고틀 한번 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집 사람은 모란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막 야단이랍니다.》

《호호... 그래요? 제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전 순남이 어머니랑 이웃해서 살던 때가 정말이지 그림습니다.》

옥순이는 가쁜하게 박힌 흰이를 드러내며 밝게 웃는다.

《아주머니, 며칠만 참으십시오. 우리 또 가까이에서 살게 됩니다. 유봉동무를 성에서 소환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내려 왔습니다.》

《아이참, 어쩔...》

옥순이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기빠서 어쩔줄 몰라한다. 그러더니 《모란이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가.》 하고 웃말에 동을 단다.

《기뻐할겁니다. 무척...》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옥순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 갔다. 그런데 방에는 유봉이도 모란이도 없다.

《유봉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당비서동지의 말이 을번교대라고 하던데요?》

나는 옥순이가 권하는 방식에 앉으며 물었다.

《을번교대가 맞아요. 하지만 교대가 끝나도 인차들어 오지 않는답니다. 새로 옮겨 간 5중대에서 월 1만톤석탄생산에 리용할 새형의 채탄기를 만드느라구요. 참, 그 기결 오늘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도 늦어지겠군요. 내가 막장에 들어 가 보겠습니다.》

《막장에 들어 가다니요? 오느라 피곤하시겠는데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순남이 아버지가 오셨다고 알려졌어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막장에 들어 가 본지도 오래거니와 그전에 내가 일하던 곳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장에서 유봉동무와 만나는것도 인상적일테니까요.》

나는 출장용가방을 열고 룡성맥주와 비닐주머니에 넣은 마른명태, 옥순이에게 주라는 세타, 모란이가 먹을 당과류 등속을 꺼내놓았다.

《아이참, 빈손으로 온다고 누가 마다하겠기에 이런걸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허허... 뭐 별로 가지고 온것도 없습니다. 한테 모란이는 학교에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집에 왔다가 또 나갔어요. 국어선생님한테 동시 쓴걸 지도 받겠다면서요.》

《아니 모란이가 작가를 희망합니까?》

《그래요. 작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작가가 되겠다고. 해요. 참, 우리 집에서 너류작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호호...》

《영웅의 딸이 작가가 된다? 그참 좋은 일이에요.》

나는 이려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 났다.

《순남이 아버지, 막장에 들어 갔다가 곧 나오셔야 해요.》

옥순이는 대문까지 따라 나오며 정이 똑똑 흐르는 목소리로 꼭진하게 당부한다.

《그러지요.》

나는 흥그러이 대답하고 2갱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얼마후 작업복을 타 입은 나는 인차를 타고 막장으로 내려 갔다.

당장진 55뿔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질풍 같이 내달리는 탄부들의 드높은 기세와 열의가 한눈에 안겨 왔다.

막장으로는 빈 탄차를 줄느런히 뒤에 단 전차들이 덜커덩거리며 춤을 추듯 들어 가고 저탄장으로 가는 탄차마다 석탄을 가득가득 실은 전차들이 기세 좋게 달려 나간다. 그 탄차, 탄부들의 충성심이 깃든 탄차를 열렬히 배웅하듯 압축기며 송풍기, 굴진기며 채탄기가 교향곡을 울린다.

나는 빨간 머리수건을 바람에 날리며 얼굴 가득 웃음을 담고 전차를 몰아 가는 운전공처녀에게 손높이 들어 인사를 보내고 나서 2갱지령실에 들어가 석탄생산을 지휘하고 있는 부갱장에게 유봉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얼굴이 등글넙적한 부갱장은 유봉이가 5중대의 몇몇 탄부들과 함께 예비채탄장에서 새형의 채탄기를 시험하고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예비채탄장으로 갔다.

여라문명의 탄부들이 안전등을 번쩍이며 새형의 채탄기시험에 여념이 없다.

입술과 눈만이 제 빛이고 얼굴이 온통 새까만 그들속에서 유봉이를 인차 알아 보기는 힘들었다.

나는 한껏 긴장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방해가 될것 같아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채탄기가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 가는데 따라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 진다.

한참후 그들의 입에서 《성공이다! 성공!》 하는 환성이 터져 나오더니 서로서로 열싸 안고 돌아간다.

《세포비서동무,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 중대에서 이제는 1만톤석탄을 문제 없이 캐내게 되었습시다.》

체격이 우람찬 탄부가 보통기에 체소한 탄부를 언쩍 들며 막장이 좁다하게 깔걸거린다.

그제서야 나는 보통기의 체소한 탄부가 유봉임을 알아 보고 그앞으로 한달음에 달려 갔다.

《유봉동무, 축하하네!》

《아니, 이게 누군가? 학민동무가 아니야?!》

유봉이의 입에서 놀람과 기쁨, 반가움이 한데 어울린 말이 튀어 나왔다.

《그렇네. 학민일세.》

나와 유봉이는 철부지 어린애마냥 덩석 부둥켜안고 몇바퀴를 빙그르 돌아 갔다.

《화는 겹으로 오고 기쁨은 홀로 온다는 말이 괜한 소리였구만. 새형의 채탄기시험이 성공해서 월 1만톤의 석탄을 우리 중대에서 확고히 캐게 되었는데 학민동무가 흥길동이처럼 나타났으니말야.》

《그렇네. 한테 기쁨은 그에만 그치지 않네. 또 있으니까.》

《또? 그게 뭔데?》

《저탄장으로 나가며 얘기하지.》

《그러세나.》

유봉이는 이려고 나서야 나와 탄부들이 초면임을 알고 인사시켰다.

뒤겨두매를 하고 난 유봉이는 옆의 탄부들에게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쁜 날 한잔하는것도 멋이지. 동무들, 목욕을 하고 우리 집으로들 가지요. 학민동무도 왔는데...》

평시에 유봉이는 술을 알잔으로 한잔밖에 못했으나 기분이 좋을 때는 꼭 두잔을 했고 맥주만은 씩 좋아해서 병반을 했다.

《그럼시다.》

소탈한 탄부들은 기꺼이 응하며 자리를 떴다.

나와 유봉이는 그들의 뒤를 따라 저탄장을 향해 미끄러운 막장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래 기쁜 일이 또 있다는건 뭐가? 직동엔 어떻게 오구? 난 동무가 평양에 가더니 직동을 아예 잊

은줄 알았겠네.》

《원, 직동을 잇다니? 직동을 잇는건 소꿉동무인 유봉동무를 잇는다는건데 죽기전에야 잇을수 없지. 동무도 알다싶이 나야 원래 덜통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편지도 제대로 못하고 지냈다네. 이번에 직동에 온건 공적인데 아주 기쁜 일때문이야. 글썄 우리가 한기관에서 같이 일하며 가까이에서 다 살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데 있겠나. 우리 두사람은 아마 떨어 저 살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 같네.》

《원,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 거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하지 말고 직관 말하게.》

나는 몹시 궁색스러워 하는 그에게 싱긋 웃어 보이고 말을 이었다.

《유봉동무, 성당에선 동무를 성에 소환하기로 했다네.》

《나를?》

유봉이는 놀란듯 눈을 둥그렇게 떴다.

무척 기뻐할줄 알았던 그가 놀라와 하자 나는 대뜸 어안이 빙빙해 졌다.

《그래 탄광당비서동지는 만나봤나?》

《만나봤네.》

《그가 응하던가?》

《응하구말구. 판리국에서 데려 가려는것을 막구 탄광당에서 쓰려고 했는데 성에서 소환하겠다고 하니 동무의 발전을 위해 내놓는다고 했네. 막장에 들어 오기전에 집에 들려 모란이 어머니도 잠깐 만나보았는데 무척 기뻐하더구만.》

《음, 탄광당비서동지조차 찬성했던 말이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무척 기뻐하구...》

유봉이는 나의 말을 되뇌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걸기만 한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럴가?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걸기만 할가?》

속 답답해 하는 나의 심정을 넘보았던지 유봉이가 침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확민동무, 날 생각해 주는 그 맘 더없이 고맙네. 하지만 난 동무와 탄광당비서와 우리 집사람과 생각을 달리하네.》

《생각을 달리한다구? 그럼 성으로의 소환을 반대한다 말인가?》

나는 깜짝 놀라 반문했다. 그의 말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아서다.

《그렇네. 난 반델세.》

유봉이는 확답했다.

《아니,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인가?》

《진정이 아니구.》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렸다.

유봉이가 성으로의 소환을 반대하다니?... 평양

을 떠날 때도 그렇고 직동 와서 탄광당비서를 만날 때도 그렇고 지어 유봉이네 집은 물론 막장으로 들어 가면서까지도 나는 그가 성으로의 소환을 마다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다.

유봉이를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딱 잡아 뻘줄 알았던 탄광당비서가 크게 마음 먹고 데려 가라고 하여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이젠 됐구나, 성당비서도 나의 안해도 그리고 모란이 어머니도 정말이지 얼마나 기뻐할가 하고 여겼었는데 뜻밖에도 유봉이 자신이 반대하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있는가.

《원, 세상에! 평양이 그리도 그리워 모란이와 《평양 가는 놀음》까지 하고 《평양으로!》라는 글발을 높이 추켜 든 기수가 천리마를 타고 날아가는 모형까지 만들어 채탄중대경쟁도표에까지 붙이었던 유봉이가 어찌면 이리도 평양으로의 소환을 마다하는걸가. 지난날 언땅에 배를 깔고 조국을 지켜 냈고 제대되어 탄광에 와선 말썽군들을 진짜배기 탄부로 키운 유봉이, 해놓은 일이 적지 않아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까지 된 유봉이가 어찌하여 성으로의 소환을 그리도 반대하고 어렵고 힘든 탄광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걸가.》

나는 그의 심중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 재삼 권고했다.

《유봉동무, 인생길에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는걸 동무도 알고 있겠지? 제발 깊이 생각하길 바라네. 평양 가서 위대한 장군님 가까이 모시고 살면 오죽 좋은가.》

《...》

《난 말일세. 유봉동무가 평양으로 올라 간다고 하여 나무라거나 탓할 사람은 없다고 보네.》

《그렇겠지. 하지만 난 막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탄부들걸을 떠날수가 없네. 인생길을 일시 잘못 걸던 말썽군들을 바른 길로 들어 세워 한몫 당당히 하는 탄부로 만들고 지금 5중대로 가서 월 1만톤의 석탄을 캐내도록 금방 추켜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두고 성으로 올라 갈수 있겠나. 더우기 군대에서 단련된 제대군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회주의건설장인 탄광으로 가서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캐는데 앞장 서야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해야 할게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 제대군인 탄부들이 공훈탄부가 되고 탄부영웅이 되어 채탄장을 하나 둘 떠난다면 탄광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유봉이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낮으나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말이 난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구. 난 말일세,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가야만 그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네. 몸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장군님을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그이의 뜻을 실천적성으로 빛내이며 사는 사람이

장군님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하기에 우리 탄부들과 나는 석탄을 짹짹 캐내면서 지하천 척막장으로 깊이깊이 들어 가는 길이 평양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장군님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네. 그러니 날 성으로 데려갈 생각일랑 제발 말아주게. 소원이네.》

《!》

순간 나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듯 거세치게 높뛰었다.

아, 그래서 유봉이가 성으로의 소환을 그리도 마다했었구나. 김유봉에 비하면 평양으로 소환시키는 것이 그에게 더없이 큰 기쁨을 줄것이라고 단정했던 나의 생각은 얼마나 짧고 협소했는가.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 되고서도 도시생활과 높은 직급을 탐내지 않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석탄을 더 많이 캐내기 위하여 지압이 오고 석수가 쏟아지고 이슬이 돌는 지하천척막장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이 평양으로 가는 길이며 자나깨나 오직 장군님을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그이의 뜻을 실천적성으로 빛내이며 사는 사람이 위대한 장군님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유봉이!

탄전을 떠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내세워 주신 시대의 영웅이 될수 없다고 하는 유봉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인간중의 인간, 영웅중의 영웅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 자랑찬 2000년대의 본보기영웅이 아니겠는가!

속으로 열차게 부르짖는 나에겐 앞에서 막장길을 곳곳이 걸어 가는 유봉이가 마치도 거인처럼 안겨왔다.

(이제부터라도 내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것처럼 인생을 값 있게 그리고 빛나게 살리라!)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그의 뒤를 따라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출장임무는 비록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기쁨이 걸음걸음 그들먹이 차올랐다.

흙

(중국) 김 욱

-처음으로 고국의 흙을 쥐고-

내 두손에 흙을 쥐고
볼을 비비니
어린애처럼
눈물부터 앞섭니다

꿈결에도 그림던 시각이어서
이다지도 내 가슴 설레입니까
난생 쥐여 못본 흙이래서
이렇듯 눈앞이 가리워 집니까

겨레의 님이 스민 흙
조상들의 뼈 묻힌 이 흙은
갓은 수모와 전화속에서도
제빛을 거두지 않고 살아왔답니다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흙때문에 짓눌리고 쫓기고
흙때문에 처자없고 고향을 잃은
우리 민족의 지난날은

왜적에게 강산이 짓밟힐 때
할아버지 할머니 쪽박차고 떠나던 고향
양키놈들의 발톱에 나라가 신음할 때

포탄까지 주어 내며 걸구던 조선의 흙
제아무리 발악하며 미쳐 날뛰어도
이 땅의 이 흙만은 다 퍼가지 못했거니
아, 해빛 찬란한 오늘의 락원땅엔
피로 바꾼 우리의 흙이 숨 쉬고 있습니다

내 비록 이 흙우에서
걸음마 떼며 자라나진 못했어도
한줌의 흙이 못내 사랑스러워
입을 대고 울고 또 읊니다

포화에 그슬렸던 흙을
살점마냥 아끼고 가꾸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흙 천 두손이 가벼이 떨리거니

아 흙이여 조선의 흙이여
너의 품에서 오곡이 설레이고
너의 품에서 행복이 꽃 피고
너의 품에서 주체의 기치 나뉘거
아름다운 미래가 활짝 펼쳐 지리라

지워지지 않는 글

최성진

대외사업부에서 안내일을 하며 처녀때 아름다운 용모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류선옥은 세상에 태어나 서른두해를 살아 온 젊은 나이에도 순란치 않은 일들을 적지 않게 겪었지만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모진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방안을 넓게 차지한 커다란 해변침대우에서는 지금 원사이며 교수인 아버지 류지현이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림종의 시각을 맞이하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이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것이겠지만 마지막길을 가는 아버지의 정상은 딸의 가슴을 무딘 칼로 마구 허비는듯 했다. 분초가 다르게 전혀 딴사람같이 변해가는 아버지의 밀랍같은 얼굴이 류선옥에게는 조금도 공포감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그 모진 고통때문이었다. 아, 아버지! 이 딸이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대신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계의 거장으로 권위를 떨치던 시절에 그렇게도 당당하던 위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생명의 초불이 다 타버린 그우에 다만 애처로운 불꽃만이 있을뿐이었다.

그 불꽃마저도 이제 얼마 안있어 사위여지련만 아버지는 그 무슨 끈질긴 미련이 있는듯 거기에 가냘픈 입김을 불어보는것이였다.

《선옥이 아버지! 편히 눈을 감으세요. 저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세요. 올 사람을 기다려야지... 어디 오기나 할걸...》

넋두리 같은 어머니의 사설을 듣고 있던 류선옥은 의아하여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린다는거야요?》

어머니자신도 무아경속에 그 말을 뱉아 놓은듯 흠칫 놀라더니 노기와 질책의 뿔뿔한 기운이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류선옥은 금시 가슴이 싸늘해지는것만 같았다. 이 딸이 무슨 죄되는 말이라도 했단 말인가? 억울한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다.

《모르겠니? 영원히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

먼 하늘에서 울려오는 우뢰소리같은, 아니 그 어떤 령혼의 부르짖음같은 소리가 류선옥의 귀에 날아와 아프게 박혔다.

류선옥은 눈앞이 아득했다.

갈피 없는 꿈처럼 한순간 복잡한 사고가 혼탁되어 어지러이 떠도는 가운데 지나간 생활의 흔적인 하나의 형체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것은 차츰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석연히 그려 지기 시작했다.

불품 없이 체소하고 늘쌍 얼굴에 병색이 도는데다가 옷차림에서까지 류행에는 영 관심을 돌리지 않아 도무지 눈에 들어 오지 않는 사람, 고개를 깃수긋이 숙이고 있다가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다던가 왕청 같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하는 사람이였다. 그럴 때면 지어 낸 바보시늉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얼뜬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데 순박하게 생긴 커다란 두눈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자기 본위의 지점은 사고만이 비껴있곤 했다. 눈썹끝에 벼락이 떨어 진대도 그자세가 변하지 않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였다.

《동문 어찌면 그렇게 남의 생각 같은건 알고고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인가요? 아니면 무관심한척 하는건가요? 그게 수재의 표징인가요?》

《내가요? 아참, 이자 뭐라고요?》

《어마! 동문 정말!》...

그것은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자신은 평양을 떠나 먼 북변의 중요한 과학초소에 가 있다.

지금 아버지는 그 사람이 안고 올 성공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것이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몇해동안 온 심신을 기울여 기다려 온것이기도 했다.

류선옥은 세상을 떠나가는 시각에조차 불행한 딸의 운명보다도 제자의 일을 생각하는 아버지를 보니 더욱 눈물이 나왔다.

어찌면 아버지의 가슴속에 수년전의 노여움이 그대로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지나간 그 일이 어머니의 가슴속에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구나 하는 아픈 생각이 들었다. 고통속에 계시는 아버지앞에서 이 무슨 아니 할 생각이랑 하면서도 고까움과 원망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조금후에 숨결이 조금 고르로와 졌다.

다시금 의식이 든것이였다.

초점이 분명치 않은 병자의 눈은 천정을 향하고 있었다.

눈동자에는 한줄기 연약한 사고가 떠돌았다. 세

상에 갓 태어나 강보에 싸여있던 시절, 눈에 비쳐드는 모든것이 의문스럽고 신기하기만 하던 그런것과 같은 극히 단순한것이였다.

천정의 형광등이며 닭알색 라크칠을 한 출입문이며 방안을 차지한 가구들을 찬찬히, 마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의 비밀을 기어이 꿰뚫어보려는 듯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길이 딸의 얼굴에 가서 멎었다.

《아버지!》

설음에 짓눌린 가느다란 목소리가 류선옥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딸을 알아보고 무슨 말을 하고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아 모지름을 쓰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끝내 언어장애라는 어쩔수 없는 장벽앞에 무기력해진 자신의 처지를 통탄하며 두눈에 어설픈 미소를 띄웠다.

그것은 딸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쓸어주는 자애의 손길과도 같은것이였다. 류선옥은 비로소 아버지의 응심에 간직되어있는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였다.

류선옥은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은 아픔속에 문득 아득히 지나가버린 철부지소녀때 일이 떠올랐다.

류선옥이 인민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다. 아버지는 고양이를 그려넣은 반짝거리는 자명종을 사다가 딸의 잠자는 방에 놓아 주었다. 아침에 늦잠자리 말고 일어나 공부를 하라고 사온 자명종이였다. 창문으로 아침해빛이 살그머니 비쳐들고 류선옥이 따스한 담요속에서 일어나기 싫어질 때면 감쪽한 자명종은 알갭게도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 소녀의 게으름을 놀려주곤했다.

사내들처럼 벌췌던 소녀는 어느날 자명종을 책가방속에 넣어가지고 학교로 갔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 함께 공부하는 사내애가 자명종을 가지고 놀다가 따라랑-울리는 바람에 놀라서 바닥에 떨구었다. 자명종은 못쓰게 되었고 공부하던 아이들은 교실이 떠나갈듯 웃어댔다. 선생님은 성을 내지 않았지만 그런걸 가져오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선옥은 쿵쿵쿵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자명종이 못쓰게된 사연을 일러바쳤다.

당장 달려가 밭광스러운 사내애를 혼내줄줄 알았던 아버지는 《어-그 녀석이 그랬단 말이지!》 하면서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다음날 아버지는 딸애의 마음에 꼭 드는 지우개 두개를 사다 주면서 하나는 선옥이 네가 쓰고 하나는 옆에 앉는 동무에게 주이라 했다. 물론 고장 난 자명종은 너그러운 아버지가 인차 고쳐 놓았지만 이 별치 않은 사건은 후날 운명의 심술궂은 장난으로 하여 괴로운 추억으로 되고 말았다. 오영원이기 아닌, 그 자명종을 못쓰게 만들었던 총각이 류선옥의 티 없이 순결한 《호

수》에 뛰어 들어 마구 휘저어 놓은것이였다.

류선옥은 소스라쳐 놀라며 괴로운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버지의 숨결이 또 빨라 지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점점 흐리마리해 지는 의식속에 다시금 생명의 연약한 오리를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기 시작했다. 채빛 입술이 알릴듯말듯하게 움직였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것 같았다.

류선옥은 뭐라 그러는가고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그 사람이 오는가 나가보라고 하신다.》

조용해 졌던 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 나왔다. 병자의 흐릿한 의식속에서만 떠도는 무형의 《언어》를 어머니만이 해독한것이였다.

류선옥은 놀라움보다도 억이 막히였다. 천리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적이 일어 나 여기에 나타날수 있단 말인가. 흐려 진 의식속에서도 무슨 예감이 들었던 말인가?

《못 들었느냐?!》

어머니의 얼음장 같이 차갑고 엄한 목소리에는 의식을 잃은 환자의 허망한 요구일망정 아버지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거역해서는 안된다는 눈물 겨운 순종이 울리였다.

류선옥은 그것을 알면서도 원망인지 변명인지 자신으로서도 딱히 알수 없는 말을 하려다가 끝내 흑-흐느끼며 밖으로 달려 나갔다.

늦은 저녁이였다.

한적해 진 거리우로 궤도전차 한대가 살 같이 지나갔다. 전차소리가 잦아 들자 거리엔 인차 적막이 깃들였다.

류선옥은 가로등이 뿌옇게 비치는 전주아래에 초연히 서 있었다.

멀리 역사쪽에서 코트를 입은 작달막한 사나이가 크지 않은 손짐 하나를 들고 류선옥이 쪽을 향해 걸어 왔다.

류선옥은 자기도 모르게 사나이에게로 눈길이 갔다.

그 사람도 크지 않은 키였지. 저렇게...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할가! 그 사람을 기다리다니! 이런 모순이 또 어디에 있담!

류선옥의 눈앞에는 다시금 침대우에 누워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른거리였다.

《동무, 왜 그러오?》

잘 다듬어진 굵은 목소리가 기꺼이에서 울리였다.

류선옥은 머리를 들었다.

도수 높은 안경을 낀 한 사나이가 눈앞에 다가와서 있었다. 조금전에 역사쪽에서 걸어 오던 연회색 코트였다.

《가 보세요!》

류선옥은 무엇때문인지 그 번뜩이는 안경에 적의 감 비슷한것을 느끼면서 차갑게 내쫓았다.

그 사람은 어정쩡한 표정을 지어 보이다가 순순히 물러가 버렸다.

류선옥은 가로등 기둥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다.

×

어느해부터인가 류지현원사네 집에는 그의 별난 《친구》가 다니기 시작했다.

원사가 《우리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자강도의 어느 산골군에서 대학에 올라 왔다가 박사원생으로 떨어진 새파란 청년이었다.

일요일이면 하루종일이고 원사의 서재방에 붙어 있다가 늦어서야 돌아 가곤 하는 그 기숙사생 청년을 선옥은 눈 여겨 보지 않았다. 얼굴색이 창백한 자그마한 청년은 도시의 변화한 생활에 위축된 어리숙하고 용해빠진 젊은이인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그런것도 아니었다. 덜통해 보이기도 하고 싱거운 사람 같기도 한 종잡을수 없는 청년이었다.

어느날 원사네 집에 왔던 청년은 무슨 일 때문인가 바지주머니를 뒤지다가 우연히 나온 자그마한 종이쪽지 한장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체신소가 어디냐고 류선옥에게 물었다.

대학 울타리옆에 있는 체신소를 몰라서 묻는 그를 보며 류선옥은 세상에 이렇게까지 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이 또 있을가 하는 생각에 아연해 졌다. 선옥이 혹시 자기를 놀리는 소리가 아닌가 해서 《정말 몰라요?》 했더니 청년은 《잊어 먹어서...》 하고 더욱 기가 막히는 소리를 했다. 분명 체신소 위치를 잊어 먹었다는 소리였다.

청년은 상대방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듯 주머니에서 나온 너털너털해 진 그 종이쪽지를 주면서 소포를 찾아다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했다. 그 제서야 그 종이쪽지를 보니 한달전에 받은 소포통지서였다.

청년이 나간 다음에 류선옥은 웃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무슨 사람이 그래요? 소자가 몇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무슨 원서를 들여다 보던 류지현이 안경너머로 딸이 야단 떠는 모양을 의아해서 바라 보았다.

《글쎄 체신소를 잊어 먹었대요. 늘 지나다니는 체신소를. 게다가 날 보구 소포를 찾아다 기숙사에까지 갖다 바치라질 않아요.》

원사는 그제서야 빙긋이 웃었다.

《그래 주려무나. 혹시 알겠니. 그 사람이 우리 집의 나리꽃을 꺾어 가게 될런지 말이다.》

《어마! 아버지두! 멋쟁이들이 하 많은데 부디 그런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총각이다. 걸만한 든 사람보

다 속멋이 든 사람이 멋쟁이야 멋쟁이지. 형식이 내용을 규정 짓는건 아니거든.》

《아버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수재예요?》

류선옥은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우리 친구는 체신소는 잊어 먹었지만 별들의 자리길을 계산하는 사람이지. 우주라는 무한대를 안고 사는 미래의 원사선생님이야. 우리 나라엔 그런 원사가 많아야 해. 그래야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게 아니냐.》

며칠동안 청년은 웬일인지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더니 하루는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

류선옥은 깜짝 놀랐다. 《미래의 원사》는 며칠 사이에 몰라 보리만큼 초췌해 졌다.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은 누렇게 뻘으며 입술은 초창초창 말라버렸다.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기숙사 호실에 누워 앓는 것을 데리고 들어 왔다고 했다.

청년의 정상이 어쩌나 한심해 졌는지 류선옥은 막 측은하고 동정이 갔다.

아버지의 서재에 자리를 깔고 환자를 눕혔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 한동안 무엇인가 조용히 상론했다.

류선옥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 오니 장마당 출입을 별로 하지 않던 어머니가 장을 봐 가지고 왔다.

어머니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비닐구력안에는 통닭이며 찹쌀, 물고기류며 신선한 과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웬 돈이 그렇게 많아요? 늘 아껴 써야 한다고만 하시던 어머니가 웬 일이에요? 저명한 원사선생님의 본부이신가요? 원사선생님의 <친구>를 병구완하는데 쓰자고요?》

《알면서 그러누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딸이 그런 선량한 미소가 피어났다. 상냥한 장난꾸러기 외동딸은 정숙한 학자의 집안에 웃음을 가져오는 존재였다.

류선옥은 어머니를 도와 청년의 병구완에 마음을 썼다. 고열에 신음하는 환자 곁에서 밤새 시중을 들었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 오면 그의 입맛을 돋궂 주기 위해 찬거리들도 만들었다.

한주일 지나서 환자는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병을 털어 버리고 기숙사로 나간지 며칠이 지나서 류선옥은 어머니의 값 비싼 털자켓트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론하여 털자켓트를 수매상점에 수매하고 결국 그 돈으로 환자에게 쓸 고급 식료품이며 보약을 사온것이였다.

류선옥은 사연을 알자 눈물이 나왔다. 원사네 집에 옷이 없어서가 아니였다. 그 털자켓트로 말하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 해서 아껴 입는 옷이였다. 속털이 심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겨울이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런 사정을 다 아시는 아버지가 그걸 없애게 했단 말인가!

《아버진 뭐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는게 뭐가 있어요. 일생 그랬을거예요.》

류선옥은 자기의 항변이 물 먹은 담벽처럼 무너지리라는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애용품이 영영 없어 진게 알곤해서 부르짖었다.

《애야, 그만하지 못하겠니!》 어머니가 엄하게 질책했다.

아버지는 천정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며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참만에야 죄책의 한숨을 피롭게 그으며 입을 열었다.

《네 말이 옳다. 선옥아. 이 아버지는 한생을 살아오며 어머니한테 고생만 시켰다. 집안의 진일 마른 일은 연약한 네 어머니의 등에 다 얹어 주고 언제 한번 따뜻이 위해 준적이 없었다.》

류선옥은 그 말에 가슴이 찢듯해서 할 소리가 없어 졌다.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가 들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한달후에 그 오영원이때문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명백치 않은것이 있다.

그날 집에서는 세식구가 오붓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성난 사람처럼 원사네 집 문을 탕탕 두드렸다.

류선옥이 웬일인가 해서 나가 보니 뜻밖에도 오영원이 후줄근해서 서 있었다. 그는 류선옥의 찌프러진 얼굴을 보고서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봤던지 몇 적은 웃음을 어설픈게 지어 보였다.

원사는 식사를 하다 말고 자기의 《친구》를 서재방으로 데리고 들어 갔다. 찾아 온 용무나 알아보는것으로 인차 이야기가 끝날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밥상위의 국이 다 식어 버리도록 내려 오지 않았다. 무슨 심중한 이야기라도 오가는것 같았다.

그바람에 단란하던 식사분위기는 깨지고 말았다.

류선옥은 차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서재방의 동정에 신경이 갔다.

닫겨진 문밖으로는 뜻밖에도 여느때없이 성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노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푸들푸들 떠는 모습, 거친 숨소리, 터질듯 팽팽해진 방안의 무거운 공기가 눈에 보이듯이 감촉되어 왔다. 주눅이 들어 버린 청년은 그래도 고집스레 무엇인가 자기 변명을 하느라고 안간힘을 써보는 모양인데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화를 더 돌고어 놓는것 같았다. 《그만하라구!》 하는 아버지의 거의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가 울리었다. 그다음엔 한동안 조용해 졌다. 그시각 왜서인지 류선옥은 한순간에 자기의 위엄을 깡그리 잃어버린 아버지의 처량한 모습을 보는것만 같아 마음이

언짢았다. 까닭 모르게 떠오르는 그 생각에 류선옥은 스스로 자신에게 화를 냈다.

이윽하여 한결 가라앉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 졌다. 도간도간 가까스로 들리는것은 론문이 어쩐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속에 울리는 아버지의 감정은 여전히 심상치 않았다. 노여움과 준절한 질책 그리고 그밖의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엉켜있는 목소리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서재방의 문이 열리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청년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나오더니 인사불성이 되어 떠나갔다. 어머니와 딸은 그러는 청년을 측은하고 두려운 눈길로 지켜 보며 굳어 졌다.

다른 때 같으면 문가에 따라 나와 잘 가라고 배려 주었을 아버지이지만 그날은 서재에서 나오지조차 않았다.

무엇인가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류선옥은 조심히 문을 열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 갔다.

선옥은 가슴이 섰눅했다. 아버지는 얼굴색이 컴컴해서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실은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차탁우에는 오영원의것이 분명한 원고 봉테기가 펼쳐진채 되는데로 놓여 있는데 그 옆에 낮익은 알약병이 보이였다. 아버지가 로년기에 이르러 혈압이 높아지면서 비상용으로 넣고 다니는 알약병이였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 간것 같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류선옥은 불안에 싸여 물었다.

《그 사람이 다 된 론문을 포기했다. 이즈막에 와서...》

《아버지, 그때문이에요?》 류선옥은 의혹에 찬눈으로 아버지를 세세히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명 류다른 고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더 해 주지 않았다.

류선옥은 불안을 안은채 방에서 나왔다.

서재에선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선옥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 들지 못하였다. 신경은 더욱 예민해져서 서재방에만 쏠리였다.

아버지는 그 어떤 운명적인 고민이라도 하는것 같았다.

선옥은 집안에 불안의 선풍을 몰아온 청년을 원망했다. 그가 무슨 억하심정에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까지 노엽혔단 말인가!

류선옥은 어쩌다 겨우 잠이 들었다. 깊은 밤이었다. 난데없이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선옥은 놀라서 깨어났다.

서재에서 울려나오는 아버지의 이상한 웃음소리였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중의 그 웃음소리가 별로 높고 기괴하게만 들리어 어머니와 딸은 몸을 움송그리다가 소스라치며 일어 나 웃방으로 달려 울

라 갔다.

그때는 이미 웃음소리가 찾아 들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버지는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오락가락했다. 아버지의 온몸은 흥분으로 이글이글 타번지는것 같았고 눈은 상상속의 거대한 세계를 날으는듯 번뜩이었다.

그것은 류선옥이 지금껏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아버지의 미친듯한 흥분, 아직은 뭐가 뭔지 알수 없는 논리성을 잃어버린 열띤 말마디들이 결코 불길한 예감은 주지 않았다.

원사는 한참만에야 문가에 어리둥절해서 서있는 어이딸의 존재를 알아보고 왕창같은 소리를 했다.

《선옥아, 우리 산보나 나가자꾸나!》

그 소리가 류선옥에게는 마른 하늘에서 울려오는 우뢰소리만큼이나 놀라게 들리었다. 정말 아버지가 실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운 생각조차 들었다.

《아버지, 지금이 몇진줄 아세요?》

원사는 꺾걸거리었다.

《뭐라느냐. 여보 선옥이 어머니, 당신도 함께 나갑시다.》

원사는 제잡담 밖에 나갈 차비를 서둘렀다.

어이 딸은 영문을 알지 못한채 어쩔수없이 따라나섰다.

류선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를 가거나 한가로운 산보길에 나서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 밤중의 《산보》가 더욱 터무니없이 여겨 졌다.

《아버지, 어디로 가자요?》

밖에 나오자 딸이 물었다.

《응, 아무데건 가자꾸나!》

세사람은 중심거리에 나섰다.

고요에 무젖은 밤이었다. 땅우의 모든 생명체는 안식에 들었는데 하늘에는 별들이 한가득 돌아갔다.

《좋구나! 저 하늘을 봐라. 얼마나 좋은 밤이냐. 여보, 선옥이 어머니.》

원사는 사람을 속삭이던 젊은 시절이 되돌아온듯 다정한 목소리로 안해를 불렀다. 그는 머리우의 별바다를 손들어 가리켰다. 제자들앞에서 흑관우의 무수한 공식들을 가리키듯 밤하늘의 신비로운 세계를 가리키며 열정에 넘쳐 속삭이었다. 《저기 저 별은 오리온성좌라고 한다오.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저 별무리는 곰의 자리라고도 한다오. 그리고 저건 무수한 환상을 낳는 신비의 세계이지. 저 은하수말이요. 당신도 견우와 직녀에 대한 옛말이 생각날거요. 저 은하수가 많은 민화와 전설들을 낳았거든. 그런데 저 은하계는 꿈과 환상속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는 물질세계라오. 과학은 이미 오래전에 저 아름다운 우리 은하계만도 1,500억개나 되는 크고 작은 별들의 집단이라는것을 알아 냈다오. 마젤란

별구름이라든지도 있소. 16세기에 세계를 일주한 마젤란이 항해도중에 발견한 별구름이지. 저기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 빛의 속도로 190년을 날아 가면 안드로메다라는 별구름도 있다오. 우리 집의 어여쁜 <외교관>과 같은 처녀이름을 단 처녀자리라는 별무리도 있다오. 우주는 끝이 없다오. 그래서 무한계라고 하지.》

《됐어요. 원사선생님.》 류선옥은 아버지의 무한계에 놀라서 눈이 둥그래 지는 어머니의 순박한 소녀 같은 모습을 보자 조금전의 어정쩡하던 기분을 말짱 잊고 깔깔 웃어 댔다. 《정말 오늘은 어찌된 일이세요? 수학의 저장께서 갑자기 천문학자가 되신것 같군요. 어머니앞에서 천문학강의를 하시는거예요?》

《천문학강의라... 우리 <외교관>아지미는 저 무한계에도 수학이 있다는것을 잊어 버린게 아니냐? 허허...》

원사는 아득한 하늘을 올려다 보며 따뜻하고 그 지없이 부드러운 아버지의 손길로 딸을 꼭 껴안았다.

류선옥은 오늘밤 아버지를 흥분케 하고 무한정 너그럽게 한 그것이 무엇일가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나름의 추측을 했다. 그는 생글생글 웃으며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미래의 원사>가 새로운 은하계라도 발견했나요?》

《<미래의 원사>란 말이지. 네 말이 옳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원사가 될게다. 이 아버지세대를 경중 뛰어 넘어 저 무한계로 날아 갈 야심을 키우는 젊은이야. 하긴 그래야지. 응당 그래야 하구말구! 우리 장군님께서 20대, 30대의 박사, 학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난 이제야 깨닫는것 같구나! 우리 <친구>가 오늘 새로운 발견을 했다!》

원사는 갑자기 침묵에 잠기었다. 고뇌! 그렇다. 딸의 눈으로만 알아 볼수 있는 이상한 고뇌의 빛이 그의 부엌부엌한 커다란 얼굴을 편뜩 스쳐갔다.

원사는 한참만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조용히 뇌이였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건 우리의 량심이고 의무이지. 그래...그래...》

류선옥은 의혹의 눈덩이를 굴리며 아버지를 주시했다. 자신을 짓누르는것 같은 그 목소리, 아버지의 그 눈물 겨운 환희와 걱정의 뒤에는 확실히 딸한테 조차 말하기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또 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

류선옥은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온 동네가 잠자리에 들어 있는데 자기 집 창문에서만 불빛이 새여 나왔다. 이 시각도 아버지는 먼

복방에 가 있을 제자를 기다리며 고통의 심연속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류선옥은 인적 없는 거리에 홀로 나와 오지 않을 인간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어이없게 생각되었다.

그래도 눈길은 역사쪽으로만 날아 갔다. 정말이지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 나 그 사람이 불쑥 나타날수만 있다면! 그러면 생명의 경각에 이른 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던듯 별떡 일어 날것만 같았다.

파랗한 빛에 싸인 역사쪽에서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 왔다.

그 소리가 잦아 들자 거리는 다시 교요에 휩싸였다.

녹록해 진 대기가 옷짍으로 스며 들었다.

행복한 인간들이 요람속에 든 창문들을 올려다보느라니 류선옥은 생활이 모두 자기 하나만을 외면하고 멀리 달아나 버린것만 같아 불시에 고독해졌다. 이제는 아버지마저 이 딸에 대한 원망을 안고 저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하지 않는가.

다시금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머리속에선 어지러운 상념이 떠오른다.

생활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자기 세대는 좋은 세월에 나서 자란 세대이며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꽃나이 그 시절, 류선옥이 스물다섯살 나던 해였다.

아버지가 생일을 맞는 딸을 위해 뜻밖의 기념품을 사들고 퇴근해 왔다. 붉은 진주색의 값 비싼 구두였다.

류선옥은 행복했다. 구두가 마음에 꼭 들어서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것이었다. 학문의 세계에만 파묻혀 처자의 일에는 통 관심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였다.

선옥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번 아버지의 의사를 거슬렀다. 아버지는 딸이 어렸을적부터 앞으로 커서 과학자가 되기를 소원했고 그때문에 공과계통의 대학생이 된것을 기뻐했지만 선옥은 졸업후에 대외사업기관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가 하는 일이란 주로 외국인 학자대표단을 대상하는 것이었다.

졸업담화때 선옥은 그 일도 과학사업과 관련된 것이니 중요하다고 자신을 위안하며 웅낙했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 너를 믿고 맡겨준 초소인데 일을 잘하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딸이 과학연구기관에 들어 가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서운해 하는 기미였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류선옥은 생각했다.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소박한 음식상이 차려 졌다. 상우에는 어머니가 빚은 꽃송편이 올랐다. 붉고

푸른 색감을 먹인 꽃송편은 류선옥이 좋아하는 것이여서 생일때마다 꼭꼭 오르곤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화기로운 분위기가 떠도는 가운데 얼굴이 불그레해 진 아버지가 웬일인지 심중해 지며 딸을 바라보았다.

《선옥아, 이제 말이다, 이 아버지앞에 솔직히 말해 보렴. 너 애인이 있느냐?》

류선옥은 너무나도 생각밖의 질문에 한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한참만에야 기겁을 하며 웃어 댔다.

《아버지두, 그런 말쯤 다 하세요?》

《다 큰 딸을 둔 아버지가 아니냐. 네 나이에 사랑 하는 젊은이가 있다면야 좋은 일이지. 이 아버지도 봉건은 아니다.》

결코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것을 깨닫자 류선옥은 왜서인지 두려웠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없다고 했다.

《그럼 됐구나.》 딸에게서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듯 아버지는 한결 밝아 진 목소리로 《오영원이 그 사람이 어떡냐?》 하고 물었다.

류선옥은 어이없어 입이 굳어 저 버렸다.

눈앞에는 체소하고 앓기 잘하는 수재청년의 모습이 얼른거려졌다.

선옥은 《미래의 원사》와 자기의 일생문제를 편관시켜 생각해 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싱싱하게 자라 올라 푸른 숲가의 한떨기 나리꽃처럼 못 눈길들을 끌며 활짝 피여 난 처녀의 가슴속에는 그 나이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럴수 있는 허영과 교만보다도 이상한 리기심이 잠복기의 균처럼 박혀 있었다. 아마도 야릇한 외국제 향수내가 풍기는 화려한 옷차림들, 상냥하고 친절 한 미소와 무리등의 현란한 빛에 싸인 풍만한 생활에 습관되면서 은연중 감염된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생활이 그에게 준 많은 훌륭한것들중에서 유일하게 처녀의 운명을 불행의 나락에 빠뜨릴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선옥은 자기의 배우자가 될 남자는 어딘가 다른 데 있으며 생활반경이 넓고 모든것이 세련된 현대 풍의 사나이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오영원에 대하여 관심하는 것이 있다면 평양에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몸이 약하고 앓기 잘하는 수재청년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 그럼 저를?...》

류선옥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 나오는 말끝을 얼른 사리며 장판우에 놓여 있는 붉은 진주색 구두에 눈길을 보냈다.

쉴쉴한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이란 모두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인가?

류선옥은 머리가 어질어질 했다.

혼탁된 상념을 밀어 내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날아 와 박혔다.

《그 사람은 이제 박사원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간다. 말하자면 우리 과학의 정수라고 해야 할 그런 부문에서 일하게 된다. 그곳은 여기보다 생활조건이 어려운 곳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네가 아는 것처럼 몸이 약하다. 게다가 네가 모르는것도 있다. 그 사람한테 고질적인 병이 있다. 육체를 다 파먹을수 있는 못된 병이지. 당에서 맡겨 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채 쓰러질수 있다. 난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네가 그와 한생을 같이 하는 좋은 길동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거다.》

언젠가 류선옥은 파뿌리처럼 세여 버린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 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어머닌 처녀때 굉장한 미인이었다는데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왔어요?》

《원, 너두. 아버지가 어쩔다는거냐?》

《한 녀자를 행복하게 해줄만한 훌륭한 세대주는 못 되지요 뭐. 물론 우리 원사선생님이 명예의 상상봉에 우뚝 솟아 있는건 사실이야요. 하지만 그게 곧 어머니의 행복으로 되는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어머니를 위해 주는게 뭐가 있어요? 아마 우리 집처럼 못을 많이 박은 집은 없을거예요. 다른 집들에선 고급가구들로 장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처럼 못을 박지요. 난 어머니가 참 불쌍해요. 아버지 과학밖에 모르시는데 어머닌 그 아버지를 위해 한생을 고생만하시느라 이렇게 머리가 다 썩거던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머닌 머리가 빨리 썩대요.》

《어찌했니. 그게 이 어머니의 운명인걸.》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슬픈 미소가 떠 올랐다.

선옥은 그것이 고생속에 덧없이 흘러 보낸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 보는 어머니의 쓸쓸한 추억처럼 생각되어 가슴이 아리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 게도 닥치게 될 선택의 순간을 생각하고 겁이 났다.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온것이다. 그런데 생활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다름아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고 있는것이다.

《말해 보렴.》

아버지가 재촉했다.

류선옥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 길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눈물이 나왔다. 그럴수록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버지.》 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참만 예야 입을 열었다. 《용서하세요. 전...》

《...》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피로한 한숨을 내그었다.

《됐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나지막한

소리로 웃었다. 분명 딸의 생일날에 분위기를 더 흐려 놓고 싶지 않아 애써 웃음이였다.

《용서해라. 난 네가 학자네 집안에서 태어 난 딸이니 어련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했구나.》

아버지는 서재로 올라 갔다.

류선옥은 흑-흐느끼며 어머니의 무릎위에 쓰러졌다.

《어머니!》 쉽게 우는 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한껏 무겁게 했다. 《어쩌면...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만해라. 아버지를 원망해서는 안된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는거야 알지 않느냐.》

류선옥은 울음을 그치고 머리를 들었다.

《사랑하신다구요? 사랑하신다구요?》

《너 그만하지 못하겠니!》

어머니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하얗게 질리었다.

《어자어자하며 키워서 철이 덜 들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세상에 자식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네가 행복해 지기를 바라신다. 그 나이에 아직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다니!》

어머니의 입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류선옥은 펴 후날에야 그 한숨의 의미를 이해할수 있었지만 그날밤엔 모든것이 어이없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아침에 아버지는 여느때와 같이 식사를 하고 일찌감치 출근했다.

그때까지 누구도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당반우에 올려 놓은 한컬레의 새 구두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시였다. 구두는 마치도 어수선했던 공기가 흐르는 방에서 제나름의 피로움을 무엇으로 감싸고 있는 어리석은 주인들을 조롱하는듯 했다.

저녁에 아버지는 자기의 《친구》를 또 데리고 들어 왔다.

류선옥은 딸의 처지는 아랑곳 없는 아버지의 처사를 두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자기가 스승의 집안에 어떤 바람을 몰아 왔는지 알수 없는 청년은 언제나와 같이 그 싱거울사 해보이는 웃음을 띄우며 모녀에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남자들을 위해 음식상을 마련했다.

그날은 청년과학자 오영원이 평양을 떠나는 날이였다.

밤이 이속해서 청년은 원사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류선옥이 아래방에 있는줄 알겠지만 굳이 찾지 않았다. 아마도 남자들끼리 무슨 말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집안에 떠도는 이상한 공기를 감촉한듯 했다.

오영원은 그렇게 떠나 갔다.

몇해가 지나 원사앞으로 한장의 편지를 보내여왔다.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의 생일 일흔둘에 찾아 뵙지 못하는 이 못 난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선생님,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든지 꼭 선생님을 기쁘게 해 드릴 귀중한 소식을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양을 떠나 오던 날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우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조선의 과학자들이다. 나라의 과학을 하루 빨리 세계의 최첨단에 올려 세우는 일이야말로 지금은 나라의 존엄을 빛내이고 우리의 장군님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날에는 선생님의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책감때문이였습니다. 선생님의 기대와 노력이 깃든 자기의 논문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제자, 선생님의 가슴에 영원히 뽕혀 지지 않을 아픈 못을 박았을수도 있는 매정했던 제자의 죄책감때문이였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를 웃으며 바래 주시던 선생님의 그 말씀의 고결한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가슴속에 단순한 지식만이 아닌 조선의 과학자로서 일생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가장 귀중한것을 새겨주시였습니다...

류선옥은 아버지를 따라 나갔던 아닌 밤중의 그 어처구니 없는 《산보》가 생각났다. 오영원이 편지에 쓴 《영원히 뽕히지 않을 못》이란 무엇인가? 류선옥은 그 《못》이 자기의 가슴에도 깊숙이 박혀있는것 같은 동통을 느끼었다.

이즈막에 와서 선옥은 남자들의 일에 대하여, 그들의 세계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의사를 기억한 후회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하지만 그것은 때 늦은것이였다.

제자의 편지를 받은 날부터 아버지한테서는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 났다. 아침이면 어느때보다 더 일찍 출근하느라 동자질을 하는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고 퇴근해 와서는 밤 늦도록 서재에서 일을 했다. 전에 없던 우스개소리를 하여 어이말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변화속에서도 무엇때문인가 초조해 하는 기색이 언뜻언뜻 나타나곤 했다.

그러한 아버지를 지켜 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우수가 비끼었다. 그것이 말에 대한 원망과도 관련되는것임을 선옥은 비슷이 느끼고 있었다.

그 무렵 원사의 집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어느날 류선옥을 만나러 손님이 찾아 왔다.

련락을 받고 나가 보니 잘 생기고 웃도 잘 입은 청년이 정문앞에 서서 선옥을 향해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선옥동무.》

대뜸 알아 보며 이름을 부르는 그가 누군가 서서 세세히 바라보던 류선옥은 《어마나!》하고 놀라며 얼굴을 붉히었다.

인민학교때 옆자리에 앉아 공부하던 학생, 류선옥의 자명종을 못쓰게 만들었던 《장난군》이였다. 《어떻게 여길 다 찾아 오셨어요?》

《원사선생님의 따님을 만나 보러 들렸지요. 여기서 일한다고들 말하더군요.》

청년은 그러며 여전히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빙글빙글 웃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무역기관에 소속되어 재외에 나가 있다가 얼마전에 귀국했다고 했다. 동창생청년은 그후에도 지나 가다가 들렸노라면서 류선옥의 직장 정문에 나타나곤 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는 성대한 무도회가 열리었다.

축포가 오르고 눈 부신 빛깔이 하늘을 가르는 광장의 밤, 수만의 청춘남녀들의 춤바다가 설레었다.

두사람은 거기서 춤을 추고 나오다가 대동강유보도에서 만났다.

그때 동창생청년은 청혼을 했다.

《영원히 사랑하겠소. 나의 아름다운 황금새를 이 품에서 놔주지 않겠단 말이요!》

류선옥은 불시에 멍금처럼 날아 든 사랑앞에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그때로 말하면 오영원을 두고 집안에서 있었던 일로 하여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던 선옥이였다.

차라리 빨리 결혼해 치우는것이 마음속의 상처도 메우고 가정의 평온도 되찾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약혼식을 치른 날 저녁에 선옥은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로 찾아 올라 갔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애야, 부디 잘 살아라.》

아버지는 딸을 축복했다.

인차 결혼했다.

어느날 남편은 출근을 앞두고 거울앞에서 옷차림을 살펴 보며 지나가는 말로 이런 소리를 했다.

《동무 아버님은 그래도 이름난 원사선생님인데 사는건 왜 그렇소? 너무 소박하더군요.》

남편이 실없는 룡담을 하는줄 알면서도 선옥은 자존심이 상하는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그럼 요란한 부자나 되는줄 알았어요? 거기선 원사의 사위가 된걸 후회하는건 아니예요?》

《아니, 난 재산을 보고 청혼한건 아니니까. 나한테 동무 하나면 되요. 그런데 말이요. 생활은 그렇소. 말하자면 사람마다 존재의 기초는 체나름이란 거요. 명예는 얻기 힘든것이지만 동무의 아버지는 명예를 얻었고 그것으로 세상에 존재하거던.》

《뭐라고요?!》 선옥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의혹은 점차 본격으로 화했다. 결혼후 남편에게서 드문히 보게 되는 자기 우월감과 거만이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를 어렴풋이 느끼며 새파래서 부르짖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건 참을수 없어요. 아버지 명예를 팔아 살아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재산을 보고 청혼을 한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 돈이나 재산을 무슨 존재의 기초로 아는데 아니에요?》

《됐소, 됐소!》 그가 발끈해 진 류선옥의 말을 황급히 막았다. 《아버님에 대한 당신의 말은 옳소. 원사선생님은 훌륭한분이요. 돈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렇소, 난 무역일군이요. 나라에 돈을 많이 벌어들여 오면 좋은거지 나쁜게 뭐가 있소. 그러니 달리 생각지 마오.》

남편은 아리송한 말을 하면서 언제나와 같이 병글병글 웃었다.

류선옥은 그것이 비굴한 타협의 미소 같이 생각되어 혐오감을 금할수 없었다. 불씨는 더 번지지 않았지만 류선옥은 그때부터 난파선에 몸을 실은듯 불안하기만 했다.

남편은 드문히 외국출장의 길에 올랐고 생활은 말할수 없이 유족했다. 하지만 류선옥은 행복하지 못했다. 끝내는 별치 않은 금전상의 문제때문에 화해할수 없는 언쟁이 벌어 졌고 그것은 오래지않아 결렬에로 이어 졌다. 류선옥은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을 업고 본가로 돌아 왔다.

집안에서 큰 소동은 일어 나지 않았다. 원래 조용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선옥은 부모님들앞에 죄스럽기만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딸의 정상을 보기 딱했던지 아버지는 험한 표정을 애써 지으며 창가로 다가가 문을 활 열어놓았다. 답답하던 방안으로 신선한 대기가 흘러들었다.

《애야, 너무 피로워 말걸 없다. 여기 와서 저 별들을 좀 보렴.》

하늘엔 별바다가 펼쳐 졌다. 언젠가 그 밤처럼.

《별바다가 참 황홀하구나. 그런데 저 별바다에서 개개의 별이라는거야 무엇이겠니. 땅우에서 보면 그저 한점의 빛에 불과한거지. 하나하나의 별들이 수없이 모여 별바다를 이루었기에 저렇게 아름다운것이 아니겠느냐. 저 별바다의 아름다움속에 매개의 별들도 존재하는것이지.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존재하는거다. 사회와 집단에 한점의 빛으로 보래진다면 사람은 행복해 진다. 그러니 애야, 너는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다 잘될게다.》

아버지는 갑자기 말이 없었다. 별들이 새록새록 웃는 아득한 공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이 밤따라 이상한 갈망이 타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한

대의 세계에서 무엇인가 찾아 내려고 애쓰는것 같기도 했고 거기서 있게 될 그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듯도 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옷방으로 올라 갔다.

이즈음에 아버지는 두툼한 원고를 집필중에 있었다. 그것은 한생의 과학활동에 대한 총화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침에 아버지는 평소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런데 심문도 채 안되어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왔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채 한현관 사람의 등에 업혀 들어왔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도 생명의 위험만은 없었다.

얼마간 마비가 왔던 기관들도 오래지 않아 회복되었다.

자리에서 일어 나자 아버지한테서는 전에 볼수 없었던 외적현상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집안에 있다가도 때없이 누가 오지 않는가 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어리군했다. 아버지의 신상에서 일어 나는 변화야말로 불행의 조짐이었다. 후날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그때 벌써 자기한테서 일어 날 엄청난 그 일을 예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시간의 촉박감을 느끼며 대학박사원생들을 지도했고 집에 돌아 오면 시간을 감감하고 집필에 몰두했다.

류선옥은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아들이가 올라와 무던히도 신경을 썼다. 죄 없는 어린것이 아버지의 불행을 날라 온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어느날 아버지는 끝내 두번째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이번에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

지나온 생애를 돌아다 보니 남은것은 후회뿐이다. 선옥은 가로등 기둥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집으로 향했다.

그가 자기 집 층계를 오르고 있는데 출입문이 와당탕 열리며 어머니의 당황해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공포와 슬픔이 엉킨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류선옥은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것만 같았다.

《애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한줄만해 진 어머니에게서 짓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류선옥은 정신 없이 방안으로 달려 들어 갔다.

이웃들이 자리를 내주었다.

《아버지!-》

애처로운 호곡이 방안의 공기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

아버지는 운명하고 있었다. 딸의 목소리가 울리자 다 스러졌던 채무지에서 불씨가 빨갛게 살아났다. 꺼매진 아버지의 입술이 알릴듯말듯하게 열리

였다. 류선옥은 아버지가 유언하러 한다는것을 알았다. 한테 원사는 아직 마비가 오지 않은 의식속에서만 땀도는 말마디들을 퍼낼수 없어 모지름만 쓰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 났다. 마비상태에 있던 원사의 손이 놀랍게도 허공에 번쩍 들리었다. 푸른 정맥투성이의 손에서 손가락하나가 허공을 향해 퍼지더니 재빨리 움직였다.

마치도 별 많은 그 밤 신비로운 은하계를 가리키던 그때를 재현해 보는듯 했다. 아니, 어쩌면 한생을 학자로 살며 제자들을 위해 흑판우에 무수히 써오던 기호들을 다시 그려 보는듯 했다. 원사는 자기의 그 언어로 생을 마감 짓는 순간에 한생의 사랑을 다 바쳐 온 무한의 세계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듯 했다.

류선옥은 이제 한순간만 지나가면 영원히 알수 없게 될 허공에 그려 지는 불가사의한 무형의 글자들을 알아 보려고 온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류선옥에게는 그것들이 새하얀 종이우에 또렷이 새겨 지는 글발들처럼 선명하게 안겨 왔다.

《행복하라!》

마지막획을 긋던 손이 붉은 이불우에 툭 떨어졌다.

《아버지!》 선옥은 비애에 차서 불렀다.

원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고통으로 이지러지던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와 평온이 실리었다.

×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나갔다.

원사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도 모두 가버리고 북잡하던 집안이 조용해 졌을 때 류선옥은 주인없는 서재에 홀로 앉아 세상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다.

류선옥은 복도에서 다급하게 울려 오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류선옥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급해 졌다.

가까와 오던 발자국소리는 분명 문앞에서 멎더니 인차 《딸랑》하고 초인종소리가 났다.

류선옥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 나 복도로 달려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복도에서 습기와 함께 생소한 남자의 체취가 풍겨 들어 오면서 애되어 보이는 목소리가 울리었다. 그 목소리만은 귀에 익었다.

어둠에 익숙되자 류선옥은 비취색 코트를 입고 자그마한 고급트렁크를 든 단정한 청년을 알아 보았다. 그전날의 체소하고 병색이 짙던 그가 아니었다. 몸이 보기 좋게 난 세련된 청년이었다. 동심한 얼굴에 그려 지는 미소만이 그전날의 흔적처럼 생

각되였다.

류선옥은 자기가 명칭해서 손님을 그냥 밖에 세워 놓고 있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황황히 방안으로 안내했다.

《기차에서 이자 내렸습니다. 원사선생님 계십니까?》

방안으로 들어 서기 바쁘게 오영원이 묻는 말이였다. 그는 스승이 세상 떠난줄을 모르고 찾아 온 것이였다.

조금 후에 방안에는 간소한 제상이 차려 졌다.

자그마한 액틀안에서 갱뿔한 얼굴의 원사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추모의 술을 붓는 사랑하는 제자의 눈물에 젖은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선생님!》

오영원은 정중히 목도를 하고 나서 가지고 온 자기의 박사증을 꺼내 스승의 제단앞에 올려 놓았다. 인공지능구위성발사에 참가하고 나서 받은 박사증이였다.

젊은 박사는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으나 끝내 목이 메여 잊지 못했다.

고인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 두려는듯 오래도록 사진을 들여다 보던 그는 조용히 일어 섰다.

원사의 로부인이 하루밤 집에서 쉬고 가라고 하자 그는 진정으로 미안해 했다.

그는 시간이 무척 바쁜 사람이였다. 려판에 들렀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들어가야 했다.

류선옥이 바래 주러 따라 나섰다.

오영원은 만류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안개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두사람은 큰길에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다. 준비하게 늘어 선 고층살림집들은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류선옥은 자기가 많은 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다만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만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하여, 제자의 소식을 애라게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정작 거리에 나오니 그 말들이 나가지 않았다.

류선옥은 문득 아버지가 운명하는 순간에 허공에 새기던 글발들이 떠올랐다. 류선옥은 그 이야기를 했다.

오영원은 한동안 말 없이 물기 흐르는 보도우를 내려다 보며 걸어 갔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불꺼진 고층살림집 창문들을 올려다 보았다. 살림집은 수없이 많은 생활의 보금자리들을 품어 안고 뾰얀 안개비속에 잠겨 있었다.

비는 무엇을 저어하듯 소리 없이 그냥 내리었다.

오영원의 눈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했다. 류

선옥은 그 순간 청년의 두눈에 물기가 자욱히 어린 것을 보았다.

《원사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오영원이 말했다.

류선옥은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행복하시나가요?》

오영원의 눈길은 멀리 맞은편에 있는 고층살림집에 가뒀었다. 거기 살림집 중간층에 붙여진 유난스런 창문이 하나 있었다.

오영원은 비탈속으로 흘러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혁-하고 흐느꼈다.

추모의 제안앞에서조차 참고참았던 걱정이 한순간 견줄 수 없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선옥동무도 생각 날 것입니다. 제 언젠가 박사원 졸업논문때문에 댁에 찾아 갔다가 원사선생님을 노엽혀 드린 일이 있지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전 참으로 어리석었지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원사선생님도 인간이지요. 선생님한테는 아마도 그 밤이 너무나도 모질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뵈히지 않을 못!》 다시금 그 《못!》이 류선옥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 든다. 선옥은 지금껏 풀어 보려고 모지름을 써왔으나 풀 수 없었던 헝클어진 실꾸리를 다시 불안으며 다급히 부르짖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구요?》

오영원은 이상한 눈길로 그를 피뚱 바라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때 저는 오래동안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온 졸업론문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의문이 생겼지요. 하지만 논문완성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성의를 다해 주신 선생님앞에 그렇다는 말을 감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원래 논문을 덮어 버리고 새로 썼지요. 저의 식대로 말이지요. 댁의 식사시간에 뛰어 든 것은 그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본래의 논문을 철회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 쓴 것은 보려고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무섭게 노하여 저를 추궁하시었습니다. 그래 인젠 이 원사 같은 건 필요 없단 말이지, 비겁하다, 그게 어떤 논문인데 철회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과학의 높은 요새를 타고 앉겠는가고 하시며 가슴 아파하시었지요. 그러한 선생님에게 사실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쓰다만 저의 논문 아닌 논문을 놔둔 채 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저대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얼마간 진정된 다음에야 원사선생님앞에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진리는 하나이지만 매 과학자들에게는 자기 나름의 논리와 주장이 있지요. 과학자라면 누구나 자기의 그것을 부정하기 힘들어 하지요. 그건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관

련되는 것이니까요. 동무도 그렇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바로 아직은 가설에 불과한 저의 새 <논문>이 원사선생님의 이론을 내놓고 무시한 셈이 되었지요. 그러니 선생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튿날 선생님은 아침 일찍 저를 찾아 오셨더군요.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용서하라우!> 선생님은 흥분하여 두서 없는 말을 하고는 덜덜 떨며 눈물만 글썽해 지더군요. 저는 갑자기 땀해 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참만에야 다시 말씀하시더군요. <난 지금껏 자네가 이 늙은 원사의 높이에 올라 설 것을 바랬지. 자네가 새로운 이상과 포부를 안고 자라난 새 세대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자넨 이 늙은이를 까마득히 떨구고 올라 섰어.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나라가 하루빨리 저 하늘에 우뚝 솟아 오를 게 아닌가!> 저는 그제야 원사선생님이 간밤에 저의 새 <논문>을 검토해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마음속엔 괴로움을 안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미치더군요. 저는 죄스러운 생각에 머리를 숙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성의가 깃든 논문을...> <무슨 말을 하자구 그러나!> 선생님이 저의 말을 가로 채더군요. <자넨 이 원사의 명예에 대해서 말하자는 건가? 명예는 누구한테나 귀중하지. 명예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하지만 명심하게. 우린 조선의 과학자들이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사회주의를 지켜 주시려고 매일 같이 최전선에 나가 계시는 줄을 자네도 알지 않나. 장군님의 구상을 꼭 피우는데 자기의 것을 다 바칠 때 명예도 빛나는 거야. 난 저 우주에 우리의 자호를 새긴 인공지구위성이 날게 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건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거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자넨 큰 일을 꼭 할 수 있어. 아니, 큰 일을 해야 하네!> 저는 비로소 원사선생님이 자기의 이론을 무시 당한 데 대하여 괴로워 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새 가설이라는 것도 결국 새로운 발견이 아니지요. 그건 선생님의 토양에서 나온 것이지요. 선생님은 과학자의 량심과 의무를 가장 귀중히 여기었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겼지요. 참된 애국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선생님이 운명하시면서 행복하라는 글을 쓰셨다고 했지요? <행복하라!>...》

오영원은 메아리처럼 되뇌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것이 가득 찼다.

《<행복하라!>... 그건 선생님이 선옥동무나 우리 모두의 앞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그 글을 저 하늘에 새겨 놓았지요. 지금도 저 무한대의 공간을 날고 있는 우리의 <광명성-1>호에도 선생님의 순결한 량심이, 애국의 마음이 새겨

저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새긴 글은 지워 지지 않는 법이지요. 영원히...》

사람이란 한생을 두고 철이 든다고 했지만 류선옥은 사랑이란 화려한 우산밑에서 이날이때까지 너무나도 많은것을 모르고 살아 왔다. 어머니가 사랑의 머리칼 한오리가 그냥 세는것이 아니라고 언젠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 났다. 이제 다시 어린애로 태어난다면! 아니, 이 무슨 황당한 생각인가! 생활이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다. 류선옥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해하자 자식으로 태어나 영원히 보상할 길 없는 부모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다하지 못한 효도를 두고 가슴이 미어져 왔다.

《다 왔습니다.》

오영원이 멈춰 서며 말했다.

류선옥은 머리를 들었다. 앞에는 하얀 고층건물이 묵중하게 솟아 있었다. 고요와 부드러운 빛이 뽀얗게 서린 현관등아래 커다란 밤색 출입문이 오늘따라 별스레 엄엄해 보이였다.

《안됐군요. 짐이나 들여다 놓고 제가 다시 바래드리지요.》

오영원이 진심으로 미안해 하며 말했다.

《일 없어요. 선생님! 혼자 가겠어요. 혼자 가고 싶어요.》

류선옥은 자기 말이 너무나도 매몰차게 울린것만 같아 미안했다. 그런데 정말 혼자 걸으며 아직도 많은것을 생각하고 싶었다.

오영원이 그 심정을 이해한듯 부드러운 미소를 소리 없이 지어 보였다.

그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으나 류선옥은 듣지 못했다. 그는 이미 돌아 서서 걷고 있었다.

안개비는 여전히 뽀얗게 내리었다. 상냥한 애무

의 손길마냥 얼굴에 와닿는 산뜻한 촉감, 류선옥은 쾌감을 느끼었다. 그렇다. 선옥은 고독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 며칠사이에 처음으로 느껴 보는 감정이였다.

류선옥은 은실 같은 비가 억만가닥 드리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득한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오는것만 같았다.

《행복하라!-》

류선옥은 크나큰것을 남겨 놓고 간 아버지의 마지막당부이며 축복이기도 한 그 뜻을 다시금 의미해 보며 《아버지.》 하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불렀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 졌다. 젖먹이 아들애를 어설피게 잡 채워 놓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전에는 어린것의 정다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울지 말아라. 너는 행복해 질게다. 저 하늘을 보아라. 그래, 그래, 행복해 지구 말구.)

류선옥은 연약하고 보동보동한 작은 몸뚱아리를 눈앞에 그려 보며 살그머니 웃음을 지었다.

(애야, 너는 이답에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우리 나라를 빛내이는 과학자가 되거라!)

류선옥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런데 그것은 류선옥의 말이 아니였다. 아득히 흘러 간 소녀시절, 그의 머리말에 만태엽을 준 장난감 같은 반짝이는 자명종을 놓아 주며 젊은 아버지가 속삭여 주던 말이였다.

선옥은 이제 아들이가 인민학교에 들어 가면 꼭 자명종을 사다가 놓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불쑥 떠오른 생각이였다.

내 고향 스무나무처럼

김휘조

그 언젠가

공장구내, 고향강가

아름드리 스무나무아래 동무들 모여 앉아

어릴적 강기슭에 조개를 줬던

그 시절 한포대들 이름을 더듬다가

더듬다가 종시 한 이름은 기억 안나

그런 때 누구던지

정다운 음성으로 하던 말이 생각 나네

《그 왜, 당이 간석지공사장으로 부를 때

그 친군 선참

그리로 달려 갔지...》

그렇더라. 세월의 흐름에 묻혀

그 이름 때로 생각 안날수 있어도

그가 한 일은 기억에 남더라

그 어데 가도 삼삼 눈에 어리는

내 고향 정든 강가

우뚝 선 스무나무처럼

푸른 잎

송병준

출장지에서 돌아 온 시급양관리소 지배인 장일구는 사무실 책상우에 손가방을 던져 놓고 창문을 활 열었다. 햇빛이 비쳐 드는 방안은 몹시 무더웠다. 그는 부채질을 활발하며 담배를 꼬나물었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럴것이 이번 시군 급양관리소 지배인들의 회의에서 그는 원로기지를 잘 꾸린것때문에 대단한 평가를 받은것이였다. 그는 문득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안해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돌아 왔다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였다.

안해는 무척 기다린듯 여러말끝에 집으로 들어올 때 수원지 관리소장을 꼭 만나보고 오라고 당부했다.

《홍식이틀?...》

《성옥이가 약혼식을 하게 된대요. 큰아버지구실을 해야 할게 아니예요.》

성옥은 시내 양복점에서 고급재단사로 일하는 수원지관리소장의 딸이다.

《약혼식을? ... 허허... 총각은 뭘하는 사람인데?》

《건설사업소 기사래요.》

《종구만!》

그는 아까 기차에서 내려 역전공원옆 길에서 성옥을 만났던 일을 되살렸다. 그때 성옥은 체격이 그 쫄한 미남의 청년과 마주 서 있었다. 청년은 말하고 성옥은 고개를 숙인채 발끝으로 땅만 허비고 있었다. 그러다가 성옥은 꺾 돌아 서 종종걸음을 쳤다. 장일구는 성옥이가 옆을 지나려 할 때 그를 불렀다.

《성옥아!》

주춤 떴어 선 성옥은 이쪽을 보더니 《큰아버지 세요!》 하고 반색을 하더니 《전 좀...》 하면서 성급히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생각하여 보니 성옥이가 얼굴을 들지 못한것은 장일구 자기 보기가 미안해 그런것 같았다. 그것은 장일구가 늘 성옥에게 네 신랑감은 이 큰아버지가 구해 준다고 말하곤 했던것이다. 성옥에게 좋은 혼처를 구해 주는것이 장일구로서는 큰아버지구실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사회적 위치도 있고 생활태도도 괜찮은 선원구락부의 한 총각을 소개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옥은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고는 다시 찾아 오지 않았다. 아마 소개해 준 대상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은 모양이였다.

장일구는 지금도 성옥의 신랑감이 될 대상을 수소문중이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남모르게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것이 아닌가.

장일구는 마음이 흐뭇하여 곧 수원지 관리소장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방이 빈것 같았다. 잠시후에 다시 찾았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장일구는 단념하고 직접 찾아 가 보리라 작정했다.

그는 수원지 관리소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한낱 한시에 군대에 입대하여 한중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같은 날에 제대되어 고향도시로 온 그들이였다. 나이도 같고 장가도 한해에 갔으나 장일구가 먼저 딸을 낳는 바람에 그는 대뜸 큰아버지가 되고 친구의 처는 제수가 되고말았다. 수원지 관리소장이 뒤이어 딸을 낳았을 때 장일구는 참미역꾸레미를 들고 가서 성옥의 장래는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진심의 말을 했다. 그래서인지 성옥은 자라면서 장일구를 친혈육처럼 따랐으며 다 큰 처녀가 되어서는 자기 일신상의 문제까지도 조언을 받곤 했다. 만일 장일구의 첫 자식이 아들이었다면 모름지기 인물 곱고 영특한 성옥이는 그의 며느리가 되었을 것이였다. 그런 성옥에게 대상자가 생겼다니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장일구는 퇴근시간이 되자 수양산밑에 자리 잡은 수원지관리소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소장실 문은 채워 져 있었다.

《소장동문 어디 갔소?》

그는 지령실 문을 열고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안면이 있는 부원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머칠째 기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하고 수심낀 목소리로 대답했다.

《출근을 하지 않다니?》

장일구는 혹시 몸이 불편한게 아닌가 하고 묻는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에게야 뭘 숨기겠습니까. 우리 소장동지에게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란건 또 뭐요?》

장일구는 느닷없이 불안이 갈마들어 또 캐물었다.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한것때문이지요.》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했다니?》

《아, 지배인동지두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야 장일구는 비 오는 날 수문을 열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생각이 났다.

《그것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

부원은 입이 쓰거운지 대답을 안하다가 다시 말했다.

《시범무부에서 문제를 크게 보는것 같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크게 본단 말이에요?》

장일구는 부원의 말이 선뜻 믿어 지지 않아 이렇게 되물었다. 법무부에서도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능히 이해해 줄듯 싶었다.

《그만한 일에 소장동무가 출근조차 안한단 말이에요?》

장일구는 기가 막혀 나무라는조로 또 물었다.

《웬걸요. 수원지에 나갔지요.》

부원은 한숨을 내쉬 다음 그동안 벌어진 일을 떠들떠 이야기했다.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은 날 관리소장은 정화장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지시했다. 정화장에서는 옥계동 주민지대에 음로수공급을 중단하고 수질검사를 진행하였다. 당장 도시경영국에서는 어째서 옥계동구역에 수도물 공급을 두 시간동안 중단하였느냐고 따지었다. 고지식한 관리소장은 사실대로 보고하였던것이다. ...장일구는 속이 달아 올라 수원지로 올라 갔다. 생각해보니 성육이가 피한것이 아버지문제로 하여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나다를가 키가 꺾두룩한 관리소장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똑아래에서 무엇인가 건져 내고있었다.

《뭘 하나?》

장일구가 쪽우에서 소리쳤다. 소장은 장일구를 알아 보고 허리를 펴며 일어 서더니 《물우에 떨어진 락엽을 건져 내는중일세.》하며 기름한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장일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담배를 주머니에 넣게. 올라 오면서 <위생보호구역>이라고 쓴 표말뚝을 보지 못했나?》

관리소장은 무슨 큰 일이라도 난듯 황급히 소리쳤다. 장일구는 할수없이 담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래 출장을 갔다더니 언제 왔나?》

관리소장은 장일구의 곁에 주저앉으며 천연스럽게 물었다.

《좀전에 왔네. 그런데 뭐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문제를 세웠대며?》

장일구는 미간을 찌프리며 불만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관리소장은 대답 대신 한동안 수면우에 어두운 눈길을 던지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어찌겠나,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뿜는 물에서 그물질을 몇번 한것도 죄로 되는가. 오염이 되지 않아도 말일세.》

장일구는 관리소장을 쳐다보며 빈정거렸다.

《물론이지. 수원지에 외부 사람을 들여 놓은 그 자체가 규정위반이니까. 주민들이 먹는 생명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건 사실 독약을 치는거나 마찬가지일세.》

관리소장은 자책감에 잠겨 조용히 말했다.

《좋네. 그렇다면 내가 부탁해서 일이 그렇게 됐은즉 처벌도 내가 받겠네.》

장일구는 격하여 자리에서 일어 섰다.

《흥분하지 말게. 이제 와서 책임을 론할 때가 아니야. 수원지 관리소장으로서는 자기 직분을 제대로 유지 못했으니 책임을 질수밖에 없네.》

《걱정 말게. 시 법무부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한명 있네. 내가 토론하겠네.》

장일구는 수원지 관리소장을 안심시켰다.

《제발 자네가 이런 문제를 들고 찾아 다니지 말라구.》

관리소장은 사정하듯 진심으로 권고했다. 장일구는 껄껄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인민반 세대주반장인 시인민위원회 법무부장 방인성의 인간됨을 생각했다. 그는 언제 보나 소탈하고 너그러운 호인형의 사람이였다. 인민반원들은 이해가 깊고 후더운 인정을 가진 그를 무척 존경했다. 한마디로 법을 다루는 그는 법없이도 살 인간이였다.

문득 얼마전의 일이 떠올랐다. 밤새도록 쪽우가 내린 새벽이였다. 살림집주변은 온통 물바다였다. 비물은 현관문을 넘어 서려고 넘실거리고 앞마당의 아이들 놀이터도 잠그어 버렸다. 몇사람의 세대주들이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하수도가 있는 쪽에서 누군가 벌써 나와 삽질을 하고 있었다. 세대주반장인 방인성이였다. 장일구도 삽을 찾아 들고 급히 다가갔다. 비물은 장다리에까지 차올랐다.

《뭘 하오?》

장일구가 의아쩍은 어조로 물었다.

《누가 하수도뚜껑우에 모래를 쌓아 놓지 않았겠소. 그래서 비물이 빠지지 못했던거요.》

방인성은 너부죽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뺨 문지르고 나서 삽질을 세게 해댔다.

장일구도 그를 도와 삽질을 했다. 또 몇명의 세대주들이 나왔다.

《정신 나간 사람이군. 하수도구멍에 모래를 쌓아 놓다니...》

누군가 삽질을 하며 성이 나서 투덜거렸다.

《글쎄 말ियो. 누가 이따위짓을 했는지 단단히

욕을 좀 해야겠소.》

장일구도 한마디 했다.

《우정이야 그랬겠소. 비가 올걸 생각 못했잖지.》

방인성이 여전히 삽질을 하며 누군가를 두드렸다. 모래를 다 치우고 하수도뚜껑을 잡아 제끼자 물은 삽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살림집 2층 1호실에 사는 항사업소 운전사가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미안합니다. 어제 밤에는 별이 총총하길래 생각 없이 부렸는데…》

젊은 운전사는 사람들 보기가 미안하여 어쩔 줄 몰라했다.

《그러니까 동무가 장본인이구만.》

방인성이 허리를 펴며 너그럽게 물었다.

《예. 사실은 저 놀이장에 깔려고…》

운전사는 감탕이 덮인 아이들 놀이터를 눈짓하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됐소. 아이들을 위해 모래를 실어 온건 좋은 일이요. 앞으로 교훈을 찾으라구.》

방인성은 사람 좋은 웃음을 꺾꺾 터뜨리며 운전사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 주었다.

장일구는 일을 아량있게 대하는 법무부장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수원지문제도 방인성이 나서주면 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성옥이가 장일구를 만나려고 사무실을 찾아 왔다. 언제나 발랄하고 생신하던 성옥은 아버지때문에 고민을 해서인지 얼굴이 혈کم했다.

《큰아버지, 요전엔 안됐어요. 제 생각만 하고…》

사뭇 미안해하는 처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허허… 괜찮다.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말아.》

장일구는 꺾꺾 웃으며 성옥을 위로했다.

《죄야 별로밖에 더 다른 보상이 있겠어요.》

성옥은 서글픈 표정을 짓고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릴, 별치 않은것 가지고 상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시범무부장을 잘 아니 그가 도와 줄게다.》

《저도 큰아버지가 안다는 그분을 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여간 꼭자가 아니예요. 글썽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판리국에 배치됐는데 당에서 공부시킨 건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는게 아니라고 하면서 끝내 현장기사로 보냈어요.》

법무부장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옥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우려감이 짙게 어려 있었다.

《성옥아. 량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없지만 동지들한테는 뜨거운 법이다. 나는 그의 인간됨을 안다. 하찮은 문제를 확대시킬 사람이 아니다.》

장일구는 성옥을 안심 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분에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찾아가 사정하지두 말구요.》

성옥은 눈물이 가랑가랑하여 애원하듯 말했다.

《허허… 알겠다, 알겠어.》

장일구는 성옥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 주며 사무실 문밖까지 바래 주었다. 성옥이가 간 다음에도 장일구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찌하여 그들 부녀가 법무부장을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조용히 처벌을 받겠다는 것인가? 사실 생각하면 방인성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고지식하기 그지 없는 사람이다.

얼마전에 장일구가 시내 식당을 돌아 보고 있을 때였다. 뜻밖에 법무부장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우동집에 나타났다. 장일구는 접대원에게 법무부장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라고 일렀다. 급양관리소 지배인으로서 세대주반장을 후하게 대접하고 싶어서였다.

《여기도 좋구만. 씨원한게…》

법무부장은 식당홀을 둘러 보며 사양했다.

《단체가 있소. 자 저리로 갑시다.》

장일구는 이렇게 밀하며 자신이 직접 뒤방으로 법무부장을 안내했다. 법무부장은 식표를 떼고 손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장일구는 접대원에게 뒤처리는 내가 할테니 손님들에게 한상 잘 차려들여 보내라고 이르고는 자리를 떴다. 후에 접대원이 하는 말이 법무부장이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면서 삭탁우에 돈을 더 내놓았다는 것이었다. 장일구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했다.

《부장동무, 그건 뭐요? 이웃 친구의 성의를 그렇게 대하기요?》

《허허… 지배인동무, 그러지 마오. 식당의 음식이야 지배인동무의것이 아니지 않소.》

법무부장은 꺾꺾 웃으며 점잖게 대답했다. 장일구는 얼굴이 확 붉어 졌다. 결국 국가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낫대기를 한몫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랬던 법무부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사정이 다르다. 장일구는 그를 찾아 떠났다. 법무부장 방인성은 장일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윽에 살면서 아침저녁 서로 만나기는 하지만 장일구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 오기는 처음이었다.

《지배인동무가 어떻게?…》

방인성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의자를 권했다.

《부탁을 하나 하자고 왔소.》

장일구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표정은 마치 무엇을 주려고 온 사람처럼 싱글벙글했다.

《뭘요? 어서 말씀하십시오. 지배인동무의 부탁이라면야 내 뭐든...》

《그 말만 들어도 고맙소.》

장일구는 이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방인성에게 권한 다음 자기도 한대 피워 물었다. 잠시후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부장동무를 찾아 온건 다르게 아니라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은 일때문ियो. 그건 전적으로 나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요.》

《아니?》

방인성은 사뭇 놀라운듯 눈길을 들었다.

《...》

《무슨 소리인지, 수원지 관리소장은 그런 말을 안하던데요.》

《책임을 혼자 지려고 그랬겠지요. 그는 원래 나에게 잘못을 미는 성미가 아니니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장일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게 된 사연을 차초지중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밖에서는 여름비가 부실부실 내리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큰 비가 내리겠다고 했다. 사무실에 앉아 비 내리는 밖을 내다보니 장일구는 걱정이 산갈았다. 도소년단야영소 소장이 부탁한 칠색송어를 구할 일이 난감했던것이다. 며칠전에 야영소 소장은 야영생들의 《식사차림표》에 칠색송어국을 먹이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때 장일구는 칠색송어가 뭐 어렵겠느냐고 혼연히 동의했다. 학현양어장에 있는 칠색송어를 생각했던것이였다. 그런데 일이 안되느라고 그 양어장의 물고기를 이틀전에 모두 잡아 인민군대에 보냈다는것이였다. 장일구는 야영소 소장에게 칠색송어 대신 잉어나 송어를 보내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다. 소장은 펄쩍 뛰었다.

《식사차림표》는 이미 야영생들에게 공개했기때문에 변경시킬수 없다는것이였다. 이제는 할수 없이 수백리 떨어진 룡정양어장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이 비속을 헤치고 그 험한 산골길을 어떻게 간단말인가.

이때 곁에 있던 지도원이 옥계수원지에 칠색송어가 있을수 있다고 귀띔했다. 원래 옥계수원지는 수양산속에서 흘러 나오는 찬물로 칠색송어를 기르던 양어못이였다. 그랬던것이 옥계동에 주민구역이 늘어 나자 수원지로 꾸렸던것이다. 언젠가 비가 많이 내린 때에 옥계수원지의 폭이 위험하여 수문을 열어 놓은 바람에 광석천에서 빨래를 하던 녀인들이 빨래방치로 팔뚝 같은 칠색송어를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장일구는 한시름 놓였다.

다행히 수원지 관리소장이 둘도 없는 친구였던것이다. 친구에게 부탁하면 그까짓 몇백키로야 눈 감고 잡아 주지 않으랴.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원지 관리소장이 나왔다.

《여보게, 자네가 나를 꼭 도와 주어야 할 일이 생겼네.》

장일구는 첫 마디부터 거절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그리고는 직방 칠색송어문제를 꺼냈다. 저쪽에서 한참 껄껄 웃더니 옥계양어못은 이미 수원지로 되었다고 느릿느릿 말하였다.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줄 아나? 물고기를 내가 먹자고 잡자는게 아니야. 야영소 아이들을 먹이자고 그래.》

장일구는 친구에게 사정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한참 듣고 있던 관리소장은 야영생이든 그 누구든 수원지에서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고 딱 잡아 댔다. 장일구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고지식하기란 그지 없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다른 방도는 없었다. 어쨌든 수원지 관리소장을 설복시켜야 했다.

장일구는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보라구 홍식이, 자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를 들어 왔겠지. 나라가 강행군을 하는 때에 우리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게 뉘덕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령도를 하시는 그 바쁘신 길에서도 차를 멈추시고 야영소로 떠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줄 아나? 야영소에 가면 저녁마다 발을 꼭꼭 씻고 자거라, 밤에는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배를 꼭 덮고자야 한다고 타이르시였다네. 여보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가며...》

장일구는 절로 격해져서 말끝을 맺지 못했다. 불몽치 같은것이 목구멍으로 왈칵 치밀었던것이다.

《...》

저쪽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자네 내 말을 듣나 먹나?》

한참후에 장일구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듣고 있네.》

관리소장의 어조는 한결 부드러웠다.

《그럼 어서 결심을 하게.》

장일구는 숨 돌릴잠이 없이 독촉을 했다.

《내 좀 수원지랑 올라 가서 방도를 찾아 보겠네.》

관리소장은 반승낙을 했다. 소뿔은 단김에 빼렸다고 장일구는 비웃을 입고 옥계수원지로 달려올라 갔다. 벌써 관리소장이 나와 수문옆에서 수원지관리원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관리원은 이대로 비가 계속 오면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 그물을 치고 수문으로 빠지는 물고기를 잡으면

될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수원지가 오염될것도 없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재이기만 했다.

《원, 이런 줄장부라구야. 좋은 일을 위해서 규정을 좀 어기는건 문제가 서지 않아, 흘러 가는 물에 그물질을 하기로서니 뭘 그리 떨고 있나.》

장일구는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면서 지긋게 달라 붙었다. 마음이 어진 관리소장은 차마 거절할수가 없었던지 한숨을 내쉬며 친구라는 체면때문에 일생에 처음으로 아는 죄를 진다고 중얼거리었다. 결국 이렇게 승낙이 되어 장일구는 사람들을 데려다 물고기를 잡게 했고 그날 저녁 《식사차림표》대로 야영생들의 식탁우에 칠색송어국이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됐군요.》

무엇인가 장일구의 말을 부지런히 쓰고 있던 방인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니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고 수원지 관리소장동무가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소.》

장일구는 방인성을 기대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알겠소. 지배인동무의 의견을 참작하겠소. 여기에 수표를 해주시오.》

방인성은 무엇인가 가득 쓴 종이장을 장일구앞에 밀어 놓았다.

《조서요?》

장일구는 종이장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프렸다. 《그렇소.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거요.》

방인성은 혼연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그럼?》

장일구는 어이가 없어 종이장을 든채 두눈을 홑뜨고 방인성을 쳐다 보았다. 끝내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할 잡도리 같았다.

《이걸 꼭 수표를 해야 하오?》

장일구는 전신을 휩싸는 실망감에 억이 막혀 또 물었다.

《법이라는건 반증문건이 있어야 하오. 이젠 뭘소?》

방인성의 어조는 여전했다.

《한가지 또 있소.》

장일구는 거북스러웠지만 말하기로 결심했다.

《말씀하시오.》

《인간적인 문제요. 수원지 관리소장동무에게는 당장 약혼하게 될 딸이 하나 있소.》

《알고있소.》

방인성은 빙그레 웃었다.

《아 그렇소? 확실히 법을 다루는 부장동무는 사람들을 립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군요.》

장일구는 안도의 숨이 나갔다. 다행스러웠다.

《그런게 아니라 관리소장동무의 가정생활문제에 제가 좀 관계하고 있지요.》

방인성의 어조는 부드러웠다.

《예, 그런 사연이 있군요. 그래서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만약 관리소장동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자식들의 사랑에 곡절이 생기지 않겠는지.》

장일구는 진심으로 그것이 걱정스러웠다. 자기때문에 사랑에 금이 가면 성옥의 가슴에 얼마나 아픈 못을 박겠는가. 그의 눈앞에는 문득 눈물에 젖은 성옥의 얼굴이 떠 올랐다.

《허허... 그렇게까지야 뭐.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고 그들의 사랑에 곡절이 생긴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지요. 하여튼 알겠소.》

방인성은 호인다운 웃음을 터뜨리며 장일구의 말에 리해를 표시했다. 역시 속이 깊고 씨원씨원한 사람이였다. 장일구는 떨리는 손으로 조서에 수표를 하고나서 《부장동무, 나는 부장동무를 믿고 왔댔소. 도와주.》 하고 간절히 부탁했다.

《알겠소.》

방인성은 장일구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일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껏 가슴에 달고 있던 무거운 쇠덩이를 풀어 놓은 심정이였다. 법무부장을 찾아 온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친구를 위해 자기 할바를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간 후련했다.

며칠이 지나 갔다. 그동안 시법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일이 그것으로 무마되는가 싶었다. 다행히 법무부장이 장일구의 말을 듣고 《수원지사건》을 막아 준것 같았다. 퇴근후에라도 이웃집에 사는 법무부장을 만나고 싶었으나 장일구는 꼭 참았다. 굵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무어랴. 법무부장은 이따금 고층살림집복도에서 장일구를 만났지만 아무런 내색을 안하고 반가와했다.

그런데 아침에 장일구가 사무실에 출근하니 법무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후 첫 시간에 시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참가하라는것이였다. 장일구는 얼굴이 굳어졌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참가하라? 그럼 법무부장직권을 가지고도 그 별치 않은 일을 무난히 처리하지 못한단 말인가?)

갑자기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오전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한손으로 턱을 받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끝내 법적문제를 세운단말인가. 아이들을 위해 한일이 설사 규정에 좀 어긋난다 한들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 한단 말인가.

당장 하늘에서 비가 쏟아 저 물을 뿜을 때에 그

물질 몇번 한것이 뭐 그리 큰 문제란 말인가.

생각을 거듭할수록 방인성의 처사가 고깝기만 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다가 깜짝 놀랐다. 시범무부에 가야 할 시간이 된것이다.

거리에서는 사람들과 차들이 분주히 오고 갔다. 네거리에 있는 교통안전원이 룰동적인 몸가짐과 지휘봉으로 차와 사람들의 왕래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삶이 약동하는 거리는 교통안전원의 지휘봉에 따라 하나의 질서와 규률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만약 차나 사람들이 그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나며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것인가.

장일구는 문득 수원지에서 그물질을 한것은 생명수에 독약을 친것이나 같다고 하던 관리소장의 말과 죄는 벌로밖에 보상할수 없다고 하던 성옥의 원망에 찬 소리가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는듯 했다. 금시에 온 몸이 떨리고 다리땀이 매시시해왔다. 그야말로 죄를 짓고는 한시도 살수 없다고 하던 말이 우연한 소리 같지 않았다. 장일구는 어디에 잠시라도 앉고 싶었다. 때마침 공원옆을 지나가던 그는 안으로 들어 가 외파로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여 붙여 물었다. 한결 두근거리던 가슴이 진정되는듯 했다. 이때 어디선가 고함소리가 들렸다. 장일구는 흠칫 놀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젊은 청년이 공원관리원에게 붙잡혀 옥을 먹고 있었다. 유보도로 가지 않고 잔디밭을 밟았다는것이였다. 장일구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 청년은 공원의 잔디밭을 밟은것때문에 추궁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시민들이 먹는 수원지를 더럽혔으니 내가 어떻게 봉사일꾼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괴롭혔다.

《아니 급양관리소 지배인동무가 아니시우?》

어느새 공원관리원아바이가 장일구를 알아보고 곁으로 다가와 아는체를 했다.

《예, 지나가다가 다리쉽이나 하려구요.》

장일구는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권했다.

《고맙수다. 요즈음 시내 식당들에서 감자음식이 풍년입디다.》

관리원아바이는 상대가 급양관리소 지배인인지라 식당이야기를 꺼냈다. 장일구는 봉사일꾼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는 관리원아바이가 고맙지만 그와 흥을 나눌 형편이 못되였다. 관리원은 장일구가 침묵을 지키자 혼자 소리처럼 다시 입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을 받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애쓰는데 안쪽에서는 공동질서를 헌신짝처럼 생각하니...》

관리원은 잔디밭을 짓밟은 청년의 소행이 아직도 패썹한 모양이였다.

《지배인동무.》 관리원은 장일구를 불러 놓고 자못 심중한 어조로 또다시 입을 열었다.

《공동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의 법도 우습게 여기게 되지요. 내 생각같아서는 나라의 법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나 공로에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원은 마치 장일구의 죄를 알고나 있는듯이 의자를 주먹으로 탕탕 치며 열변을 토했다.

《예, 예, 그래야지요.》

장일구는 등골이 선전선전하여 저도 모르게 얼른 긍정했다. 뺨을 사정없이 후려 치는듯한 관리원의 목소리와 찌르는듯한 날카로운 눈길에 위압이 된 장일구는 더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움츠린채 공원을 허둥지둥 빠져 나왔다. 얼굴이 확확 달아 오르고 가슴이 얼얼했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허울 좋은 자기를 비난의 눈초리로 쏘아 보는것 같았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결정은 뜻밖이였다. 수원지 관리소장에게 끝내 2개월의 자격정지와 함께 무보수로동처벌이 차려졌다. 그러니 수원지 관리소장은 당분간 자기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법적제재를 받은셈이였다. 그러나 장일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량심의 가책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친구에게 오점을 남기게 했다.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성옥의 절망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체면으로 그 얼굴을 마주 볼수 있겠는가. 장일구는 고통과 후회로 하여 가슴이 아팠다.

언제 회의가 끝났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방안에는 법무부장이 혼자 앉아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웬일인지 어두운 빛이 어려있었고 눈귀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여 져 있었다. 그 역시 마음이 편안치 않은것 같았다. 창밖에는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 왔다. 장일구는 방인성을 보며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용수가 없고 무서운 사람이였다. 평소에는 사람 좋은 인간으로 보였지만 법앞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였다. 그야말로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사람이였다. 회의장에서 수원지 관리소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날카로웠다. 그는 비록 수원지 물이 오염되지 않았지만 수원지관리소장으로서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것은 용서할수없는 일이라고 력설했다. 그리하여 관리소장의 파오는 더 엄중한것으로 되였다. 그가 눈만 감아준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을수도 있었다.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 되고말았다. 장일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인성을

지켜보다가 서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난 부장동무를 믿었됐소.》

글을 쓰던 방인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의견이 있습니까?》

《물론 나는 법앞에 옹당한 책임을 느끼오. 그리고 처벌도 각오했소. 하지만 수원지 판리소장을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소.》

장일구의 어조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방인성의 부드러운 얼굴에 또다시 그늘이 스치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 섰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인성은 말없이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에는 자못 근심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윽고 방인성은 고개를 돌려 장일구를 편민에 찬 눈길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계정부리지마오. 오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동무들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했소. 동기는 어떻든지간에 수원지 판리소장동무는 나라앞에 수원지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처신을 잘못했고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하루 동안의 음료수를 공급하지 못한 엄중한 과오를 범했소. 우리 국가는 다른것과 달리 인민생활에 침해를 주는 행위를 티끌만한것이라 하여도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며 인민적인 시책의 하나인것이지요. 때문에 수원지 판리소장동무에 대한 처벌은 옹당한것이요.》

장일구는 놀라운 눈길로 방인성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방인성의 목소리는 다시 절절하게 울렸다.

《그래서 나는 지배인동무의 부탁을 받았지만 오히려 수원지 판리소장동무를 엄중히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소.》

《?!...》

장일구는 쳐들고 있던 고개를 푹 꺾었다. 방인성은 창가에서 물러나 자기 자리에 앉으며 말을 계속했다.

《이번 사건에서 지배인동무도 레외가 될수 없지요. 하지만 지배인동무에게는 처벌을 적용하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지배인동무가 이미 판결을 받은 셈이기때문이지요.》

《판결을 받다니요?》

장일구는 깜짝 놀라 두눈을 크게 떴다.

《그렇지요. 량심의 판결을 받았지요. 판결중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은 량심의 판결이라 할수있지요.》

불시에 장일구는 가슴이 뜨끔했다. 누가 죄집게로 그의 가슴을 헤치고 량심이라는것을 끄집어 내

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사실 법무부의 호출을 받은 그 순간부터 때없이 갈마드는 불안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도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법앞에 서야 하는 수치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장이 그것을 깨우쳐 주었고 진정한 량심을 찾아 준것이였다. 장일구는 얼굴을 붉히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방인성은 또다시 준절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배인동무, 공민은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일단 법을 어기면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량심에 대하여 말하는데 법을 위반하고 량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습시다. 법은 언제나 량심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면 법과 량심은 함께 있기때문입니다.》

방인성은 잠시 말을 중단했다. 장일구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뿜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장일구는 수원지 판리소장에 대한 처벌이 지나쳤다고 불만을 가졌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량심이 없는 생각이였다. 방인성은 생각깊은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만도 우리 일군들이 국가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것때문에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시다. 일군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래사람들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경제질서가 문란해지며 결국 우리의 사회주의도 지킬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알면서 나라의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것은 역적이나 같습니다.》

방인성의 말은 쇠뿔등이로 장일구의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치는것 같았다. 금시에 눈앞이 아찔했다. 자기도 자칫하면 그런 길로 떨어질번 했다.

장일구는 생각할수록 몸서리가 쳐 졌다. 더 할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음이 무겁고 피로왔다. 장일구는 생각에 잠겨 정문을 걸어나오고 있었다. 이때 접수실에 앉아 있던 녀인이 문을 열고 《급양판리소 지배인동지시지요?》 하고 친절히 물었다.

《그렇소.》

장일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며 나직이 대답했다.

《방금 법무부장동지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왔는데 정문에서 잠깐 기다려 달립니다.》

접수원은 상냥스럽게 말했다. 장일구는 가슴이 섬찔했다. 무엇때문일까? 또 다른 무언가를 해명할 일이라도 있는가? 그는 마음이 부쩍 긴장해졌다. 정문 한쪽에 서서 법무부장을 기다렸으나 담배를 두대째 피울 때까지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허우대가 큰 방인성이 손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부지런히 나왔다. 그는 장일구가 정문한쪽에 서 있는 모습을 띄어 보고 급히 다가 오더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됐소. 갑시다.》 하며 전에 없이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이웃친구가 된 것이었다.

《어디로 말이요?》

장일구는 어리둥절하여 방인성을 쳐다보며 물었다.

《친구네 집이요.》

《?...》

《방금 전화가 왔소. 지배인동무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겠소.》

《누가 말이요?》

《친구지요. 오늘 그 집에서 약혼식을 하니까요.》

방인성은 빙그레 웃었다. 그의 두눈에서는 기쁨이 빛날쳤다.

《약혼식을 하다니요. 누구네 말이요?》

장일구는 방인성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영문을 알수 없어 또 물었다.

《누구긴 누구겠소. 수원지 판리소장네지요. 내가 그 집 사둔될 사람이요.》

《예?》

장일구는 그만 깜짝 놀라 그자리에 굳어 졌다. 너무도 뜻밖이었던 것이다.

《허허... 왜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생활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장은 진정에 넘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장

일구의 옷자락을 끌었다. 순간 장일구의 가슴속에 서 뜨거웠듯이 세차게 사뭇치며 눈앞이 확 흐려왔다.

(그러니 법무부장은 자기 사둔을?! ...)

보슬비는 언제 멎었는지 갑자기 주위가 밝아졌다. 저녁해가 구름장을 헤치고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그러자 인민위원회 정문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는 마치 미역을 감은듯 생신한 빛을 내뿜었다. 무성하게 펼쳐진 푸른 잎사귀들에는 수은

같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그것들은 저녁해의 여광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장일구는 온갖 먼지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자기 본연의 자태를 드러낸 한없이 청신한 푸른 잎들을 보는 순간 지금껏 구름처럼 끼여있던 불만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 짐을 느꼈다.

이때 저쯤 앞에서 두 청춘남녀가 걸어 오고 있었다. 처녀의 량손에 우산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문득 처녀가 《큰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이쪽으로 달려왔다. 성욕이었다. 장일구는 이름할수없는 감정에 휩싸여 성욕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뜨겁게 젖어 드는 눈길로 방인성을 쳐다보았다. 방인성도 부드러운 미소를 담고 젊은이들을 정겹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바람이 가볍게 불어 오자 은행나무 잎새들이 조용히 설레었다. 그러자 푸른 잎새들에 맺혔던 오색 령롱한 물방울들이 축포처럼 그들의 어깨우에 쏟아져 내렸다. 참으로 좋은 저녁이었다. 뜻이 깊은 저녁이었다.

상식

초고속컴퓨터

주체87(1998)년말 세계적으로 계산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가 공개되었다.

이 컴퓨터는 1초에 4조회의 계산을 할수 있다. 즉 일반 개인용컴퓨터보다 계산속도는 1만 5천배, 기억용량은 8만배나 크다.

어느 한 원자력연구소의 의뢰로 개발한 이 컴퓨터는 핵물리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한다. 이 컴퓨터로는 핵시험을 하지 않고도 모의시험으로 그것을 대신할수 있다.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약품을 개발하자면 보통 10년이 걸리지만 이러한 컴퓨터의 출현으로 이제는 1년반이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손바닥만한 전자수산기로 6만 3천년동안해야 할 계산을 이 새로운 컴퓨터는 1초동안이면 해낸다.

이처럼 빠른 계산속도를 가진 컴퓨터의 출현은 앞으로 과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올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